

2011 아동학대예방사업 우수사례집

발 / 간 / 사

올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을 준비한 창립멤버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10년간 아동학대현장에서의 활동과 지
나온 흔적들을 생각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지원체계 확립과 관련 법률 정비, 제도 개선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와 가족해체의 심화, 다문화가족 증대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지닌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대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활발한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통해 더욱 많은 피해아동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와 교육, 상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기능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최선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처럼 학대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아동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최전방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전국 상담원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든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기관에서 수행한 아동학대예방사례를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하여 '2011 아동학대예방사업 우수사례집'에 담았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상담원 및 심리치료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구어낸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사례개입의 귀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우리나라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더 큰 사랑을 전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1년 11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장 화 정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 수칙

I.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Contents

발 간 사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 01** 아동학대 개입사례
다시 찾은 행복한 소녀의 꿈 / 15
-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2** 아동학대 개입사례
부의 알콜중독으로 방임되었던 아동의
끝나지 않은 희망이야기 / 33
-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03** 아동학대 개입사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가족의 위대한 재 탄생’ / 51
-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4** 아동학대 개입사례
화장실 삼남매의 변화 / 65
-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Contents

- 05** 아동학대 개입사례
“어느 날 아침, 난 혼자였어요” / 83
-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 06** 아동학대 개입사례
4번째 신고접수와 지역사회 / 101
-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07** 아동학대 개입사례
지역사회 기관들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 사례 / 115
-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08** 심리치료 개입사례
어두운 삶으로부터의 자유 / 139
-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 09** 심리치료 개입사례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집단상담
“나-너, 함께하는 우리” / 161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Contents

- 10** 심리치료 개입사례
친부에 의한 성학대 피해아동 미술치료 / 187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 11** 협력체계구축 사례
“행복가족사진 공모전” / 205
-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 12** 프로그램 사례
미취학아동대상 성학대예방인형극전용극장 프로그램
‘좋은꿈단지인형소극장으로 놀러가자!’ / 215
-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다시 찾은 행복한 소녀의 꿈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01

성학대로 신고 된 본 사례는 신고접수 당일 경찰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녹화진술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여 성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파악하였고, 아동과 함께 폭력상황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모와 동생들을 가정폭력피해 자립터로 긴급 보호 조치함.

아동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 아동과 가족의 병원 진료 및 심리치료, 가족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인 아동 부의 법적처분 진행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아동모가 자립하여 아동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자 부모 교육 및 지지상담을 실시함. 아울러 사례개입과정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대한변호사협회,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도와 쉼터 퇴소 이후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음.

<키워드>

중복학대, 격리보호, 행위자 형사처분, 지역자원 연계, 자립지원

I. 사례개요

아동성명	이보은(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12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이갑훈(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46세
사례관리기간	2010년 1월 ~ 2010년 12월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피해아동 주요조치	격리보호(초기) 후 가정복귀(아동모 인계)		
학대행위자 주요조치	고소고발		
주요협력 / 연계기관	경찰서, 가정폭력피해자쉼터, 검찰청, 교육청, 시청,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교, 대한변호사협회, 성학대전문치료기관		

II. 신고접수 내용

본 사례는 2010년 1월 9일 신고 된 사례로 아동모와 피해아동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친부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하였고, 진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신뢰관계자 동석을 요청하면서 아동의 성학대 피해 사항이 신고 접수됨.

III. 현장조사 내용

신고접수 당일, 아동과 아동 모가 진술 조사받고 있는 경찰서로 이동하여 진술녹화에 동석함.

1. 아동조사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시작된 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였다고 함. 1월 1일 16시경 아동 부가 아동을 방으로 불러들여 아동부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아동의 바지를 벗겨서 질속에 아동부의 손가락을 넣는 등의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고 함.

첫 번째 성학대가 발생한 후로 아동이 아동 모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이를 알게 된 아동 모가 아동 부를 추궁하였으나 아동 부는 오히려 아동에게 아동 모와의 성관계를 강제로 보도록 하고 부부의 성관계 시 아동에게 애무나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하도록 하며 그 피해는 4~5회 가량 있었다고 함.

아동이 거부할 시 몽키 스페너로 위협하거나 “다른 집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너는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잘 배워두어라, 너는 평생 나와 이렇게 해야 한다” 등 왜곡된 성의식을 아동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말함.

2. 아동 모 조사

아동 부는 아동 모와 결혼이후 수차례 아동 모에게 가정폭력을 행하여 왔고 아동이 태어난 후에도 아동 모 뿐만 아니라 아동과 아동의 두 동생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심한 상해를 지속적으로 입어왔다고 아동모가 진술함.

아동이 태어난 지 백일 경에는 부가 아동의 머리를 도구로 때려 피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이며, 올해 5세가 된 아동의 막내 동생에게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망치의 장도리 부분으로 엉덩이를 때려 상처가 났다고 함.

아동 부는 원래 목수로 타지에서 일을 하며 가끔씩 집에 왔으나 1년 전 부터는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아동 부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후로 매일같이 아동 모와 아동들을 때려왔다고 함. 아동 부는 아동모와 성관계를 할 때 아동을 불러 변태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함.

IV. 사례판정 및 초기조치

1. 사례판정

스크리닝척도 및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성학대로 사례 판정함.

1) 신체학대

아동은 생후 100일 때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해왔으며 그 이후 간헐적인 체벌이 있었으나 주 학대가 시작된 것은 2009년 아동부가 다쳐 목수 일을 하지 못하고 집을 들어와 거주한 이후로 평소 아동부는 손, 발, 도구 등을 이용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팔, 다리, 등, 머리 등 몸의 이곳저곳을 때리는 신체학대가 발생함.

2) 정서학대

아동 부는 평소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왔고 몽키 스패너와 같은 연장으로 위협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 아동부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는 정서학대가 발생함.

3) 성학대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성추행, 유사성행위, 구강성교, 부부의 성관계 노출, 등 수차례 성학대가 발생함.

2. 초기조치

현장조사 과정 중 아동의 학대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동생들에게도 신체, 정서학대를 행한 것이 드러나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음. 현장조사 당일 아동과 아동 모가 경찰서에서 진술녹화를 받고 있던 시간에 아동 동생들은 고모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고모할머니 집은 아동 부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아동 동생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예상되어 경찰서 형사들과 동행하여 아동 동생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와 아동 모, 아동, 동생들을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쉼터로 격리보호조치 함.

한편, 아동의 보호자인 아동 모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와 아동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아동의 진술녹화 시 학대행위자인 아동부로부터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즉각적인 의료조치 및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 응급 진료 및 동생들의 병원진료를 실시함.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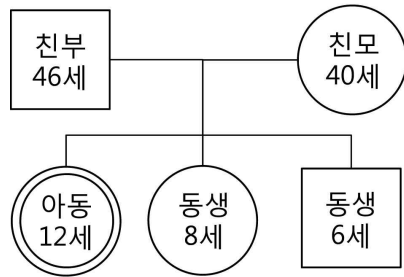
1. 사정

1) 아동가족관계 및 가족력

①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이갑훈	남	46	친부	목수	
김순이	여	40	친모	주부	
이보은	여	12	아동	중학생	
이보리	여	8	동생1	초등학생	
이보석	남	6	동생2	유치원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친부(이갑훈, 남, 46세)

-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화를 잘 내며 과격한 성향임.
- 목수일을 하여 지방으로 일을 다닐 때는 하루에 일당 10만원씩 받을 정도로 기술이 있었다고 함. 그러나 그 당시에도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은 거의 없었고 본인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고 함. 친인척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부모님에게도 욕을 하기 일쑤여

서 집안끼리 왕래가 거의 없으며 몇 년 전부터 아동들을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근처에 사는 시고모 가족들과 충돌이 많았다고 함.

- 그러나 친구관계는 좋은 편으로 주위 친구가 많았고 아동부가 가정 내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친구들은 모르고 있다고 함.

○ 친모(김순이, 여, 40세)

- 이복오빠들과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친언니가 형편이 좋아 생활비에 도움을 받았다고 함.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매우 무기력한 상태였으며 자녀가 성학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부의 폭력이 두려워 오히려 아동에게 아동부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이야기를 함.

○ 아동(이보은, 여, 12세)

- 어린 시절부터 아동부로부터 신체학대를 받아왔고 이후 정서학대와 성학대의 피해를 입음.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으며 또래에 비해 성숙하고 눈치가 빠른 편임. 아동부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함.

○ 동생(이보리, 여, 8세)

-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방과 후 교실에 다니고 있음. 조용한 성격이며 눈치를 많이 봄. 아동 언니의 성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음.

○ 동생(이보석, 남, 6세)

- 아동부의 신체학대의 주요 피해아동으로 얼굴의 양 광대뼈에 아동부로부터 맞아 멍 등의 상흔이 남아있음. 활발하지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이며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 상황을 목격하였음.

2) 위협사정

○ 아동

- 아동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동부의 신체, 정서학대를 당해온데다 근래 성학대까지 노출되었기에 그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었음.
- 또한 학대행위자는 긴급 체포된 상황이나 아동부의 친인척과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 아동부에 대한 수사 진행 중 합의를 종용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었음.

○ 아동모

- 아동 모는 아동이 아동부로부터 성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아동부가 무서워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였음. 이는 결혼 후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기 때문에 아동 모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무기력하며 자존감이 낮은 가정폭력 후유증을 가지고 있었음.
- 아동 모는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미흡하여 아동의 양육 및 보호에 있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친인척

-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부의 친인척은 경찰 신고 후 태도를 바꾸어 아동 모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아동 부를 옹호하고 아동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하여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3) 강점사정

○ 아동

- 아동은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해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으며 친부가 본인에게 가한 성학대 내용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
- 아동은 또래에 비해 성숙한 편이었으며 상담원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

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음.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컸음.

○ 아동모

- 아동 모 또한 성학대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해주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신이 가장이 되어 아동들을 양육하려는 의지가 강했음.

4) 욕구사정

○ 아동

- 아동 부에게서 벗어나 성학대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보호받는 것이었음.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모와 아동의 동생들도 학대를 일삼아왔던 아동 부에게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가정을 유지하며 살기를 희망함.

○ 아동모

-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서 가족들이 당분간 생활을 하면서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족들끼리 살기를 원하였음.

○ 아동 동생

- 아동부가 없는 곳에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함.

2. 개입목표 및 개입계획

1) 개입목표

목적	학대상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함.	
대상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아동 아동동생	- 학대피해로부터 안전한 보호 - 학대후유증 발견 및 치료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친모	-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보호 - 가정폭력후유증 발견 및 치료 - 심리적 안정 및 양육의지 지지	- 아동모의 양육기술 향상 및 지지 - 경제적 자립지원

2) 개입계획

① 단기계획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후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서 보호조치 하여 아동 및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 경찰서 및 검찰 협조하여 행위자를 고소고발 조치
- 아동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심리검사 및 치료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 도모
- 지역사회 심리치료센터를 통한 가족들의 심리상황 진단
- 아동의 산부인과 진료 연계하여 아동의 성학대 후유증 치료

② 중장기계획

- 아동의 가족이 회복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전까지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 보호조치하여 아동 및 가족들의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
-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사항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법원공판 및 판결사항 확인
- 아동의 개별심리치료 및 가족구성원의 심리치료 지원
- 아동모의 양육의지 고취 및 책임감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부모교육 실시 및 자립교육 지원
- 쉼터 퇴소 후 거주지 확보를 위한 자립지원금 연계

- 자립 후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연결 및 경제적 안정 유지를 위한 구직활동지원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 현장 조사 후 격리보호(가정폭력피해자쉼터입소)까지 개입과정

- 현장조사 후 경찰과 고모할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던 아동의 동생들을 데려와 가족 모두 가정폭력피해자쉼터로 분리 보호함. 이보은 아동 산부인과 검사를 위해 현장조사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성폭행피해 후유증 긴급 검사를 실시함. 이튿날에는 이보리, 이보석 아동의 신체학대에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진행함.
- 학대행위자인 아동 부는 아동의 피해사실 경찰 진술조사 다음날인 2010년 1월 10일 오후 18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됨.
- 초기 단계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개입함. 아동 및 가족들을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 보호함으로써 성학대 피해아동의 고소고발을 진행과정에서 행위자인 아동부와 친인척들의 접근을 막고 수사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음.

2) 중기단계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퇴소 후 자립 전까지 개입과정

① 아동

- 아동과 아동의 가족들이 쉼터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지속하는 한편, 성학대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역 내 산부인과 의원을 연계하여 성기 내 염증을 치료하는 진료를 받도록 함.
- 아울러, 아동상담센터에 아동과 아동모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의뢰함. 아동과 아동모는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상황으로 인해 우울, 정서불안, 공격성, 부정적 감정표출, 분노조절 등의 학대후유증을 보이고 있어 아동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이 시

급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옴. 이에 아동상담센터에서 개별 놀이치료를 시작하여 매주 1시간씩 심리치료로 학대로 인한 아동의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소 시키는 시간을 가짐.

- 아동부의 구속 이후 아동부의 친인척들이 기관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등하고 시 친인척의 접촉이 우려되어 아동이 졸업하기 전까지 공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일시보호확인서를 발송하여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사례관리 중 아동이 중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담임교사를 만나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청함.

② 아동 모 및 가족

- 아동 모 역시 심리검사 결과, 우울증과 성격장애 소견이 보여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및 약물치료 진행하고 추후 아동 모가 아동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지함.
- 아동의 개별 치료와 동시에 아동 모, 아동들의 동생에 대한 가정폭력 후유증 감소를 위해 가족치료를 실시하여 가족이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서 퇴소 후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동 가정이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서 퇴소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쉼터 내에서 자립교육을 받아왔으며 더불어 자립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대한변호사협회 지원금을 신청하여 각각 500만원, 18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음.
- 아동의 가족들이 쉼터에서 보호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아동모가 자립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모의 미흡한 아동양육지식과 기술에 대한 개선의 목적으로 기관에서 진행하는 APT부모 교육에 참여하여 올바른 양육법과 양육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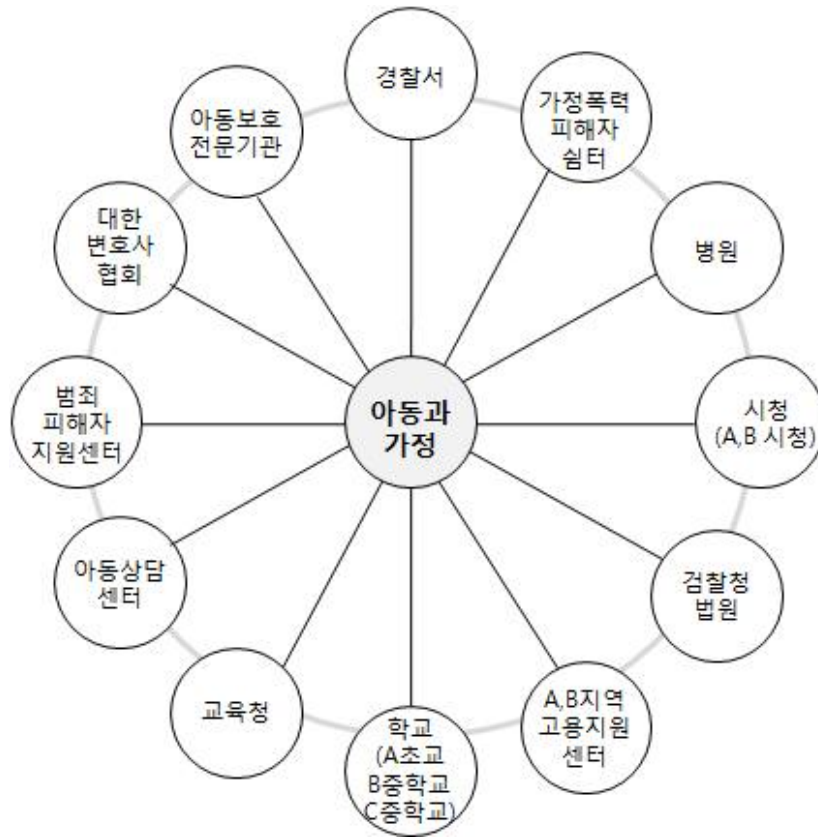
③ 학대행위자

- 사건 담당 경찰관 및 담당 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학대행위자인 친부의 수사 내용, 공판 진행 사항을 확인하였고, 아동 부는 201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의거하여 징역 7년 및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음. 1심 판결 이후 검찰에서 항소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처벌을 요구하였으나 2010년 7월 고등법원에서 종전과 같은 징역7년 및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음.

3) 종결 전 단계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퇴소 후 자립, 사례종결까지 개입과정

- 아동의 가족은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 입소 한 9개월 동안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꾸준히 자립준비를 하였으며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지원금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해 사건발생지역에서 벗어나 타 지역에 가족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생활함.
- 퇴소 이후 아동모가 특별히 생활비로 사용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에 지역주민센터에서 긴급지원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해 평소 아동 모가 자신있어 하는 청소 분야에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아동상담센터에서 개별놀이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이사한 지역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어 이후 아동의 심리치료는 아동상담센터에서 계속 실시하기로 하고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지함.

4) 협력체계와의 연계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협력기관	서비스 내용
경찰서	아동의 성학대 피해사실 진술녹화 및 학대행위자인 친부에 대한 영장발부 및 긴급체포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아동 및 아동가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및 아동모의 자립교육지원
병원 (A병원, B대학병원)	아동의 성학대 심각성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진료진행, 아동모의 우울증 및 성격장애 치료
시청(A, B지역)	쉼터 내에서 보호 중인 아동가정의 수급비 지원 및 긴급지원비 지원 협조

협력기관	서비스 내용
검찰청·법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진행
고용지원센터 (A,B지역)	A지역 아동모의 직업교육지원 B지역 아동모의 구직 알선
학교(A초교, B중학교, C중학교)	아동의 학적처리 협조 및 아동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 면제
교육청	비밀전학처리 협조
00아동센터 심리치료기관	아동 및 아동모의 심리검사 및 아동개별놀이치료 아동모 및 아동가족에 대한 가족치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 가정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 500만원 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 가정의 생활비 180만원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신고 이후 다양한 협력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에게 전반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 친모의 양육법 교육, 경제적 지원금 연결

VI. 사례종결

1. 사례개입 평가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입하여 계획했던 개입목표들을 상당부분 달성함. 1차 현장조사이후 격리하여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 보호조치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학대에 재노출 되거나 학대행위자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 또한, 고소고발조치가 마무리 되어 7년형이 선고 되었고 아동과 가족이 새출발을 위해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여 위험요소가 감소함. 산부인과 치료로 성학대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치료 받는 이외에 아동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통해 성학대 외상으로 인한 불안감과 부적응적인 모습이 많이 감소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임.

2)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인 아동부는 2010년 1월 10일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된 이후 2010년 3월 1심 재판을 거쳐 최종 2심 재판에서 7월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에 의거하여 징역 7년 및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음. 이에 학대행위자인 위 혐요인이 감소함.

3) 부모 및 가정환경

아동모는 특정한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서 아동부가 벌어오는 돈이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로 아동들을 보호할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 그러나 아동부의 구속이후 아동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아지고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올바르게 아동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며 병원 청소 일을 시작,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차츰 키우기 시작하며 자신감을 키워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금과 쉼터 내에서 거주하며 추진한 아동부와 이혼을 통해 얻게 된 위자료로 다른 지역에 집을 얻어 이사함. 또한 가족치료를 지원하여 아동모 스스로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던 과거 모습에서 벗어나 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힘을 불어넣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오랜 학대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

2. 종결사유 및 소견

학대행위자인 아동부는 수감되어 아동 및 가족원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차단되었고 아동과 가족이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서 퇴소한 후 자립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 2010년 12월 8일 사례 종결함.

아동은 성학대 피해 진술 이후 가정폭력피해자쉼터와 아동상담센터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받았으며,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성 함양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 또한 경제력이 없던 아동모를 지지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여러 가지 사회자원들을 연결하여 아동의 가족들이 원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음. 또한 아동의 주 양육자가 될 아동모에 대한 심리치료 및 양육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모가 추후 위험상황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지, 격려하였음. 치료적인 지원을 통해 온 가족 구성원이 학대로 인한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으며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

초기 개입목표로 세웠던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심리검사와 치료 지원, 아동모에 대한 양육방법 교육, 아동가정의 기능 회복 및 안정된 생활유지 지원 연계를 여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Ⅶ. 사후관리

2010년 12월 사례 종결 이후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아동과 가족의 생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아동모에 대한 자녀양육방법과 보호자의 책임, 의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함.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서 자립한 이후,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공백기 동안 지역주민센터에 긴급지원 생계비를 신청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추후 아동모가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으나,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부족한 급여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지원받은 생활 자금을 매월 30만원씩 6회 지원하였으며 아동의 가정에 근접해 있는 지역 내 아동상담센터를 통해 아동의 심리치료 20회기와 아동모 심리치료 12회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아동모의 우울증상에 대해 지속적인 병원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모의 정신 건강이 매우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였음.

VIII. 평가 및 제언

가정 내에서 친부로부터 행해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아동뿐만 아니라 행위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상황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긴급하고 안전이 보장된 신속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례였음.

지속적인 폭력과 여러 가지 학대상황으로 가족 모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사회 크고 작은 연계기관인 지방경찰서, 지방검찰청,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의료기관, 시청, 교육청, 학교, 고용지원센터, 심리치료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안전한 보호지 제공, 심리치료, 구직지원, 부모교육, 행위자처벌, 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심리, 정서적 회복과 경제적 자립, 가족기능회복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

이 사례를 개입하면서 한 아동의 다친 상처를 어루만지고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음.

처음 신고단계에서부터 타 기관과 연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결이후까지 원활한 사례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 사례개입에 있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부의 알코올중독으로 방임되었던 아동의 끝나지 않은 희망이야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02

본 사례는 잇따른 사업실패와 금융사기, 아동친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삶에 대한 회의를 느껴 술을 자주 마신 아동 부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여 개입된 사례임.

개입초기 아동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한 학년이 유급된 상태였고,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인 식생활습관으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왜소한 체구를 보이고 자신감 없고 무표정한 얼굴과 위축된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 아동 부 또한 오랜 기간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여 건강도 좋지 않고 기관의 개입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였음.

그러나 본 기관의 사례개입 이후 아동은 피해아동 전담 보호시설에서 보호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표현력이 향상되는 등 정상적인 심리·정서상태로 회복되었음. 아울러 기관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설득으로 친부가 알코올치료와 가족치료에 참여하여 아동양육의지를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아동 및 아동 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준비하였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아동 가정은 안전한 주거지로 이사함.

본 사례는 가족보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례개입을 추진하여 가족기능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키워드>

알코올중독, 격리보호, 가족치료, 알코올치료,
주거환경개선, 원가정복귀

I. 사례개요

아동성명	진수혁(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남, 10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진동삼(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48세
사례관리기간	2010년 7월 ~ 2011년 9월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피해아동 주요조치	일시격리보호 후 원가정복귀		
학대행위자 주요조치	입원치료		
주요협력 / 연계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A후원단체, 알코올중독클리닉, 알코올상담센터, 지역사회활센터, 병원 등		

II. 신고접수 내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의 가정을 재가복지대상자로 사례관리 하던 중 아동의 부가 최근 알코올중독이 점점 심해지고 자살충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함. 당시 아동의 부는 아동이 등교하도록 지도하기보다 자신이 아플 때 아동을 옆에 두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아동이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함. 또한, 아동부의 알코올중독이 아동의 등·하교 문제나 식사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2010년 7월 13일 사회복지사가 본 기관으로 신고함.

Ⅲ. 현장조사 내용

1. 아동조사

아동은 주로 학교에서 나오는 점심급식과 복지관에서 배달받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친부와는 인스턴트음식이나 배달음식으로 밥을 대신한다고 함.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아동은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왜소하였음. 그리고 아동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으며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보였음. 아동은 묻는 말에 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임.

아동의 말에 따르면 아동의 부는 하루에 소주를 2병씩 마시고 일주일에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은 거의 없다고 함. 부는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여 아동에게 구급차를 부르도록 시키고 아동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친부를 간호하느라 학교를 자주 결석했다고 함. 아동은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방안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친부 옆을 지켰다고 함. 아동은 부가 평소 심하게 때리지는 않지만 술을 마시면 아동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맞은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말하며, 친부가 술을 그만 마시고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함.

2. 친부조사

아동의 부는 체구가 작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오랫동안 깎지 않은 듯 덩수룩한 모습이었으며 담배냄새가 옷에 배어 외모적으로 비위생적인 모습이었음. 아동의 부는 자신이 알코올중독임을 인정하지 않고 만성질환으로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며 단지 몸이 좋지 않아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함. 아동의 가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월70만원 정도의 수급비를 받고 있으나 아동 부는 월세, 각종세금, 생활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함.

아동의 부에게서 아동이 원래 4학년이어야하지만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되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임을 확인함. 부의 말에 따르면 술을 끊기 위해 아동과 함께 2009년 8개월간 기도원에서 생활하였으며 당시 아동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함. 이후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와 전학을 하게 되었으나,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의 잘못된 양육태도에 대해 아동의 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함. 아동의 부는 수급비의 대

부분을 술값으로 탕진하고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함과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치료가 요구되어 당분간 아동을 돌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아동의 일시격리보호에 동의함.

3. 관계인 조사

1)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 담당자

아동의 가정은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하던 재가복지대상자로 아동의 부는 술을 자주 마시고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함. 아동의 가정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없어 이웃에서 얻은 김치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못해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부패된 적도 있다고 함. 그러나 아동의 부는 부패된 식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아동의 부는 자주 술을 마시고 복지관에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신세한탄을 하며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함. 그리고 후원물품이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을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복지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함.

2) 초등학교 담임교사

담임교사의 말에 따르면 아동은 오랜 방임으로 인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한 학년이 유급된 상태라고 말함. 신고당시에도 아동이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친부와의 면담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고 함.

교사에 따르면 아동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며 특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며,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이해하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함. 교사는 아동이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원활하게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출석일수까지 부족하여 친구들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부족했다고 말함.

3) 병원 간호사

병원의 간호사에 따르면 아동의 부는 평소 알코올중독과 잦은 마비증세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응급실에서 아동과 아동의 부를 만난 적이 3회 이상 있다고 함. 또한, 아동의 부는 병원에 올 때마다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다고 함.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동의 부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여러모로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함.

본 기관으로 신고되기 전 아동 부가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절직전까지 술을 마셔 온몸에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음. 당시 아동이 직접 구급차를 불러 친부를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부의 곁을 지키는 어리고 약한 아동이 걱정되어 인근 종합복지관에 아동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고 함.

IV. 사례판정 및 초기조치

1. 사례판정

2010년 8월 30일 정신보건센터장, 변호사,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시교육청장학사, 어린이집연합회장, 신문사 편집국장, 산부인과원장 등이 참여한 사례판정회의에서 친부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신체, 정서학대 및 방임 사례로 추인 받음.

1) 신체학대

친부는 음주상태에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신체학대로 판정함.

2) 정서학대

친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며, 아동에게 잔소리와 훈육을 끊임없이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경을 유발하여 정서학대로 판정함.

3) 방임

아동의 부는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해 술을 많이 마시고 잦은 마비증세로 병원에 입원 할 때마다 아동을 자신의 옆에서 간호를 하게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달받은 도시락 외에 끼니를 거의 챙겨주지 않으며 가정에 냉장고가 없어 구더기가 생긴 김치를 그대로 식재료로 사용하였음. 이에 본 사례를 교육적, 물리적방임으로 판정함.

2. 초기조치

아동의 부는 아동의 등하교와 결식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그리고 잘못된 양육태도로 아동을 체벌하거나 음주상태에서의 잔소리와 훈육이 반복되고 있었음. 이에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호자인 아동 부의 알코올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아동은 학대피해아동 전담 일시보호시설에서 격리보호함.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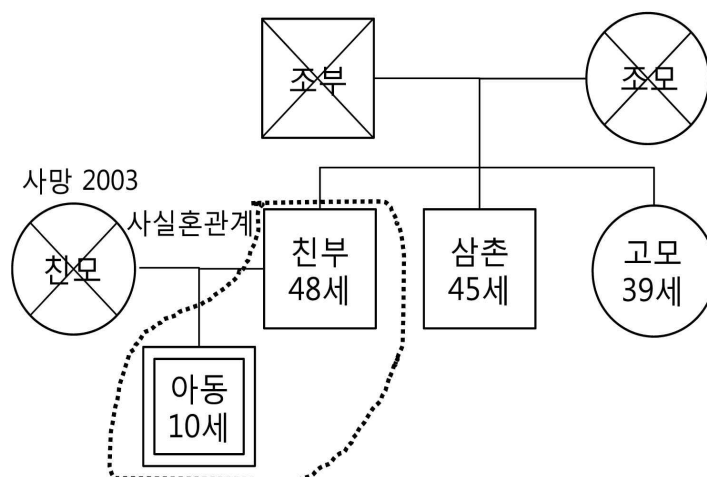
1. 사정

1) 아동가족관계 및 가족력

①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진동삼	남	48	친부	무직	
진수혁	남	10	아동	초등4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아동 조부 : 조모와 자녀(아동의 부를 포함한 고모, 삼촌)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아동의 부가 8년간 모은 월급을 한순간에 다써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아동의 친부는 조부를 두려워하였음.
- 아동 조모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생활하며 세 자녀들을 양육함. 조부가 사망하고 아동의 부, 모, 아동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아동모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아동을 양육하다 2009년 노환으로 사망함.
- 삼촌(이혼, 45세) : 뚜렷한 직장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음. 친부와 자주 왕래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음.
- 고모(39세) : 1년에 한 두번 정도 왕래하고 자주 연락하지 않음. 서로 생활에 급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주고받을 수 없음.
- 아동 친모(2003년 사망) : 사실혼관계에서 아동을 출산함. 아동 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산후우울증과 폐렴을 앓다 갑자기 사망함. 아동의 모 사망으로 아동의 부는 현실을 비관하고 술을 먹는 날이 많아지게 됨.

2) 위협사정

- 피해아동
 - 친부의 교육적 방임으로 인해 학교 결석이 잦았고 그 결과가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짐. 아동은 글을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이 쓰고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받아쓰기 능력에서도 1~2학년 수준을 보임. 전과목에 걸쳐 전체적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짐.
 - 아동은 친부가 술을 마시면서 밤새 이야기를 하는 것과 술자리에 강제로 동행하는 것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잠재되어 있음. 그러나 친부를 생각하는 마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고착화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 아동은 새로운 환경과 사람을 대할 때도 눈에 띄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도 보임. 아동은 또래 관계보다 친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익숙함. 원가정에서의 삶이 지속될 경우 잦은 결석과 친부의 음주로 인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매개를 잃어 아동이 더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아동은 알코올중독인 친부의 무관심과 잘못된 양육태도로 인해 학교 결석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사, 옷 입는 것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잦은 결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겉으로 보기에 신장, 체중이 표준치에 미달되어 보임.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신체로 보일 정도로 왜소하고 작음.

○ 학대행위자

- 친부는 거의 매일 소주 2병 가량을 마시는 등의 알코올중독 상태임.
- 친부는 가계의 유일한 수입인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모두 술을 사는 것으로 탕진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면서도 일을 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으며 수급비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임.
- 친부는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 잇따른 사업실패, 금융사기, 아동친모의 갑작스런 사망 등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음. 이에 따라 친부는 잘못된 음주습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잦은 마비증세와 통증으로 응급실에 여러 차례 실려 간 경험이 있음.
(현장조사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중이었음)
- 친부는 아동에 대한 애착은 있으나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지식 및 정보는 전혀 없으며, 잘못된 아동양육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함. 그리고 아동에 대한 물리적방임 및 신체, 정서학대 행위 또한 인지하지 못함.

3) 강점사정

○ 피해아동

- 아동은 평소 근면 성실하고 예의가 바르며 긍정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빠름. 학대피해아동 전담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중에도 아동은 쉼터 내 또래 및 상담원들과의 관계에 빠르게 적응함.
-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욕구와 적극성을 표현함.
- 친부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을 내포하고 있지만 평소 긍정적인 성향으로 친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가정복귀에 대한 희망을 나타냄.

○ 학대행위자

- 친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아들의 가정복귀를 위해 단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이에 따라 알코올병동 입원치료, 가족치료 등을 통해 잘못된 양육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함. 친부는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가 노력할게” 등과 같은 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표현을 자주 함.

○ 가정

- 본 사례의 가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는 가정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 기반이 마련 되어있고 지역사회 내 연계지지망이 구축(J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I병원) 되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아 심리적인 지지 기반이 됨.

4) 욕구사정

○ 피해아동

- 아들은 잦은 결식과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것, 지저분한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 및 개선에 대한 욕구를 나타냄.
- 학교 출석과 관련하여서도 더 결석하지 않고 또래들처럼 학교 생활을 하고 싶어함. 그리고 평소 취약한 교과목(수학) 및 관심과목(피아노, 태권도)에 대한 학습 욕구를 보이며 또래들 수준으로 학업 능력을 높이고 싶은 욕구 또한 있음.
- 친부가 술을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친부의 단주를 무엇보다 강력하게 원함. 또한 단주하고 친부가 건강을 회복하여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기 또한 바람. 따라서 친부가 단주와 건강 회복 등의 약속이 지킨다면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친부와 함께 지내길 원함.

○ 학대행위자

- 친부는 아들의 원가정복귀가 이루어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함. 이를 위해 친부는 단주를 통해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원함.
- 추후 아동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방2칸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있음.
- 단주를 통해 건강이 회복될 경우 보수가 적더라도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원함.

- 상기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하여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기대함.

2. 개입목표 및 개입계획

1) 개입목표

- 친부의 학대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등교 및 일상생활지원
- 심리치료 실시로 자아존중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 도모하여 아동의 잠재능력 계발 및 지원
- 아동부의 알코올중독 증상에 대한 원인 탐색과 가족치료를 통해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 아동부의 알코올중독 클리닉 입원치료 및 아동부의 재활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으로 가족 기능 회복

2) 개입계획

① 단기계획

-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쉼터 입소
- 출석일수 부족으로 등교문제가 시급한 아동의 전학 및 등교지원
- 건강회복을 위한 규칙적인 식습관 훈련
- 아동부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인지를 위한 교육

② 중장기계획

-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을 위해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학습증진 기회 제공
-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심리 검사 및 치료
- 가족치료를 통한 아동부의 알코올중독 원인 탐색 및 알코올중독 치료
- 경제적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가정복귀
- 아동부의 입원치료 후 재활을 위한 다양한 지지체계 마련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본 기관은 물리적, 교육적 방임에 노출된 아동을 알코올중독인 친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격리보호를 실시함. 아동은 학대피해아동 전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시설내에서 규칙적인 식생활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체력을 증진하고자 함. 그리고 또래보다 작고 왜소한 아동의 건강과 체력회복을 위한 태권도학원을 연계함.

한편 출석일수 부족으로 한 학년이 유급된 아동이 또다시 유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전학조치를 진행하고 등교를 지원함. 아동이 학교에서 단체활동 및 또래관계 형성을 돕고 부진한 교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방과 후 학습지도 실시하였음. 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심리검사(HTP, SCT, KFD) 및 미술치료를 실시(2010년 8월~2010년 11월, 총 15회기)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재인지할 수 있도록 함.

친부는 기관, 쉼터, 학교 등에 아동의 퇴소를 요구하면서 잦은 소란을 피워 인근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일이 발생함. 경찰이 출동한 경우 외에도 친부는 취중에 기관을 찾아오거나, 일시보호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외출을 요청하여 아동의 동의하에 인근에 외출하였다가 무단으로 외박하는 등 쉼터로 복귀시키지 않아 상담원들과 마찰을 일으킴.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어 늦은 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여자 상담원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함. 이에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친부의 알코올치료가 우선시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알코올중독클리닉에서의 알코올중독검사를 실시하였음. 검사를 통해 친부는 중독판정을 받고 입원치료에 동의하였으나 입원 당일 연락을 두절하고 치료를 거부함.

2) 중기단계

일시보호시설 보호 중 아동이 평소 감성이 풍부하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음을 파악함. 아동이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계발되지 못했던 잠재능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아노학원을 수강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 그리고 친부의 오랜 방임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업수준이 또래보다 낮은 것을 파악함에 따라 평소 아동의 취약부인이었던 수학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학학원에 등록하여 부족한 교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2010년 11월 25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식에서 본 기관의 추천으로 평소 학교와 쉼터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아동이 교육청장 표창을 수상하도록 함. 이를 계기

로 평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던 아동에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함.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깨끗하고 밝게 성장하는 아동을 위해 지역 동장의 지정후원을 연계하여 가정복귀 시 아동의 학습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5만원씩 후원금을 적립함.

아동부의 알코올중독원인을 탐색하고 입원치료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아동과의 관계개선을 돕기 위해 친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2011년 2월부터 가족치료를 실시함. 가족치료를 통해 친부는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자신의 알코올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함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 본 기관과 심리치료사,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오랜 설득으로 2011년 3월부터 친부의 알코올중독클리닉 입원치료를 실시함. 친부의 입원치료로 인해 기관에서 진행하였던 가족치료는 6회기까지 진행하였고 남은 회기는 아동의 개별치료로 대체함.

본 기관에서는 아동부의 입원치료에 따른 아동의 원가정복귀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 3월 30일 사례판정위원회회의를 실시함. 사례판정위원회회의에는 변호사, 정신보건센터장, 교육청장학사, 아동발달상담센터소장 외 5명이 참석함. 사례판정위원회회의에 따르면 아동의 부가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미리 친부의 퇴소시점을 지정해두기보다 친부의 병원퇴원 후 양육의지와 주거환경개선여부 및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수퍼비전 받음.

3) 종결 전 단계

본 기관의 사례개입 이후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자존감 및 표현력이 향상되었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함. 아동은 친부와 재결합을 위하여 이를 준비함. 일단,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A후원단체에 의뢰하여 2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받음. 지원금으로 단칸방을 벗어나 방2칸의 쾌적한 공간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아동에게 새 책상을 선물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친부의 퇴원과 함께 친부의 입원으로 중단되었던 가족치료를 주 1회, 총 20회기를 실시하여 친부와 아동의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도모함. 그리고 친부를 알코올상담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주3회의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자조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단주의 기회를 마련함. 친부가 지속적으로 가족치료와 알코올상담지원센터를 다니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동 또한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픈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아동의 원가정복귀가 이루어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이후 아동의 학습 및 급식지원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을 의뢰함. 일단 중단되었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등록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 및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구축함. 그리고 향후 친부가 아동과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여 친부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함.

VI. 사례종결

1. 사례개입 평가

1) 피해 아동

짚은 결석으로 규칙적인 등교가 어려웠던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을 통해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습득하였고, 원활한 등교가 이루어짐. 평소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위해 방과 후 학습지도, 태권도학원 수강 등을 통해 또래집단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그리고 기초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전문자원봉사자를 연계하고 수학학원에 등록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킴.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미술치료(30회기)를 제공함. 아동은 심리치료를 통해 자기표현 변화검사와 정서지능 변화 검사에서 점수와 징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아동의 의사표현능력이 향상되었고 밝고 안정된 모습을 보임.

2) 학대 행위자

학대행위자인 친부는 자신의 아동학대 행동을 인지하고 잘못된 양육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그리고 아동양육의지를 강하게 나타냄. 이에 따라 친부는 가족치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알코올중독원인을 탐색하고 아동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가족치료를 통해 친부는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자신의 알코올중독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음. 친부는 퇴원 후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및 지역자활센터에 구직의 욕구를 표현하고 구직활동을 함. 그리고 알코올상

담센터 내 상담 및 자조모임 참여 등을 통해 단주의 의지를 꾸준히 나타내며 실제적으로도 술을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임.

3) 가정환경

가족치료를 통해 아동과 친부의 재결합의사를 확인하고 긍정적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원가정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A후원단체의 보증금지원금 200만원으로 방2칸의 집으로 이사하고 아동의 책상을 구입함.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아동과 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상황

아동의 원가정복귀 후 아동과 친부에게 가족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이를 통해 친부와 아동은 서로에 대해 상호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부자 관계 증진 및 친밀감이 향상됨. 그리고 아동의 부는 지속적인 가족치료와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양육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음. 추후 친부의 재활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알코올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지지체계를 구축함.

2. 종결사유 및 소견

신고 당시 아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채 알코올중독인 친부로부터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를 받고 있었음. 이에 따라 본 기관은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를 하고, 등교지원 및 규칙적인 식습관 개선을 도와 아동이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아동의 부가 알코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퇴원 후 알코올상담센터 방문상담 및 자조모임을 연계함. 이를 통해 친부는 꾸준히 단주에 대한 의지를 보임. 그리고 친부는 지속적인 가족치료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함.

아동의 가정은 보증금지원으로 안전한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아동의 원가정복귀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에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례를 종결함. 추후 아동의 부가 아동을 방임하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VII. 사후관리

아동부의 재활을 위한 알코올상담센터 방문상담 및 자조모임 참석을 지지하고 친부의 단주 의지에 대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격려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족치료를 제공하여 아동과 친부의 긍정적인 관계를 개선함. 또한, 지역사회복지관과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의 물리적, 교육적 방임 및 신체, 정서학대의 재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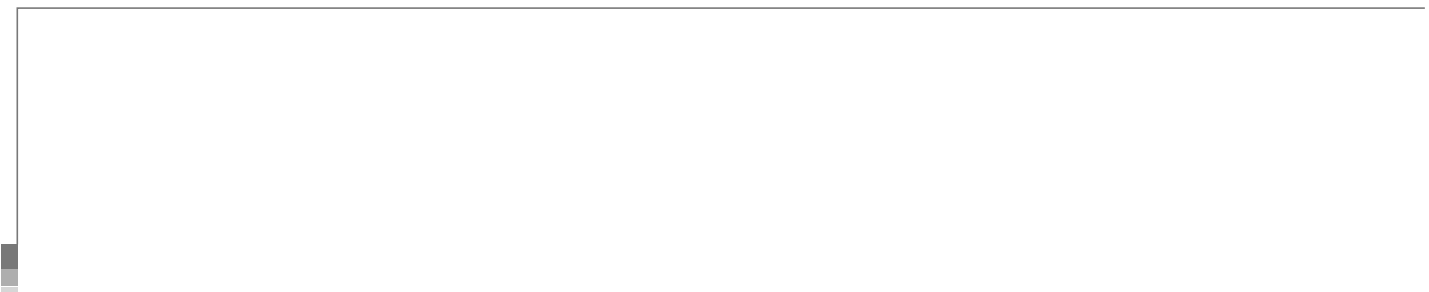
VIII. 평가 및 제언

본 사례는 알코올중독인 친부가 아동을 교육적, 물리적방임 및 신체, 정서학대하는 사례로써 아동의 안전과 친부의 알코올중독치료를 통해 가족보존을 목표로 사례를 개입하였음. 기관에서는 현장조사시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양육을 위해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즉각적인 격리보호를 실시함. 알코올중독인 친부는 아동의 분리보호에 불만을 가지고 기관과 센터에 수없이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기 일쑤였음. 또한 친부는 상담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취중에 기관에 찾아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음.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외출 후 기관에 복귀하기로 하는 시간을 어기거나 무단으로 외박하여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알코올중독 치료이행을 약속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두절하기도 함.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기관에서는 친부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친부가 중독에 빠진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이 우선 되어야 함을 알게 됨. 이에 친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알코올치료보다 심리 상담과 가족치료를 우선하여 실시하였음. 친부는 심리 상담과 가족치료 과정 중에 알코올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음. 결국 친부는 알코올중독클리닉에 자의로 입원하였고 퇴원후에도 치료에 전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이렇듯 친부의 무리한 퇴소요구와 소란, 약속 불이행, 민원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주력하면서 친부의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던 상담원의 끈기와 노력, 학대행위자인 친부도 또 다른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친부에게 접근한 기관의 태도가 친부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 그리고 아동의 가족회복이 궁극적으로 아동을 위한 길임을 인지한 개입방법이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사료됨.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가족의 위대한 재 탄생'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03

본 사례는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각 기관들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신속히 문제를 해결한 사례임.

신고 당시 장애를 가진 친모에 의한 신체학대가 의심되어 거주지 인근에 지역사회복지관과 시청사례관리팀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각 기관들이 현장조사 전 사례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기관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례관리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조정과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친모의 정신과적인 치료와 아동들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키워드>

장애, 경제적 어려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역할 분담

I. 사례개요

아동성명	아동1 : 강태양(가명) 아동2 : 강하늘(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남, 만 3세 남, 만 2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한은지(친모, 가명) 강만수(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여, 30세 남, 45세
사례관리기간	2011년 4월 ~ 2011년 9월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피해아동 주요조치	아동양육시설 격리보호(원가정복귀 예정)		
학대행위자 주요조치	병원입원치료		
주요협력 / 연계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시청사례관리팀, 후원기관, 관할 주민센터		

II. 신고접수 내용

신고자는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지역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아 가정방문을 하였는데 만3, 2세 남자아이 2명이 있으며, 말을 웅얼이 수준으로 하면서 계속 웃기만 했다고 함. 친모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며 혼자 말을 자주하고 신고자와 상담 중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함. 친부는 아동 친조부모가 아프다는 이유로 한 달 정도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함. 아동의 집은 월세 10만원의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불을 오래 빨지 않는 등 주거 환경이 불결하고, 친모도 오래 동안 머리를 감지 않은 듯 한 모습이었다고 함. 또한 친모가 아동1(강태양)을 때리는 소리와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며 2011년 4월 21일 신고함.

Ⅲ. 현장조사 내용

1. 현장조사 전 진행 상황

신고 접수를 받고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기 전 아동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담당자와 시청사례관리자와 아동들의 상황 및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한 사전 회의를 실시 한 후 가정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였고 아동의 가정 인근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회의를 실시함.

지역사회복지관 담당자에 따르면, 친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나와 복지관 옆에 있는 아동 친부모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집에는 친모와 아동들만 생활하고 있다고 함. 아동1(강태양)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아동2(강하늘)는 친모가 데리고 있는데 매일 안고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함.

친모는 청각장애3급을 갖고 있고,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친모는 특히 아동1을 자주 때리는 모습이 발견 되었다고 하며, 아동2에게는 최근 집 근처 길가에서 손과 발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주변에서 많은 민원 전화를 받았다고 함. 또한 집안의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복지관에서 사진으로 찍어 놓았다고 함.

아동들의 옷이나 몸에서 악취가 나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은 한번 씩 목욕, 세탁 등을 해서 보낸다고 함. 아동들은 현재 만 3세, 2세 임에도 엄마라는 소리도 잘 하지 못한다고 함.

시청 사례관리자에 의하면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수급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현재 가정 상황으로는 수급권을 신청하면 충분히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하지만 친부가 외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고 함. 주변인에 의하면 친부가 친모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며, 친부는 장애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함.

여러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친모에 의한 정서, 신체, 방임의 학대가 의심이 되고, 친부에 의한 방임이 의심이 되는 상황임. 먼저 가정에 방문하여 양육환경 및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체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들의 몸에 상흔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함께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2. 친모조사

복지관, 시청사례관리자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였으며, 현장 조사 전날 복지관에서 청소를 해주어서 그런지 집은 깔끔히 정돈이 되어 있었음.

친모와 상담을 시도 했지만 친모가 말을 잘 듣지 못하였고, 옆에서 크게 이야기 해줘야 들리는 정도임. 친모에게 아동1이 어디에 갔는지 물어보니 어린이집에 갔다고 함. 친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모른다고 답하였고, 그 후로는 상담 진행이 어려워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

하지만 조사과정 중 친모가 계속 혼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음.

3. 아동조사

가정방문시 아동2의 몸을 확인해보니 신체학대로 보이는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언어발달단계도 지체되어 엄마, 아빠 정도만 따라하고 다른 단어는 전혀 따라하지 못함.

아동1은 어린이집에서 조사하였는데 복도에서 매우 심하게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관찰함. 어린이집 선생님의 의하면 아동1 또한 거의 엄마, 아빠 정도의 단어를 말하는 정도만 가능하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함. 이에 피해아동들에 대한 면접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함.

4. 친부조사

친부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한 끝에 통화되어 복지관에서 만나 조사를 진행 함.

친부에게 왜 따로 생활을 하는지 물어보니 본인은 매우 깔끔해서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친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면서부터 집을 청소도 하지 않고 집안 살림을 거의 하지 않아서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아동 친부모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함. 친부에게 왜 아동 모와 같이 청소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자신도 일을 하고 들어오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함.

친부는 친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였지만 친모가 강하게 거부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였고, 수급신청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자신이 일을 하다 보니 서류가 준비되지 못해 못했다가 현장조사 전날에 등록을 했다고 함. 하지만 자신이 연식이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중형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함.

IV. 사례판정 및 초기조치

1. 사례판정

1) 신체학대

복지관을 통해 확보한 사진을 통해 아동1의 목과 배 부위에 손톱으로 난 상처를 확인하였고, 복지관 및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친모가 아동1을 때리는 장면이 수시로 목격된 것을 파악함. 아울러 최근에는 아동 친모가 길에서 손과 발로 아동2를 때리는 사건이 이웃주민들에게 목격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신체학대로 판정함.

2) 정서학대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태도를 보여 정서학대로 판정함.

3) 방임

친부는 자신은 따로 생활하면서 아동들의 양육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친모가 전혀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매우 더러운 상태로 아동의 위생상태도 불결한 등 물리적인 방임상태임.

2. 초기조치

모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 친부와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 친모와 아동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집안 청소 및 아동양육을 하기로 하여 아동들을 원가정 내에서 보호하면서 사례관리를 진행함.

아울러 수급자 선정이 되면 친모의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기로 함.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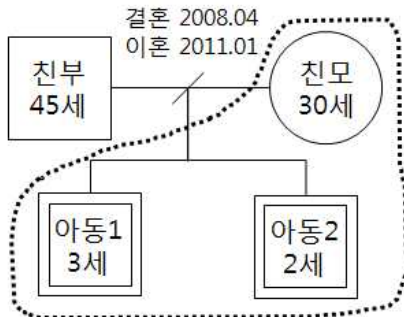
1. 사정

1) 아동가족관계 및 가족력

①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강만수	남	45	친부	자활근로	친조부모댁에서 생활
한은지	여	30	친모	가사	청각장애3급
강태양	남	3	아동1	어린이집	
강하늘	남	2	아동2	-	

② 가계도 및 가족력



2) 위험사정

영역	위험 요인
피해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1, 아동2 모두 언어 발달이 늦은 상태임. - 아동1, 아동2의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 - 친모의 청각장애로 인해 아동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아동들의 정서·심리적 발달에 문제가 되고 있음.

영역	위험 요인
학대행위자 및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부는 3개월 전부터 별거 중임. - 행위자인 친모는 청각장애3급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임. - 행위자인 친부는 아동 양육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친부가 친모에게 간혹 폭력을 사용하고 있음. - 친모의 양육 방식이 주로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가족 및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모와 아동의 친조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를 하지 않고 있음. - 제때 청소를 하지 않아 집 안에서 악취가 나고 빨래가 쌓여 있는 상황들이 발생함. - 친부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고,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3) 강점사정

대상	강점 및 자원 찾기	
아동1 아동2	특성	- 아동들은 매우 잘 웃는 얼굴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금방 친근감을 표현하고, 관심을 갖게 함.
	비공식적 지지망	- 이웃 주민들이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상황이 발생하면 복지관으로 연락을 주고 있었음. - 친조부모가 아동들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임.
	공식적 지지망	- 지역복지관과 아동1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위생관리와 옷 등에 대한 세탁을 진행해주고 있었음. - 시청사례관리팀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음.
학대행위자 (친부모)	특성	- 친부는 매우 깨끗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친부는 자신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친부는 친모에게 보청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음. - 친모는 아동2에 대한 애착이 강함. - 친모는 아동들의 식사를 꼭 챙겨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
	재능	- 친부는 운전을 잘해, 주로 운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
	비공식적 지지망	- 친조부모가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공식적 지지망	- 지역복지관에서 가정 청소 및 세탁물 빨래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청 사례관리팀에서 수급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기로 함.

4) 욕구사정

구 분	제시한 욕구
아동1, 아동2	-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파악할 수 없었음.
학대행위자 (친부모)	- 친모의 병원진료를 위한 의료비용 발생으로 수급자 선정을 희망함. - 친모가 보청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들려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함. 이에 보청기에 대한 임대 및 구입을 요청함. -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및 아동 옷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친조부모	- 친모의 정신과 진료를 희망함.
지역유관기관	- 아동들이 친모에게 학대를 당하지 않고 잘 양육되어지기 희망함. - 친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의 변화

2. 개입목표 및 개입계획

진행 방법	목 표	수행 및 협력기관	개입방법
긴급 (1순위)	친모 정신건강 확인을 위한 정신과 진료 진행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수급자 지정 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친모의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병원진료를 진행하고, 진료결과에 따라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진행하기로 함. - 본 기관은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치료 진행상황에 대한 체크와 후 친모가 입원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분을 친부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단기 (1순위)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및 의복 지원, 보청기 지원	후원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주민센터	- B후원기관을 통해 아동 의복 지원요청. - 본 기관은 가정에 필요한 식료품을 지원하고, 친부와 상담을 통해 가정에 생활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상담예정 - 관할주민센터는 보청기지원사업에 친모가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임.
단기 (1순위)	아동들의 보호 체계 구축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친모가 치료를 받더라도 아동들이 계속적으로 학대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아동 근황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아동2도 아동1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조치하고, 본 기관도 수시로 가정에 방문하여 친부모에게 양육방법 및 양육환경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예정 -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가정에 수시로 방문하여 집안환경 및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해결해 주기로 함.
단기 (2순위)	가정의 수급자 선정	시청사례관리자	- 아동가정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진행 방법	목 표	수행 및 협력기관	개입방법
단기 (3순위)	친부의 양육태도에 대한 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친부가 가정에서 친모와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모의 치료와 아동의 올바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과 지지자의 역할 수행함.
장기	친모 정신병원 입원시 아동 보호방안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 친모가 병원에 입원 할 경우를 생각하여 아동들의 양육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친부와 진행할 예정
장기	아동의 아동학대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주민	- 추후 친부모에 의해 다시 아동들이 방임되거나, 학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아동들의 상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자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신고접수 단계부터 아동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과 시청사례관리팀이 함께 현장조사 및 아동가정을 사정하였고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아동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함. 아울러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자원 및 가정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본 기관과 함께 각 기관별로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먼저 긴급 및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을 진행하였는데,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친모의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진행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또한 시청사례관리팀에서는 친부가 차량이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과 현재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보호 2종으로 선정되도록 수급자선정 업무를 진행함. 아울러 본 기관에서는 아동2가 매일 친모와 함께 다니면서 방임 및 신체학대 상황에 놓이는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2가 아동1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친부모 설득과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음. 또한 친모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에는 6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협력함.

친부모에게 아동들을 학대를 하지 않고 올바르게 양육하겠다는 내용과 만약 추가적인 학대가 발생 시 격리보호에 동의한다는 서약을 받았음. 친부모에게 아동 양육 방법과 양육태도에 대한 상담을 주 1회씩 진행 하였고, 관할주민센터에서 보장구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친모의 청각장애에 대한 병원 진료와 신청을 지원하였음. 아울러 가정에 필요한 식료품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내 후원기관을 통해 아동 의복을 지원함.

각 기관들은 진행상황에 대해 본 기관에 연락하였고, 상담원 역시 주 1~2회 정도 담당자들과 진행상황과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협의함.

2) 중기단계

병원에서 친모의 입원치료가 필요 진단을 받은 후, 친모의 설득과 입원 후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 친부와 상담을 진행함. 친모의 입원 치료를 위해 친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친모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담하여 결국 친모에 대한 입원치료를 진행함.

아동 친모의 입원기간동안 아동들에 대한 보호·양육문제가 발생하였고, 입원기간동안 아동들을 친조부모가 양육을 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친조부모가 고령과 지병으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표함에 따라 친부와 상담을 통해 일시적으로 아동들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기로 함.

친모는 두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고, 친모가 퇴원함에 따라 친부와 아동들의 원가정복귀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친모 퇴원 후 일정 기간 동안 통원치료 및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협의함.

이에, 본 기관에서는 모의 퇴원 이후 친모가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지 점검하였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만약 친부가 일 때문에 병원진료에 동행하지 못할 경우 친모의 병원진료에 동행을 해주기로 함.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모는 약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아동들 역시 양육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언어발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에는 엄마, 아빠 정도의 단어만 말하였는데, 간단한 단어와 대답을 할 정도로 언어발달도 촉진됨.

3) 종결 전 단계

친모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매우 호전된 양상을 보임. 처음 만났을 때는 혼잣말을 하거나 매우 난폭한 모습을 보였지만 치료 이후에는 눈동자가 사물을 또렷이 보고 있고 혼잣말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음. 또한 난폭한 행동과 목소리의 톤도 낮아짐. 친모의 경우 현재 간단한 일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진

상태임.

친부는 아동들과 만나면 매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동들에 대한 애착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아동들 역시 양육시설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언어 및 신체 발달을 보이고 있음. 2011년 9월 현재, 아동들과 친부모는 2주에 한번 씩 외출 및 외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3개월간 원가정복귀를 위해 친모에 대한 치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와 친부의 양육 태도가 아동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담할 예정임. 또한 친모가 근로에 대한 욕구가 있어 직업전문학교 등에 연계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아동들과 친부모의 만남의 횟수를 점차 증가 시킬 예정이며, 진행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월 경 종결예정임.

VI. 사례종결

1. 사례개입 평가

목 표	사례개입 평가
친모 정신건강 확인을 위한 정신과 진료 진행	친모의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를 통해 2개월간의 입원 치료와 3개월간의 통원치료를 진행함. 이에 친모는 눈동자가 또렷이 돌아왔고, 혼자 중얼거리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음. 또한 공격적인 모습과 목소리톤도 매우 낮아졌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생겼음. 이에 모에 대한 치료계획 목표를 달성함.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및 의복 지원, 보청기 지원	친모에게 필요한 보청기 구입을 위한 관할주민센터에 보장구 신청을 하여 34만원 지원받아 보청기를 구입하였고, 후원기관을 통해 아동 의복을 지원받아 제공함.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지원함. 친모는 보청기를 한 후로는 천천히 말해 줄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졌음.
아동들의 보호체계 구축	아동2는 사례개입 초기부터 오후까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주 1회정도 가정에 방문하여, 청소 상태 및 위생상태를 확인함. 또한 친모에게 청소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진행
가정의 수급자 선정에 대한 부분	현재 의료급여 2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아동들은 양육시설 수급자로 선정됨.
친부의 양육태도에 대한 상담	친부와 수시로 아동양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친부가 일을 하는 상황으로 주로 전화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짐. 또한 친부모에게 타 상담기관을 연계하여 부모상담을 받도록 추진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아동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부모교육을 연계할 예정임.
친모의 정신병원 입원시 아동의 양육 방안	친모가 입원 했을 당시 친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는 아동들이 지역의 양육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
아동의 아동학대 모니터링 체계구축	지역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은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경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이웃주민들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약 70%달성하였음.

2. 종결사유 및 소견

본 사례는 사례개입과정 중에 있으며, 향후 3개월 정도 사례개입 진행 후 학대재발요인이 없으면 12월 경 종결을 앞두고 있음.

종결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친모의 변화임. 사례개입 당시 친모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친모의 변화를 제일 중요한 종결요인으로 볼 수 있음. 친모가 병원 치료를 진행 한 후에 매우 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으로 매우 차분해진 모습과 자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들의 양육에 대한 의지도 강한 상태임. 그리고 친부가 아동과 친모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였고, 아동문제에 대한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모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임. 현재는 친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의 안정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행위자였던 친부모가 목표했던 상태까지 변화를 보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종결을 검토하고자 함.

VII. 사후관리

종결이후에는 아동들이 지역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예정임. 이는 어린이집이 아동의 가정에 근처에 있기도 하지만 어린이집과 복지관에서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임. 현재 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이고, 추후에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모니터링 체계로 구축할 예정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씩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들의 양육 상황 및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임.

VIII. 평가 및 제언

본 사례는 지역사회자원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문제에 대한 사정부터 해결단계까지 함께 협의하며 개입을 진행한 결과 짧은 시간에 가정의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던 사례임. 특히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기관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협력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사례 진행에 동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봄.

사례개입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함께 문제에 대해 사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진행 상황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나 새로이 발견된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 행위자였던 친모와 친부가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됨.

처음 개입 당시에는 과연 친모를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하였고, 만약 한 기관의 힘이라면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임. 그러나 각 기관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역할 분담을 하고 충실히 역할을 이행한 결과 한 가정을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옴.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체계들과 협조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기관의 역할에서의 특성과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행위자의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본 사례 진행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많은 아동학대사례에서 정신과적인 질환문제는 빈번히 나타남. 다행히 친부의 협조를 통해 아동모가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아동 부가 협조하지 않았다면 여러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입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수도 있었을 것임.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등을 법적 의무화 또는 제도화 하는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화장실 삼남매의 변화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04

2010년 5월 아동 부에 의한 방임이 의심된다고 신고되었으 며, 부가 아동을 데리고 잠적하여 사례개입이 중단된 후 2011년 4월 재신고된 사례임. 현장조사 당시 신고자 를 만나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신고자가 아동 부 및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 았음. 2011년 4월 타 기관에 의해 재신고 되어 개입을 하 게된 사례임.

친부에 의한 방임과 노숙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 하여 아동을 시설입소조치 하였으며, 추후 아동 부 상담을 통해 일자리 및 주거 지원을 하여 아동 부가 자립하였으 며, 이후 아동들도 원가정 복귀하게 됨.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관기관 (구청,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자원봉사센터)이 연계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키워드>

방임, 주민등록말소, 출생신고, 기관연계, 행위자교육, 복지사각지대전수

I. 사례개요

아동성명	아동1 : 이시연(가명) 아동2 : 이민호(가명) 아동3 : 이승기(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11세 남, 8세 남, 9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이덕화(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38세
사례관리기간	2010년 5월 28일 ~ 2011년 9월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피해아동 주요조치	아동양육시설 격리보호		
학대행위자 주요조치	상담 및 교육		
주요협력 / 연계기관	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II. 신고접수 내용

본 사례는 2010년 5월 최초 신고된 사례임. 당시 신고내용은 아동 부가 7년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 때 받지 못한 돈이 있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돈 받는 데만 매달렸으며, 사업이 부도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아동들이 학교를 다닐 나이임에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임. 아동 가족은 아동 고모집에 머무르고 있으나 고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신고됨.

당시 아동 고모와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기로 인한 사업부도 이후 부가 돈을 되찾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면서 아동 모가 가출하고 부모가 이혼한 사실과 아동 가족이 지내고 있는 아동 고모 가정에서도 갈등상황이 있음을 확인함. 또한 아동 부가 세대주로 있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아동들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아동 고모는 아동들이 주민등록을 살리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아동 고

모는 아동 성명 외 아동과 아동 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던 중 아동 부가 아동을 데리고 가출하면서 사례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단됨.

그러던 중 2011년 4월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으로부터 아동 부가 아동 3명과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례를 취재 중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본 기관에 사례를 의뢰하면서 재개입이 진행됨.

Ⅲ. 현장조사 내용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부와 아동들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아동 고모집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함. 1차 현장조사시에는 아동 부가 아동과의 상담을 막아 아동과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고,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 아동 부, 기타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함.

1. 아동 조사

아동 고모집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 부가 아동과의 상담을 막아 아동과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고, 2차 현장조사 진행 시 상담원이 아동 부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담원이 아동들과 상담을 진행함.

아동들은 서로 장난을 치면서 상담원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않고 많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노숙생활에 대해 문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당시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함. 특히 아동1은 상담원에게 경계적인 태도를 보였고, 질문에 회피할 뿐 아니라 동생들이 아동 부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야기를 못하게 제지를 함. 하지만 아동2, 아동3은 아동 부와 화장실에서 생활을 할 때 좁고 불편하여 힘들었다고 말함.

2. 학대행위자 조사

1차 현장 조사 당시 아동 부는 아동 고모의 집에서 있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하러 나왔다고 안내를 하였지만 필요가 없다고 하며 상담을 거부함. 이에 방송국 담당 PD와 아동의 고모가 아동부가 상담을 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하고 아동들 또한 아동의 고모

가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모의 도움으로 2차 현장조사 실시함.

2차 현장조사 전 아동 부는 고모와 방송국 담당PD를 통해 아동의 격리보호 문제를 들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 이에 본 기관은 아동을 격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동 부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조사를 실시함.

아동 부는 사업에 실패한 후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아동3은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다고 함. 한 때 아동 고모 집(12평 정도의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였으나 아동 고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가게 되었으며 노숙생활을 하였다고 함.

아동 부는 노숙생활 중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과 아동보호문제로 싸움을 한 후 본인이 아동들의 기회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며, 지금부터라도 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함.

3. 관계인 조사

1)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PD

방송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대학생의 제보를 통하여 취재를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아동 부가 아동들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함. 취재과정에서 아동 부가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노숙하면서 제대로 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방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기관에 개입을 요청하였다고 함.

2) 아동 고모

2010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아동 부를 설득하였지만 아동 부가 집을 나가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하면서, 고모 자신도 아동 부가 아동들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노숙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함. 아동 고모는 본 기관을 통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함.

IV. 사례판정 및 초기조치

1. 사례판정

아동 부는 과거 사기당한 돈을 찾으면 아동들에게 사교육을 시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있지 않았고, 또한 특별한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고 있던 아동 고모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후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는 등 아동들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아울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아동3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음. 이에 본 사례를 방임사례로 판정함.

2. 초기조치

1,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 부가 부적절하게 양육하고 방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아동 부가 지내고 있는 아동 고모집이 좁아 가족 전체가 생활하기를 불편할 뿐 아니라 아동 고모가정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야기될 아동 부가 아동을 데리고 다시 잠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아동 부, 아동 고모와 협의하여 아동들은 아동복지센터에 일시보호하고, 아동 부 또한 자립기반을 갖출 때 까지 노숙인지원센터 연계된 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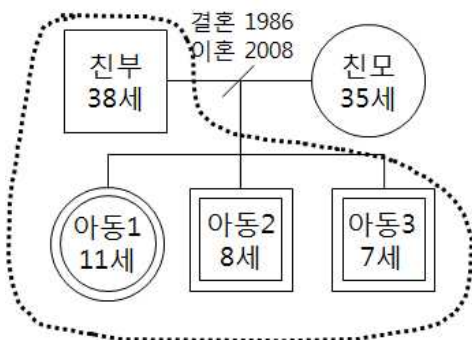
1. 사정

1) 아동가족관계 및 가족력

①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이덕화	남	37	친부	무직	
길상미	여	34	친모		이혼 - 비동거
이시연	여	11	아동1		
이민호	남	8	아동2		
이승기	남	7	아동3		출생신고 안됨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아동1(11세)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
- 아동 고모가 아동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켰다고 하나 국어, 수학 등 기초학력이 부족함.
- 아동 모가 아동을 두고 가출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아동 모에게 적대적임.

○ 아동2(8세)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

-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있지 않아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함.

○ 아동3(7세)

- 출생 직후 아동 부가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

○ 학대행위자; 아동부

- 아동 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방역회사, 주류운반, 택시회사 등에서 일을 하였다고 함. 성실하게 일을 해서 30대 초반에 다니던 방역회사를 인수하여 사장이 되었다고 함. 당시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으며 중형차 1대, 승합차 2대, 트럭 3대를 소유할 만큼 부유하게 살았다고 함.
- 아동 부가 사업이 잘 될 때 아동 고모가 어렵게 살아서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함.
- 7년 전 아동 부가 사업을 확장하려다 사기를 당했으며, 이 때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 현재는 고모 외에 친척과의 왕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함.
- 2011년 4월까지 아동 부는 사기를 당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음. 아동 부가 사기 당한 돈을 포기 못하고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아동 모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 하였으나 아동 모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였고, 이혼 소송을 통해 현재 아동 부와 이혼을 한 상태임.
- 아동 부는 아동들에게 아동 모가 아동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과 아동 모가 사치가 심했다는 사실을 자주 이야기하여 아동들은 아동 모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

2) 위험사정

○ 피해아동

- 아동1, 아동2, 아동3은 현재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어 또래 아동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짐.
- 아동 부, 아동 고모 가족이 외출할 때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집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여 아동들이 또래 아동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아동 부가 아동 고모와 다투었을 때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 생활을 하였으며, 아동 부가 없을 때 아동들만 두고 자리를 비울 때 아동들이 위험상황에 노출이 되었음.
- 아동들은 아동 모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 여자”라고 부르는 등 아동 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

○ 학대행위자

- 아동 부는 본 기관의 전 타 지역시청,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큼.
-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아동들에게 가정교사를 붙여 유럽식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등 현실감이 부족함.
- 7년 동안 사기당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는 아동 부를 도와주는 친인척이 부재함.

○ 고모

- 아동 부가 일을 하지 않아 남편의 수입으로 같이 생활을 하였음. 하지만 최근 남편과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음. 고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동 부와 밖으로 나가 노숙생활을 하였음.
- 아동 고모의 집도 12평 정도로 아동 고모 가족 3명과 아동 가족 4명이 지내기에는 공간이 부족함.

3) 강점사정

○ 피해아동

- 아동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또래관계 형성의 기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집단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며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함.
- 아동1은 누나로서 동생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 아동2, 아동3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학대행위자

-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아동들에 대한 애착이 강함.

- 7년 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아동들과 함께 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함.
- 아동 부는 본인의 잘못으로 아동들이 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고모

- 고모는 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어 아동 부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아동 부를 설득하여 줌.
- 아동 부가 일자리를 얻어 자립을 하기 전까지 주거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의 경제적 도움을 줌.

4) 욕구사정

○ 피해아동

- 아동들은 아동 부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며, 본인들의 방이 있는 집에서 살기를 원함.
-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고모 집에 있을 때 ‘학교 다니는 친구가 부럽다’고 말하는 등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함.

○ 학대행위자

- 아동 부는 아동 양육을 위하여 같이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이 지원되기를 바램.
- 아동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지원되기를 원함.
-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 재개시 금전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함.

○ 고모

- 아동의 주민등록 재등록과 아동과 아동 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 지원해주시기를 바램

2. 개입목표 및 개입계획

1) 개입목표

- 부의 방임으로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관련 서비스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함
- 또한 아동 부가 아동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구직을 지원하며, 아동들의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 부모교육을 통해 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냄.
- 동사무소, 구청,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초등학교 등의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지원, 수급권 책정, 방과 후 아동 보호 서비스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동들의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함.

2) 개입계획

① 단기계획

○ 피해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출생신고
- 아동 격리 후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
-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의 학교 입학 진행

○ 학대행위자(부)

- 관할 주민 센터에 요청하여 수급권 지정
- 노숙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부의 취업 지원
- 건강보험공단 연계 의료보험 회생

○ 가족 및 가정환경

-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전까지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부는 노숙인 쉼터를 통한 주거공간 지원
- 아동 부 및 아동의 시설입소로 아동 고모의 부부갈등 문제 해소

- ② 중장기계획
- 피해아동
 -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학습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 아동 돌봄이 파견을 통해 아동의 기초생활 지도(등하교 지원)
- 학대행위자(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통하여 친부의 양육태도 변화 및 양육기술 교육
 - 공공 기관에 대한 불신감 해소
- 가정환경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지원
 - 후원자 연결을 통한 집기류 구입 지원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 현장조사 후 아동양육시설 격리보호 조치까지의 과정

2010년 개입당시 아동 고모가 본인 및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 부를 만날 수 없었지만 방송국과 연계한 후 아동 부와 아동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음. 아동 부는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기관을 불신하며 서비스 받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음.

아동 부와 아동1, 아동2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아동3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음. 먼저 아동의 출생병원으로 가서 아동 3의 출생신고서를 발부받았으며 이후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아동3의 출생신고 및 아동 부, 아동1, 아동2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함.

아동들의 주민등록 재등록과정에서 아동 부가 본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고, 아동 부 상담을 통하여 아동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시설에 보호함.

아울러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계하여 아동 가정의 수급권과 임대주택을 신청하였으며, 임대주택이 배정되기 전까지 아동부의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부의 쉼터 입소 및 직업 알선을 연계함.

2) 중기단계 : 격리보호 조치 후 원가정 복귀전까지의 과정

아동들은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에서 일시보호된 후 초등교육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전원조치됨. 양육시설 전원 후 지역교육지원청,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울 진행함. 아동들이 기초교육이 부족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보조교사 1명을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추가 파견을 하여 아동들이 취약한 국어, 수학 수업은 아동별 개별지도를 진행함.

임대주택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아동 부가 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후원기관과 연계하여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후원기관 및 후원자를 연계하여 200만원 상당의 집기류 구입하여 지원함.

건강보험을 의료보호로 전환하기 전에 보험료 체납금을 납부해야 해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체납금 감면 관련 협의를 진행함. 아동 가족은 감면이 가능하나 아동 고모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이 어렵다고 함. 체납금을 장기분할납부 할 경우 의료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함.

아동원가정 복귀 후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구청 복지정책과, 주민자치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사회복지관이 모여 가정지원 서비스 및 모니터링에 관한 통합사례관리 회의 진행함. 구청의 경우 수급권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국가 보조 물품 지원, 사례 가정 모니터링을 하며, 본 기관에서는 아동 부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함. 아울러 아동 부가 일찍 출근한 후 아동의 아침식사지도 및 등교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도움을 주고, 아동 하교 후 지역아동센터 학교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아동 부과 퇴근하기 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를 하는 것으로 협의함. 특히 사례관리 과정에서 아동 가정 많은 기관이 개입할 경우 서비스 관리 및 중복서비스 제공의 문제가 있어 본 기관에서 통합관리하여 조정하기로 함.

한편 아동의 전학 후 학교와 협의하여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상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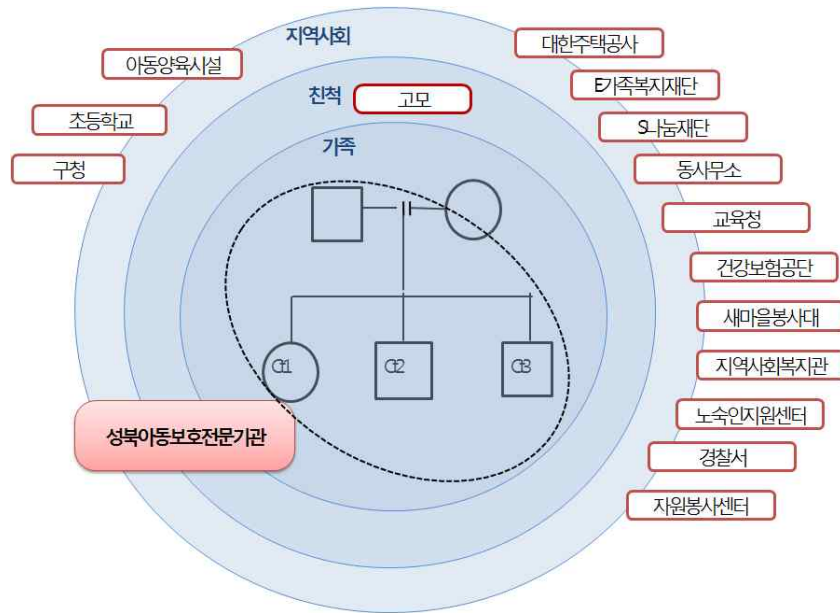
3) 종결 전 단계 : 원가정복귀 후 과정

2011년 8월 아동2, 아동3은 원가정으로 복귀함. 아동1은 아동2, 아동3에 비해 초등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어 교육지원청에서 과격한 개별학습교사를 통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2년 2월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예정임.

상담원은 아동 부에게 스스로 경제적활동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하면서 부가 책임감있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아울러 안정적인 자녀양육 및 학습지도를 위해 후원자를 연계하여 아동2, 아동3에게 국어, 수학 학습지 8개월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함.

특히 아동 부의 양육지식 향상 및 태도변화를 위해 상담원이 아동 부와 지속적인 상담하였고 아동부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후 가족의 생태도>



VI. 사례종결

1. 사례개입 평가

1) 피해아동

아동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출생신고, 아동들의 학교 입학, 안전한 주거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개입목표들을 상당부분 달성함. 현장조사 후 아동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시설에 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에 입학 및 아동개별지도 선생님을 배치함으로 아동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킴.

아울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들이 원가정복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원가정복귀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하여 아동 부가 일하면서도 아동을 방임하지 않도록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함.

2)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인 아동 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지지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현재는 동사무소, 구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또한 노숙인지원센터를 통한 직업 연계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 아울러 아동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자녀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3) 가족 및 가정환경

아동이 거주하는 고모 집에서 고모부의 수입으로 생활함으로 발생한 고모 가족의 갈등은 아동 및 아동 부가 시설에 입소함으로 해결되었고, 주거환경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지원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함. 또한 후원기관 및 후원자 연결을 통해 가정생활에 필요한 집기류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함.

2. 종결사유 및 소견

아동들은 개입초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거주공간이 없어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음. 또한 아동 부는 과거에 집착하여 현실감이 떨어

져 있었음. 이에 현장조사 후 아동 부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아동을 시설보호하기로 함. 이후 아동 부에 대한 지속적인 개별 상담과 방송출연으로 인해 아동 부는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함.

아동 부는 사례개입 이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아동과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초기개입 목표였던 아동의 주민등록, 학교입학, 주거 공간 마련 등의 이루어졌으며, 아동 부와 상담, 아동 부의 아동양육교육 참여 등 아동들이 원가정 복귀할 여건이 마련되었음. 이에 아동2, 아동3을 가정으로 복귀시킨 상황이며, 아동1의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2012년 2월 아동1을 원가정 복귀시킨 후 적응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후 종결할 예정임.

Ⅶ. 사후관리

개입 초기 아동 가정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 지역 사회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해결하였으며, 아동이 원가정 복귀 후 아동 부가 일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방임문제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해 해결하였음. 또한 아동 부의 양육태도 및 기술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변화를 이끌 예정임.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동들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면서 모니터링 할 계획임.

Ⅷ. 평가 및 제언

본 사례는 사례개입에 있어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유관기관의 서비스를 조율해 줌으로서 아동 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한 사례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으로 양육의지만 있고 실제 아동들에게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았던 아동 부가 건설현장에 월 28일 이상 근무하면서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고, “아침에 아이들 때문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오전에는 점심 먹을 생각에 즐거우며, 저녁에는 돈 받을 생각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꾸니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네요.” 라며 변화된 모습을 보임. 이러한 아동 부의 변화된 모습과 아동들과 함께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 부의 태도를 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음

최초 신고당시 충분한 정보가 없어 개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한계를 느꼈으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접근이나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한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본 사례가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이후, 복지사각지대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복지정책 마련에 전환점을 조성하게 됨. 이러한 점에서 본 사례 개입은 매우 중요한 평가와 의의를 가지고 있음.

“어느 날 아침, 난 혼자였어요”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05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고 그 품 안에서 어리광을 피울 시절에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제 그 아이는 아빠와 둘뿐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아이는 혼자였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본 사례는 한 아동이 부모의 가출로 인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성숙된 자아정체성을 형성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방임에 노출 되면서 잘못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성적문제까지 발생시켜 입소조치 및 서비스제공 또한 힘들어 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례임. 이 사례를 풀어 나가면서 아동의 문제보다는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개별욕구를 존중하여 주었을 때 아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담원이 소진되지 않고 보다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함

<키워드>

개별욕구존중, 강점활용, 지역사회네트워크, 건강한사회인

I. 사례개요

아동성명	박차기(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남, 16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박무심(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48세
사례관리기간	2009년 6월 ~ 2011년 9월 현재 진행중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피해아동 주요조치	격리보호		
학대행위자 주요조치	행방불명		
주요협력 / 연계기관	지역읍사무소, 경찰, 학교, 병원, 청소년보호시설, 보호관찰소		

II. 신고접수 내용

본 사례는 2009년 6월 2일 신고된 사례로 16세 남자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역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고함. 신고자는 아동이 매우 불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학교 결석일도 많은 것 같다고 함. 또한 지역 내 일탈청소년들로 확인되는 무리들이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아동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비행적인 문제(음란물 시청)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예상이 된다고 언급을 함.

Ⅲ. 현장조사 내용

1. 주거환경 조사

신고접수 후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당시 아동은 한 눈에 보기에 매우 불결한 상태에 있었으며 방 안에는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음. 학습에 필요한 책과 의복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지역 내 비행청소년들이 아동의 집을 소위 이지트처럼 사용을 하면서 비행과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고, 아동은 불결한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왔었던 것을 확인 함.



▲ 현장 모습

2. 읍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신고자) 조사

현장조사 과정에 동행한 지역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친부 및 친인척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는 친인척은 없다고 하였고, 친부도 아동과 3년 전 제주도로 내려와서 택시와 배달 일을 반복하면서 가출이 잦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이에 친부에 대한 가출신고 및 행방에 대한 파악을 경찰에 요청하였으나 확인된 결과는 없다고 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다른 무엇보다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학교 생활포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발달상의 문제 및 일탈 등 제2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며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학교생활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요청함.

3. 아동조사

아동은 장기간 세면과 목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발에 난 상처를 적절히 치료를 해주지 않아서 염증이 심해져 있는 상태였음.

아동에게 친부와 최근까지 연락이 된 적이 언제인지 묻자 아동은 친부가 한 달 전에 나가서 소식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2주 후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의 핸드폰에 문자로 “잘 지내라 나는 옥지에 가서 지낼 거다”라는 문자가 왔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핸드폰도 정지가 되어 있었다고 함.

친모나 다른 가족들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동은 멈칫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자신이 제주도에 내려오기 이전에 충남지역에 있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하면서 또 다시 자신이 버려진 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음.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비행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아동에게 쉼터입소를 언급하자 아동은 이전에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기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였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여 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잘 지내겠다고 동의를 함.

IV. 사례판정 및 초기조치

1. 사례판정

보호자인 친부모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적 조치나 교육지도 등을 행하지 않은 점, 보호자없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행에 노출되도록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방임사례로 판정함.

2. 초기조치

현장조사 시 친부모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방임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기 관리 및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조사현장에서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슈퍼바이저(기관장)에게 보고 후 긴급격리 보호조치를 실시기로 함.

아동 연령이 16세로 아동그룹홈보다는 청소년쉼터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소년쉼터 위기지원 팀장과 입소가능 여부 논의 후 입소조치를 진행함. 아동의 기본적인 청결상태 및 상처 등을 점검하여 서비스 및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쉼터측에 요청을 하였고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호연락을 취하기로 함.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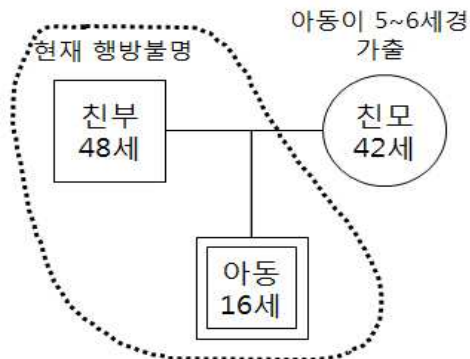
1. 사정

1) 아동가족관계 및 가족력

①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박무심	남	48	친부	파악안됨	행방불명
김무정	여	42	친모	파악안됨	행방불명
박차기	남	16	본인	학생	-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친부(박무심, 남, 48세)

- 아동 모가 가출한 이후 아동을 혼자 기르면서 부자가정으로 생계비 지원받음.
- 선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출항하면 연락도 두절되고 아동의 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음.
- 개입 당시에도 한달 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 친모(김무정, 여, 42세)

- 아동 5~6세경 집을 나갔으며, 아동 부와 이혼하지는 않은 상태임.

○ 아동(박차기, 남, 16세)

- 제주도로 이사오기 전까지 5년 정도 양육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한 적이 있음.
-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학습능력이 부족한 상태임.

2) 위험사정

① 학대피해아동

- 방임에 노출되어 위생·학습 및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함.
- 치아상태 및 건강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함.
- 비성숙한 성격체성의 형성으로 인해서 성범죄 문제 발생을 야기함.
-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인식으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음.

② 학대행위자 / 부모 및 가족

- 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친인척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아동 문제에 대해 일체의 개입을 거부함.

③ 기타

- 성범죄 발생으로 인해 입소 거부 등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제약이 많음.

3) 강점사정

① 학대피해아동

-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
- 상담 및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변화가 빠름.

② 지역자원

-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읍사무소 및 학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해결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함.

4) 욕구사정

① 학대피해아동

-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과, 성범죄 문제의 법적 해결을 통해서 다시 학교생활 등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대인관계 형성 시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과진료를 받고 싶어함.
- 자신이 좋아하는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

② 학교 및 지역유관기관 등

- 아동이 적절한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고, 보호관찰 실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
-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실시하여 또래관계 형성 등 원만한 학교생활 실시
- 건강 및 위생관리에 대한 치료/교육을 통해서 자기관리 능력 향상

2. 개입목표 및 개입계획

사례개입 초기에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 적응능력 강화, 학습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사례개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입기간 중 아동의 성범죄 사건문제가 발생한 바 중기단계부터는 이를 개입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사례개입을 진행함. 이에 개입목표와 개입계획은 아래와 같음.

1) 개입목표

- ① 격리보호 실시를 통한 아동의 안정적 생활 및 양육환경 제공
- ② 건강 및 위생관리를 통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 교육 및 상담 실시
- ③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실시
- ④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및 올바른 성정체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실시
- ⑤ 성범죄 처벌 완화 및 선처를 위한 법적 지원
- ⑥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및 아동양육시설(쉼터) 전원조치 실시

2) 개입계획

① 단기계획

- 긴급보호조치를 통한 아동 생활의 안정화 및 정서적 안정
- 학습 및 사회성능력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자존감 회복
- 건강(치과진료 외) 및 위생관리를 통한 자기관리능력 함양

② 중장기계획

- 성범죄 처벌 완화를 위한 법적지원
- 건강한 성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기적 성교육 실시
- 안정적 생활의 지속화를 위한 남자전용쉼터 전원조치 실시
-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아동 변화 여부 파악
-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① 아동의 쉼터 부적응으로 인한 가출문제 발생(2009. 7. 28)

아동이 쉼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쉼터에서 가출한 후에 본래 아동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아동양육시설(장기시설)로 전원조치를 실시함.

전원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학교 및 주변 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으나, 아동이 이전에 친부로부터 보육원으로 버려졌다는 기억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함.

② 아동 보호 및 그룹홈 입소관련 사례회의 실시(2009. 8. 11)

아동이 과거 보육원에서 생활했었던 기억들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본 기관 그룹홈에 입소를 진행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개입함.

이에 그룹홈 입소시기를 결정하고 아동이 입소 후에 재가출 및 기타 비행적인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아동입소와 관련한 확인서와 아

동에게 가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보호안전망을 형성하자고 협력을 함.

③ 그룹홈 입소 조치(2009. 8. 20)

아동에게 그룹홈 입소후 지켜야 할 규정들과 시설 내 생활에 있어서 아동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들을 교육하고 이전과 같이 가출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약을 받고 아동을 지지함.

④ 아동 보호관련 학사일정 협조 요청 실시(2009. 8. 31)

아동이 재학중인 중학교 학년부장에게 학교 출결사항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하였으며, 아동은 현재 학사일정의 약 1/3정도가 결석으로 되어 있어서 결석 일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학년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줌. 이에 아동이 결석으로 인해서 유예처분을 받지 않도록 학사일정협조 공문을 발송함.

⑤ 아동 전학조치 실시(2009. 9. 7)

아동 주거지가 변경되어 전학을 실시하였고 학년부장에게 아동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 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락을 달라는 말을 전함.

⑥ 긴급입소보호조치를 통한 아동의 생활안정 프로그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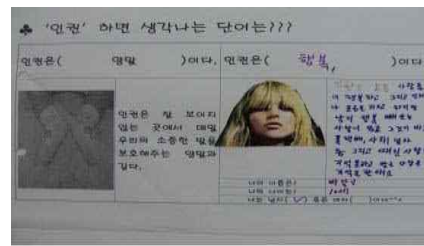
시설 가출 문제행동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룹홈에서 담당상담원이 퇴근 후 10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을 실시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할분담(화분물주기)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



⑦ 학습능력 향상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짚은 결석으로 인해 결여된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초학습지도를 실시하였고, 언어능력 및 독서습관을 함양하기 위해서 아동 스스로가 책을 고르고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아동인권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길러 더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함.



⑧ 치과진료를 통한 건강회복과 자존감 향상

방임상황에 노출되면서 관리되지 못한 치아 상태를 진료하여 충치치료, 신경치료, 치석제거 등 전반적인 치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2) 중기단계

① 형사 고소 통보 확인

경찰서 형사과로부터 아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피의자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서 담당 형사와 상담을 실시함. 담당 형사는 피해자의 오빠(아동친구)에 의해서 고소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조만간 1차 수사가 이뤄질 계획에 있다고 본 기관에 고지함.

② 긴급 사례회의 실시(2009. 9. 24)

아동이 성폭력범죄 관련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이 일을 통해 정체성 혼란이나 위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향후 최종결정과는 별도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함.

또한, 향후 그룹홈 특성상 아동에 대한 보호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호시설 파악도 같이 논의를 함.

③ 아동 1차 경찰 조사 시 지원(2009. 10. 6)

아동 경찰조사를 위해 담당 상담원이 동행하여 지원함. 경찰 조사는 초등학교 여아 강간 및 추행 혐의로 피해자 측에서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에게 사실여부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아동은 성행위와 관련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 하였으며, 녹화 진술은 거부함.

④ 전학 취소관련 논의 및 조치(2009. 10. 13)

그룹홈 입소 후 9월 아동이 전학한 학교로부터 성폭력관련 범죄로 인해 아동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기관이 학교측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학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음.

이에 본 기관에서는 성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이전에 다녔던 학교 및 본 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며, 현재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없고, 담임 교사 또한 아동이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학교 측에서 아동 문제해결에 있어서 협조적 역할을 부탁한다고 요청을 함. 이에 학교장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였다고 하면서 학교 측에선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함.

⑤ 아동 2차 경찰 조사 시 지원(2010. 10. 23)

조사 담당자는 진술녹화를 할 수 있는지 아동에게 물었고 아동이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진술하겠다고 하여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함. 2차 조사는 1차 조사 내용에서 몇 가지가 첨부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크게 다른 사항은 없었음. 조사를 마친 후에 담당자에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물었으며, 정확한 결정조치에 대한 확답은 검사지휘가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함.

⑥ 구속 지휘 통보에 따른 실질심사 실시(2009. 11. 14)

2009년 10월 6일, 23일 이틀에 걸쳐서 실시한 경찰 조사 자료가 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었으며, 그 결과가 구속지휘로 결정되어 지방법원으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아동과 동행하여 출석을 함.

구속수사에 대한 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 경위를 물어서 신고접수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언급함. 재판부의 심사결과는 금일 오후 경에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구속지휘가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 한다고 하여 아동은 관할 지역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송치가 되었고, 이후 구속수사 결정이 내려짐.

유치장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면회를 실시하여 아동과의 심리적 상황을 확인함. 이에 아동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후회와 깊은 반성을 하였고, 또한 다시 나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음.

⑦ 교도소 송치 통보 확인(2009. 11. 18)

아동 신병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송치했다는 통보받음.

⑧ 소년원 송치 통보 확인(2009. 11. 27)

아동 신병을 교도소에서 소년원으로 이송했다고 통보받음.

⑨ 아동 관련 사례관정위원회의 실시(2009. 12. 1)

사례관정위원회의를 통해 먼저 아동 구속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선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홈에서는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 등 생활이 가능한 대안학교나 남자전용쉼터로의 전원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자문받음.

⑩ 아동 선처 관련 탄원서 제출(2009. 12. 7)

2009년 12월 8일 아동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사례관정회의 및 아동 담당 변호사와

의 논의를 실시한 후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

⑪ 법원 최종판결 확인(2009. 12. 8)

재판부에서는 본 기관에서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하면서 본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가능여부를 물었음. 이에 아동에 대한 장기보호를 위해서 기관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재판부에서 아동에 대하여 최종 판결로 1호 처분(식방)과 5호 처분(보호관찰) 실시 명령을 내림.

⑫ 올바른 성정체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올바른 성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3) 종결 전 단계

①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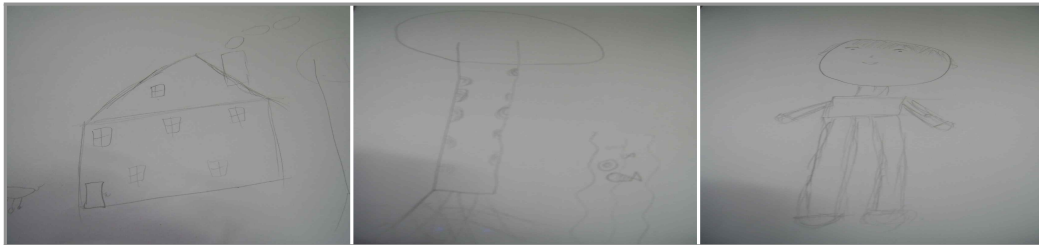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함.

○ 풍경구성법(LMT)



아동은 강을 시원하게 놀 수 있고 물고기도 있는 것으로 비유하였고, 산은 오르면 마음이 아팠던 시간, 속상했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함. 그러나 그림에 있지 않은 올빼미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이 되면 올빼미가 울어서 사람들이 무서워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함.

○ HTP 검사



- ▷ **집** : 문을 측면에 그린 것은 신중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도피적 경향을 의미하기도 함. 창문이 많은 것은 개방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크기가 작아서 심리적 위축과 수줍음을 의미함.
- ▷ **나무** : 나뭇잎을 묘사한 원을 먼저 그리고 기둥을 나중에 그리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기둥에 상처가 많은 것은 공허함이나 상실감을 의미함.
- ▷ **사람** : 비율에 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크게 그린 것은 열등감이나 충동성을 나타냄을 의미하고, 인체에 대한 생략이나 왜곡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함.

② 아동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청소년보호시설(남자전용 쉼터) 입소

아동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전국 여러 곳의 대안학교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아동이 성범죄와 연관이 있고, 보호관찰 중이어서 모두 거부 의사를 보내 왔고, 아동복지시설의 입소도 문의하였으나 남/녀 아동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성범죄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을 입소시키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모든 시설에서 보내 옴.

이에 청소년보호시설(남자전용 쉼터) 입소를 추진하였고, 한 쉼터에서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이어서 오히려 아동관리 등이 철저하게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입소가 능 의사를 보내와서 아동을 쉼터로 입소조치함.

③ 타인과 관계형성과 자신감회복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쉼터 입소 후에도 본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아동이 안정적인 생활(학교,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을 하고 있는지 개입함. 또한 치료캠프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객체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한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무대(태권도시범)를 준비하고, 자신에게 주는 상장 제작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주체로

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스스로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함.



Ⅵ. 평가 및 제언

본 사례는 피해아동이 부모에 의해 방임된 상태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이로 인한 일탈행동과 현실에 대한 왜곡이 성범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나 개입이 어려웠던 사례임.

사례개입을 함에 있어 피해아동이 학대상황에 노출된 문제를 파악했고, 그 문제를 경험하게 된 이유를 가족해체 및 가족기능 약화에서 찾을 수 있었음.

피해아동은 일차적으로 시설보호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자임과 동시에 아동 간 성범죄 가해자라는 이중적 시선과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음.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 등을 활용하였고, 이는 적극적 사례개입의 원동력이 되어 그룹홈보호 및 상담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아동이 긍정적인 자기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피해아동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였음. 이러한 동기부여는 그룹홈 생활과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보다 빠른 적응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청소년보호시설(남자전용쉼터)에서는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고,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의사를 알려와 현재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본 사례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적 상황에 노출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개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아동의 강점 활용과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피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 사례였음.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례개입에 있어 사회적 체계나 편견 등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서 그런 현실에 실망하기 보다는 문제해결 방법은 피해아동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이루어 나갈 때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4번째 신고접수와 지역사회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06

본 사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본 기관을 비롯한 ㄱ지역, ㄴ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총 4회의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사례임.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을 하였고 아동은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과 문제행동을 반복함.

이에 본 기관에서는 학교의 사회복지사, 담임교사, W아동사례관리센터와 지역사회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연계함. 그리고 아동의 심리검사와 치료를 거부하였던 아동의 부모를 사례회의에 참석시켜 아동의 심리검사와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도록 함. 또한 부모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양육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교육함. 지속적인 부모상담과 아동의 심리치료, 유관기관의 서비스 연계로 인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함.

<키워드>

재신고, 위기개입,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참여, 사례회의, 지역사회연계

I. 사례개요

아동성명	박유림(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만 10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이성유(계모, 가명) 박제가(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여, 29세 남, 41세
사례관리기간	2011년 3월 ~ 2011년 8월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피해아동 주요조치	격리보호 후 원가정복귀		
학대행위자 주요조치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부모상담과 교육제공		
주요협력 / 연계기관	학교, W아동사례관리센터, 신경정신과의원		

II. 신고접수 내용

신고자는 아동본인으로 본 기관의 아동폭력예방교육을 받은 후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고 보호해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함.

아동은 친부, 계모, 이복언니와 살고 있으며, 신고당일 아동계모가 아동에게 “집 나가지 마라”라고 했다가 “차라리 너는 없는 것이 편하다.” 라고 말해서 집을 나왔다고 말함. 아동은 집에 들어가면 계모에게 맞을 것 같아 무서워서 신고를 하였다고 말함. 아동은 계모에게 매일 2-3회 맞는다고 말함. 신고 전날에도 아동은 아동의 계모에게 배드민턴 채로 어깨, 얼굴(턱)을 맞았고 어깨에는 멍이 있다고 말함. 그리고 계모가 아동의 목을 졸라서 생긴 것으로 손톱자국도 있다고 말함.

Ⅲ. 현장조사 내용

1. 이전 신고 및 사례개입 내용 파악

본 사례는 2006년 9월 부모에 의한 방임으로 본 기관에 최초 신고되었다가 사례개입 중 아동의 가정이 이사를 하여 2007년 7월 ㄱ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된 사례임. 그러나 이 관이후 아동부모의 개입 거부 및 연락두절로 인해 사례개입이 중단됨.

이후, 2008년 4월 아동의 계모에 의한 신체/정서학대로 ㄱ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재신고 되었으며, 사례개입 중 아동의 가정이 ㄴ지역으로 이사하면서 ㄴ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 센터에 서비스연계를 한 후 종결됨.

2010년 6월 아동은 ㄴ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재신고되었고, ㄴ지역의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본 사례를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고 아동의 약물 및 정신과 치료, 가족치료를 지원 하고자 하였으나, 부모의 거부로 인해 가족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가까스로 시작된 아동 의 약물 및 정신과치료도 1개월을 지속하지 못함. 아동은 치료도중에도 가출을 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였고, 2010년 10월 아동의 가정이 갑자기 이사를 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본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시 아동의 학대의 강도가 높지 않더라도 2006년부터 4차 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었고, 아동이 지속적으로 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감안하여 개입하기로 함.

2. 아동조사

신고접수시 상담원은 아동을 설득하여 즉시 아동조사를 실시함.

아동의 외모는 더러웠고 냄새가 심하였음. 아동의 턱에는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아동은 계모가 배드민턴 채로 때려서 생긴 것이라고 말함. 아동은 학대를 받은 정확한 날짜나 시간, 학대받은 횟수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동이 가출 뒤 가정 에 돌아가면 계모가 때린다고 말함. 아동은 일주일에 3~4일을 집 밖에서 잠을 자며 차 밑 이나 뒤에서 잠을 잔다고 말함. 아동 부모 자신을 가끔 때리는데 계모가 때리라고 말을 하 여 때린다고 함.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양부모라고 말하였고 아동부모의 성명과 집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음.

이에 1차 현장조사시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시보호함. 이튿날 아동은 아동 계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담임교사 및 사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이름을 알려줌. 아동은 턱에 있는 멍자국에 대해 아동 계모가 때렸다는 말을 반복하며 멍이 생긴 이유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함. 아동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아동의 계모가 보낸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용은 ‘유림이 때문에 힘들다, 아빠가 걱정하니 들어와라, 말하기 싫다’는 등의 내용이었음. 이전의 문자 내용은 집에 들어오라는 문자 및 집안일을 하라는 내용이 간헐적으로 남겨져 있었음.

3. 부모조사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교 교육복지실에서 부모조사를 실시함.

아동 부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아동의 격리보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아동의 모는 계모이며, 현장조사 시 냉소적인 태도로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아동부는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흥분하며 말함.

아동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말만 듣고 아동을 보호하니 아동의 버릇이 나빠졌다고 하면서 아동은 가족들이 본인만을 좋아해주기를 바라고, 아동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도 이후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 힘들다는 말을 함. 아동부의 말에 따르면 아동은 주 3~4회 정도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라도 가출하기 위해 문만 쳐다보고 심지어는 창문을 깨고 나간 일도 있다고 함. 작년 아동이 가출하였을 때에는 차 밑에서 잠을 자다 차가 출발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고 함. 아동이 가출을 하면 아동부모 및 형제, 자매까지 가족전체가 아동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아동 부는 아동의 가출을 고치기 위해 심리검사 및 치료, 약물치료도 하였다고 말함. 또한, 정신병원 입원 일정까지 잡았으나 결국 입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함. 아동 부는 무속인을 불러 굿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아동의 가출은 지속되었다고 하며 본인이 아동을 때리고, 화를 내는 것이며 아동을 위해 하는 행동으로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고 확신함.

IV. 사례판정 및 초기조치

1. 사례판정

1) 신체학대

아동의 문제행동 교정을 위해 아동을 때린다는 아동과 부모의 진술이 일치하여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로 판정함.

2) 정서학대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가출 이후 신체학대와 동시에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고 진술하여 아동부모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정함.

2. 초기조치

본 사례는 1차 현장조사시 아동의 신체에 상흔이 발견되었고 아동의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아동을 응급조치하여 보호한 후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 보호자 조사를 실시함. 재산고 빈도가 높고, 아동의 빈번한 사출이 신체 및 정서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나 아동 부는 아동의 시설입소, 입원치료, 조모가정에서의 보호 등을 거부함. 그러나 아동의 심리검사 후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기관의 개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 이에 아동의 가출과 재학대가 반복될 경우 강제 분리하여 장기보호될 것임을 주지시키고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킴.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아울러 부모에게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훈육방법 지도를 위해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기로 함.

V. 사정 및 사례개입

1.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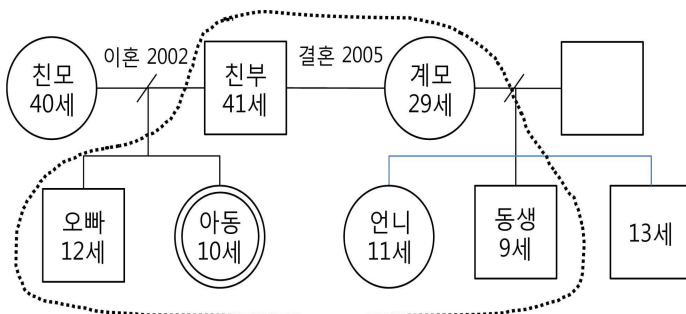
1) 아동가족관계 및 가족력

①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박제가	남	41	친부	대리운전/고졸	장애 3급(손가락 절단)
이성유	여	29	계모	주부/중졸	
박유성	남	12	오빠	학생/중1	
김지연	여	11	언니	학생/초6	
박유림	여	10	본인	학생/초5	
김대현	남	9	동생	학생/초4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가계도



○ 가족력

아동 부는 아동의 친모와 2002년 이혼하고 2005년 계모와 재혼함. 아동 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프레스기사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이후, 택시 운전 및 대리 운전을 함. 아동의 계모는 중졸이며,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낳은 후 이혼함. 이후 아동의 부를 만나 동거를 하다 혼인신고를 함.

아동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및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자주 이사를 하였고 이에 본 기관 뿐만 아니라 ㄱ지역, ㄷ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사례에 개입함.

2) 위협사정

- 가족: 6인가구로 가족구성원이 많아 생활비가 많이 소비됨. 가족구성원이 아동을 무시하고, 아동 동생도 학교에서 잦은 문제행동을 일으킴.
- 친부: 손가락이 절단(장애 3급)되어 구직에 있어서 제한이 있음. 고집이 세고 다혈질적 성격임. 양육 지식이 부족함.
- 계모: 양육할 자녀가 많고 아동의 잦은 가출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함. 양육 지식이 부족하고 아동에게 애정이 없으며 양육의지가 높지 않음.
- 아동: 잦은 거짓말과 도벽을 보이고 관심을 끌기위한 행동을 많이 함. 정도의 지적장애이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임. 가출 후 주차된 차 밑에서 잠을 자는 등의 행동으로 안전의식이 부족하며 부상 위험이 높음.

3) 강점사정

- 가족: 아동이 가출하였을 때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아동을 찾으러 다님. 외조모가 미약하지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음.
- 친부: 양육지식은 다소 부족하나 양육의지가 강함.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함. 신체, 정서학대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음.
- 계모: 신체, 정서학대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음.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지는 않으나,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
- 아동: 신체가 건강하며, 학교 사회복지사와 담임교사가 아동에 대해 지지적인 입장을 보임. W아동사례관리센터에서 개입함.

4) 욕구사정

- 아동: 가족, 특히 부모가 본인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
- 친부: 아동이 가출을 하지 않고 아동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아동을 잘못 키웠다는 소리 듣지 않는 것.

- 계모: 아동이 가출을 하지 않는 것과 계모라고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것.
- 형제,자매: 아동이 가출을 하지 않는 것.

2. 개입목표 및 개입계획

1) 개입목표

- 아동이 가출을 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적응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와의 협력, 연계기관이 사례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 아동가정에 대해 아동, 부모, 경제적인 부분 등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진행함.
- 부모를 지지하는 동시에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상담을 진행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개선함.

2) 개입계획

① 단기계획

- 아동이 가출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자원을 연계함.
- 아동의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연계하고, 아동부모가 아동의 심리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을 진행함.
- 지역사회와의 협력, 유관기관이 사례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여 체계적인 부모 상담을 진행함.
- 아동부모를 지역사회 사례회의에 참석시켜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논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② 중장기계획

-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이 아동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부모를 지지함.
- 아동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 방법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연계함.
- 아동이 가출하지 않고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례종결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

본 기관과 학교 사회복지사, 담임교사, W아동사례관리센터의 담당자가 모여 사례회의를 진행하였고 기관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기로 함. 그리고 사례개입 중 아동의 가출 및 학대가 재발하는 경우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강제로 격리보호하기로 함. W아동사례관리센터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지지적인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아동의 담임교사는 아동의 교내생활을 격려하고 아동의 행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기로 함. 학교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가출을 막기 위해 방과후‘아동돌봄이’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용은 학교에서 지불하도록 함.

이러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아동의 심리검사를 실시함. 검사결과, 아동은 정도의 지적장애이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보임. 사고정서영역에서 아동은 논리적인 사고와 현실판단력, 적응적인 자아통제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조절능력과 행동 통제력, 좌절에 대한 인내 능력이 낮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 위축감, 좌절감, 분노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고 아동의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리특성이 인해 아동이 피해적 사고를 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지속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아동이 가정 내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애정적인 교류와 응집력이 부족하고 자신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의 심리검사 검사결과를 부모가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아동의 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반감을 보여 W아동사례관리센터의 담당자, 심리검사 담당 의사와 함께 부모상담을 진행함. 담당의사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약물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통원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원치료 혹은 격리보호가 필요함을 알림. 아동 계모는 아동의 입원치료 및 격리보호에 동의하였으나 아동부는 강하게 거부함. 따라서 상담원은 아동부에게 아동의 약물 복용과 심리치료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매회 심리치료 후 아동의 담당의사가 아동과 부모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2) 중기단계

1차 유관기관 사례회의 한달 후 아동과 부모의 변화 사항 공유 및 추후 진행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함. 아동의 부모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아동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적인 지지, 아동의 가정 내 변화를 함께 모니터링함. 아동부모는 아동의 약물 치료 후 아동이 가출을 하지 않고, 귀가시간이 빨라지며 차분해지고 도벽을 하지 않은 등의 행동상 변화를 보였다고 말함. 담임교사는 아동의 교우관계가 이전에 비해 좋아진 반면 작은 일로도 화를 자주 낸다고 말함. 더불어 학교에서 아동의 얼굴이 편해진 것으로 보이나 담임교사에게 많은 애착을 요구한다고 말함. 본 기관에서는 추후 3개월 동안의 아동 심리치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본 기관의 심리치료실 이용 혹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하기로 함. 아동부모는 사례회의 참석 후 아동을 위해 이렇게 모인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동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심리치료 인술은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며 아동 양육에 있어 긍정적인 의지를 보임.

한편 아동 가정은 6인 가구로 학령기 자녀가 4명이나 있어 타 가정보다 생활비의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부는 손가락절단에 의한 장애 3급 판정으로 대리운전 외에는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고, 아동 계모 또한 자녀양육으로 인해 비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여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는 상황임. 이에 아동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에 아동가정 후원을 의뢰하기로 하고, C복지재단에 사례를 추천하여 매달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그리고 W아동사례관리센터에서 구청에 요청하여 아동가정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입함.

3) 종결 전 단계

아동의 지속적인 약물 및 심리치료를 위해 본 기관에서 3개월 간 치료비용을 지원하였고 이후 학교에서 비용을 지원함. 아동 부모는 매주 월요일 아동을 인솔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담당의사와 약물 효과 및 변화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함. 또한, 담당의사로부터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양육 방법을 교육받음. 또한 아동 가정은 현금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비로 인해 이전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함.

사례관리 과정에서 본 기관, 학교 및 W아동사례관리센터, 아동부모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동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제 발생 시 아동과 부모상담 및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이에 아동의 가출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부모의 양육태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재학대가 발견되지 않음.

Ⅵ. 사례종결

1. 사례개입 평가

아동은 사례개입 후 가출, 도벽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음. 아동은 본인의 변화에 대해 가정 및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관심을 받아 현재 생활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아동부모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이로 인해 아동부모의 양육태도도 변화되고 있음, 또한, 아동 양육 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본 기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스트레스가 낮아져 지역사회 개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2. 종결사유 및 소견

본 사례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부모가 적절히 훈육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 정서학대를 가함으로써 본 기관에 신고된 사례임. 이에 본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사례회의를 통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심리특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함. 아울러 아동 약물, 심리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동 부모상담 및 교육도 병행하여 수행함.

이러한 기관의 사례개입을 통해 아동은 신고당시 보였던 가출, 거짓말, 도벽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아동의 부모 또한 양육태도가 변화하여 아동을 학대하지 않음. 이에 본 사례를 종결함.

Ⅶ. 사후관리

아동 부모는 본 기관의 사례종결 후에도 아동을 인솔하여 심리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동 약물치료 및 부모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아동의 치료비는 초기에 기관에서 지불하였고 현재는 학교(교육복지실)에서 지원하고 있음.

아동은 가출, 도벽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고, 아동부모는 학대를 하기보다 W아동사례관리센터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즉각적인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 담당 의사를 통해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습득하고 있음.

한편, 아동은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보이고 있고 심리치료도 6개월 이상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 적절한 교육 및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적장애 판정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가출 행동 및 문제 행동은 감소하였으나 가족 경제가 불안정하고 가족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 상담을 의뢰할 계획임. 그리고 아동 가정의 주거지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VIII. 평가 및 제언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도 대부분은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다. 본 사례는 06년부터 3차례 여러 지역의 기관에 신고가 되어 개입 되었고 본 기관에서는 11년 4번째 신고를 받았다. 본 기관에서는 “재학대 신고는 여기까지!”를 외치며 사례관리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효과적 방법으로 아동 및 부모의 변화를 이끌어 목표를 달성해 우수사례로 추천한다.

먼저 아동 및 가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다. 상담원은 3회의 신고/현장조사/사례관리 상황들을 검토한 뒤 사례회의를 하였고, 개입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현장조사 시 아동 및 부모와 이전 개입 기관의 상담 내용과 연결되게 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수고로움을 줄이며 설득력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및 부모에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 조속하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다. 신고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지역사회 사례회의를 하였고, 2주 이내에 부모를 설득 아동의 심리검사를 진행, 3주 이내에 담당의사와 심리검사 결과 상담, 4주 이내에 부모를 참석시킨 지역사회 사례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달 만에 아동의 약물 치료 및 심리치료가 진행되어 행동 변화를 도출하였고, 이를

경험한 부모도 함께 변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는 현장조사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입 초기부터 지역사회 연계계를 하였다. 본 기관에서는 아동 및 부모, 가정과 직접 관련된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회의를 진행하였고, 지역사회 기관 성격에 맞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였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매우 적대적인 부모와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하여 심리검사 및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의 최소화는 관련 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사례 개입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학대상황 이외의 상황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본 기관 참여 없이 자발적으로 해결하였다.

네 번째는 강점관점을 기초로 한 가족 보존을 위한 노력이다. 1차 현장조사 시 학대 상황 및 빈번한 재학대 신고를 고려하여 분리보호를 진행하였으나 2차 현장조사 시 아동부모의 양육의지를 강점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진행하였다. 이 후 아동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개입 방향 설정 및 적절한 상담을 하였고, 2차 지역사회 사례회의에는 아동부모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다. 아동부모의 회의 참석은 부모의 가정 내 역할 존중을 의미하여 이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었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좀 더 욕구에 부합하는 개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본인의 양육태도만 옳다 믿는 부모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지역사회 연계계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역할에 맞게 아동 및 부모에게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동을 위해 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존중한다면 아동 및 부모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기관들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 사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07

본 사례는 재혼가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방임 사례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를 통하여 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에게 통합적,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족 개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와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학대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 재통합시키고 가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개입한 사례임.

<키워드>

방임, 학교부적응, 정기적 사례회의, 정보공유, 가족보존

I. 사례개요

아동성명	김영희(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16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이순희(아동모,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여, 38세
사례관리기간	2011년 3월 ~ 2011년 9월 현재진행중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피해아동 주요조치	격리보호 후 원가정복귀		
학대행위자 주요조치	교육 및 상담		
주요협력 / 연계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병원, 해바라기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II. 신고접수 내용

본 사례는 2011년 3월 23일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신고된 사례로, 신고자는 당일 오전 아동(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부터 아동학대의심상황을 연락받았으며 아동은 친모에 의해 구박, 언어적 폭력, 구타를 당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함. 아동의 모는 전남편과의 이혼, 사별로 인해 현재 세 번째 재혼생활 중이며 학교나 주민자치센터에는 신분을 숨기는 것 같다고 함. 이에 아동학대 발생여부 확인을 요청하며 본 기관으로 신고함.

Ⅲ. 현장조사 내용

1. 가정환경 관찰

- 아동은 친모와 생활하고 있지만 호적에는 이모인 이영혜의 자로 되어 있어 친모인 이순희가 서류상 이모로 되어 있음.
- 아동은 외조모와 어린시절 생활하여 대리양육세대로 책정되어 현재도 대리양육세대로 책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동은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친모와 함께 생활하기 전에는 외조모와 이모집에서 생활하였음. 현재 외조모는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음(과거 외조모의 동거남이 아동에게 성학대하였고, 동거남이 성학대로 형을 받고 출소한 이후 외조모가 함께 생활함)
- 아동의 가족은 친모, 계부,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 아동까지 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
- 계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만 내려오고 있음
- 가정방문 당시 방안은 집기류들과 의복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비위생적이었으며 곰팡이 냄새가 났음

2. 관계인 조사(담임교사/건강가정지원센터/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은 모든 일에 의욕이 없음. 수업시간에는 대부분 엎드려 있음. 2010년 무단결석이 68일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함
- 핸드폰 중독이라 할 만큼 핸드폰에 대한 집착이 강함.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성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으며 문자애인이라고 칭하는 성인 남자와 약 800건 정도의 문자를 주고받았음. 수업시간에도 몰래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 받음. 핸드폰 카메라로 성기를 찍어 주고받기도 함.
- 초등학교 때 2회의 성학대가 있었으나 치료적 개입을 하지 않았음
(학대행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음)
- 아동의 친모는 불규칙적으로 집을 비우는데 중학교 3학년인 아동이 4세(2008년생) 남동생, 2세(2010. 8생) 여동생을 돌보고 있음. 보통 아동의 친모는 오후 4시경 집을

나가 새벽이나 아침에 들어와 아동의 동생들을 어린이집을 보냄. 아동은 어린 동생들을 친모가 없는 시간동안 돌보고 있는데 여동생이 심하게 울면 우유를 주는 정도로 아동들의 방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

- 아동의 계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 주말에 집에 내려오고 있음
- 2011년 3월 21일~25일 사이 아동의 친모는 24일 저녁에만 집에 있었음
- 집에는 아동들이 먹을 음식이 없으며 아동은 학교에서 먹는 급식, 아동의 동생들은 어린이집에서 먹는 간식과 점심이 하루 먹거리의 전부라고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입소를 권유하였으나 아동의 부모는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행동 개선의 의지가 없음
- 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며 아동을 학교에 보내려는 의지가 있음
- 중학교 : 담임교사가 아동에게 애정이 많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였음
- 위 클래스 : 아동과 1년간 심리 상담을 진행함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어 사례관리를 해 오고 있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의뢰로 1년 전부터 사례관리를 해 오고 있음
- 어린이집 : 아동의 동생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아동들이 집에 돌아가서 먹을 먹거리나 의복 등을 지원 해 주고 있었음
- 동주민센터 :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

3. 아동조사

- 아동은 무표정하게 상담원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앉음
- 아동의 친모는 불규칙적으로 집을 비우는데 보통 오후 4시경 집을 나가 새벽이나 아침에 들어와 아동의 동생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함. 아동과 두 동생들만 늦은 시간까지 집에 있으며 아동이 어린 동생들을 친모가 없는 시간동안 돌보고 있다고 함
- 보통 1주일에 3~4일 정도 아동 친모는 밤에 집을 비우는데 동생들만 두고 집을 비운 적은 없다고 함
- 집에는 먹거리가 거의 없어 아동과 동생들은 아침, 저녁을 굶고 있다고 함.
- 아동은 의욕이 없어 욕구를 파악하기 힘들며 격리보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확실

- 함께 이야기하지 않아 일단 입소 후 생활 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로 함
- 아동은 동생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자신보다 동생들이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고 함

4. 학대행위자 조사(친모)

-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사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의 집을 방문함
- 아동의 모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나옴
- 냉장고에는 음식이 없었으며 집안은 담배냄새가 베어 있었음
- 아동학대 정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밤에 집을 비운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밤에 나갔으며, 중학생인 아동이 충분히 동생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 아동들이 먹을 음식이 집에 없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함
- 밤에 아동만 두는 것과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임을 설명함
- 동사무소에서는 친모임을 구두로 확인하고 가정위탁세대가 해제됨을 안내함.
- 친모는 가정위탁세대가 해제되더라도 자신이 아동의 친모임을 숨기고 싶지 않으며 아동은 끝까지 자신이 양육할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함.
- 친모는 아동과 떨어져서는 생활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 된 행동은 앞으로 고치겠다고 함
- 본 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동사무소 담당자는 상담을 종료하고 나오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친모를 상담 해 주기로 함

IV. 사례판정 및 초기조치

1. 사례판정

아동의 친모는 불규칙적으로 집을 비우며 평소에도 오후 4시경에 집을 나가면 새벽이나 아침이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임. 모의 부재시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동이 4세 남동생과 찢돌도 지나지 않은 여동생 두 명을 돌보고 있으며, 여동생 우유를 먹이는 것도 아동이 담당할 정도임. 아울러 집에는 아동들이 먹을 음식도 없으며 아동은 학교에서의 급식, 아동의 동생들은 어린이집에서 먹는 간식과 점심이 하루 먹거리의 전부임. 집안 환경도 집기류들과 의복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비위생적이었으며 곰팡이 냄새가 나는 등 주거환경도 매우 불결함.

이러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아동 모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한 바 방임 사례로 판정함.

2. 초기조치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의 친모에 의한 방임이 확인됨. 아동의 친모는 평소 오후 4시경에 집을 나가 새벽이나 아침에 귀가하고, 친모가 없는 밤에는 중학교 3학년인 아동이 4세, 2세 인 동생들을 돌보고 있음. 가정내에는 먹거리가 거의 없었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채 곰팡이 냄새와 담배냄새로 찢들어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임. 그리고 아동은 과거 성학대를 받은 이후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성인남성들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는 등 성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원가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보호 조치함. 그리고 아동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해 부모상담을 실시함.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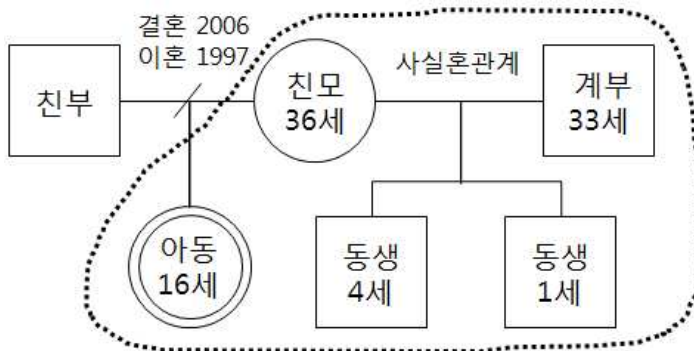
1. 사정

1) 아동가족관계 및 가족력

①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이해철	남	33	계부	건축현장 일용직	타지역 거주
이순희	여	36	친모	주부	
김영희	여	16	아동	중학교 3학년	
이철수	남	4	아동동생	어린이집	
이영순	여	1	아동동생	어린이집	

② 가계도 및 가족력



2) 위험사정

○ 아동

- 모든 일에 의욕이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지 않음
- 2010년 결석이 68일로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수업시간내내 엎드려 있음
- 핸드폰 중독이라 할 만큼 핸드폰에 대한 집착이 강함
-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성인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 받음
- 한 번씩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남

○ 아동 모

- 밤늦은 시간에 아동들만 두고 집을 비움
- 신체질환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도 있음
- 아동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를 취함
-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함
- 중퇴의 학력으로 읽고 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음

○ 아동 계부

- 근로는 하나 지속적이지 못함

○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 단칸방에서 5명의 가족이 생활하며 비위생적임
- 가정에 연계된 기관은 많이 있으나 각 기관별로 각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아동학대라는 인식보다 빈곤가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

3) 강점사정

○ 아동

- 부모와 동생에 대한 애정이 있음
-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있음(십자수 등)
- 아동과 관계가 형성된 지역사회기관의 담당자가 있음
- 학교 담임교사와 교장이 아동에 대한 애정이 각별함

○ 아동 모

-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가 있음
- 아동 부를 신뢰하고, 부와의 관계가 매우 좋음
-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고 관계가 좋음
-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감이 있음
- 기관의 개입에 협조적으로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함

○ 아동 부

-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 있음
- 근로활동을 대한 의지가 있음
- 기관의 개입에 협조적임

○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서 아동 가정에 관심이 있고 가정에 연계 된 기관이 많음
- 아동가정을 중점적으로 사례관리 하는 기관이 있음(2개소)

4) 욕구사정

○ 아동

- 위생적인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안전한 생활을 하기를 원함

○ 아동 부모

-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성인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을 중단하기를 원함
- 자신들과는 달리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희망함
-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함
- 지역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를 원함

2. 개입목표 및 개입계획

1) 개입목표

대 상	제시된 문제	목 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중독 및 성인남자들과의 문자메세지 전송 - 밤늦은 시간 부모의 부재 -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및 영양결핍 - 학교 무단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문제 행동 감소 -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제공 (주거, 영양관련) -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아동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 아동 양육 지식과 기술부족 - 수입 부재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 비위생적인 양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태도 및 훈육방법의 변화로 재학대 방지 - 아동 양육능력 증진 - 아동부의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2) 개입계획

① 단기계획

○ 1차 통합사례회의

-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조치
- 가정위탁세대 책정을 해지하여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 : 정부보조금이 아동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는 점과 정부보조금 때문에 아동 부모가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친모이므로 가정위탁세대 책정을 해지하여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

○ 2차 통합사례회의

- 아동 원가정 보호
- 아동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 아동 부모의 행동개선을 위한 기관별 서비스 제공 후 공유

○ 3차 통합사례회의

- 재학대 발생에 따른 아동 부모의 강력한 조치
- 아동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 아동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개입
- 아동 부모의 행동개선을 위한 기관별 서비스 제공 후 공유

② 중장기계획

대 상	계 획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호 - 심리치료 및 약물복용을 통한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 아동학교등교 및 생활지원을 통한 무단결석일수 감소
아동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자녀 양육태도와 방법 개선 - 부모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제공 - 정기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 (자활근로 및 고용지원센터 연계) - 아동모의 가족관계 서류정리를 통한 무료임대주택 신청 (주거환경 개선)

3. 개입과정

1) 초기단계(2011. 03. ~ 2011. 04)

아동사례를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아래와 같이 통합 사례회의를 진행함.

일 시	2011. 3. 28.(월) 13:00~14:00
참석기관 (담당자명)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학교 /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어린이집 / 동 주민센터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접수 내용 및 1차 현장조사 내용 공유 · 가정위탁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관리 내용 공유 · 중학교/ 어린이집 : 아동생활 및 부모 특성 정보공유 · 동 주민센터 : 위탁가정 선정관련 내용 공유
협의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조치 · 정부보호조금이 아동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는 점과 정부보호조금 때문에 아동 부모가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친모이므로 가정위탁세대 책정을 해지하여 정부보호조금 지원 중단

기관별
역할
분담
논의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의 안전한 보호조치를 위한 격리보호 조치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에게 격리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 및 동의
 - 격리보호 후 아동 적응을 위한 상담
- ③ 주민센터
 - 본 기관과 함께 아동모 방문상담 실시
 - 위탁가정 해지
-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동분리 후 부모상담
- ⑤ 중학교
 - 격리보호를 위한 아동상담

통합사례회의의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례를 관리함.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본 기관에서는 아동 및 아동 부모가 본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개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고, 아동에 대해서는 일시보호를 통한 아동문제 진단,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실시함.

- ▶ 아동일시보호 조치(2011. 03. 28. ~ 4. 20.)
 - 일시보호 조치 기관동안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아동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상담을 실시함
- ▶ 아동문제행동 개입을 위한 상담 및 자문

아동의 문제행동을 파악한 바, 일상생활에서 의욕이 없으며 성인남자들과의 음란문자 메시지 주고 받기, 핸드폰중독 증상을 보임.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문을 받음.

 - 병원 정신과 : 현재의 생활에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없으며 문자를 통하여 소통을 하고 있음. 우울증 증세가 보여 약물복용이 필요하다고 함.
 -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함
 - 법률자문 :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은 것만으로 성인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

이에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바, 아동과 관계형성이 잘 되어 있는 가정 위탁지원센터 팀장이 본 기관으로 내방하여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록 상담하였고, 핸드폰 사용과 관련하여 규칙을 정하고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안내함.

- ▶ 아동문제행동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위한 심리검사 및 정신과 상담실시
 - 입원치료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로도 가능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약물치료를 시작함
- ▶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입
 - 아동의 교복이 작고 많이 낡아 후원자를 연계하여 교복을 지원함
 -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아동학교 과제물 및 준비물을 챙겨줌

② 가정위탁지원센터

- ▶ 아동이 친모와 함께 실제 생활하고 있어 위탁아동을 해지하고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시킴
- ▶ 아동 격리보호조치 후 적응을 위한 상담을 실시함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 ▶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된 후 부모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움
- ▶ 아동이 분리된 후 동생들이 원가정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파견 관련 등 아동 동생 안전 관련 확인 및 양육관련 교육 실시함.

④ 중학교

- ▶ 아동 학교생활 개선을 위하여 담임교사와 아동 상담실시 함
- ▶ 아동 정신과 약물 투약지도 :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아동에게 약물복용을 할 수 있도록 챙겨 줌
- ▶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 : 상담일지를 공유함

2) 중기단계(2011. 04. ~ 2011. 06.)

아동을 일시보호하면서 아동 문제행동 진단과 개입,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아동이 그룹홈에서 부적응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사례개입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자 2차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함.

2차 통합사례회의의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례를 관리함.

일시	2011. 4. 19.(화) 10:40 ~ 11:30
참석기관 (담당자명)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학교 / 건강가정지원센터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거부로 원가정 복귀됨에 따른 개입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입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거부로 원가정 복귀에 대한 사유 설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에 대한 설명 ·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설명 - 원가정 복귀 후 아동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한 감정표현
합의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원가정 보호 · 아동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 아동 부모의 행동개선을 위한 기관별 서비스 제공 후 공유
기관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따른 재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서약서 작성 - 부모교육을 통한 재학대 예방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대예방을 위한 부모상담 - 아동학대 모니터링 ③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과 약물 투약지도 - 아동학대 모니터링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 ▶ 아동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 정신과 약물치료 및 월 2회 상담
 - 주1회 아동 개별상담 실시함
-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상담 실시함
- ▶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공유와 각 기관별 역할 및 정보공유내용 정리 및 안내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 ▶ 사례개입 중 아동 모가 다리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동모 다리수술 기간 동안 아이돌보미 파견 해 줌
- ▶ 부모상담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에 내용 공유함

③ 중학교

- ▶ 아동이 정신과 약물을 매일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지도 해 줌
- ▶ 현장학습, 견학 등 아동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지원 해 줌
: 참여비용 지원, 특별한 날 모닝콜 및 등하교 지원 등
- ▶ 아동 학교생활 개선을 위하여 담임교사와 아동 상담실시 함
- ▶ 아동과 가정에 대한 상담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함

3) 종결 전 단계(2011. 06. ~ 2011. 09.)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본기관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관찰하던 중 아동 모가 아동과 아동 동생을 두고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함. 이에 각 기관에서 보여서 통합사례회의를 하고 사례개입 목표를 재설정함.

일 시	2011. 6. 14.(화) 15:00 ~ 16:00
참석기관 (담당자명)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학교 / 건강가정지원센터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대 발생에 따른 아동 부모의 강력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부모 행동개선을 위한 이행사항 고지 및 각 기관별 역할 분담 ·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부모의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아동과 동생들 모두 분리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아동의 거부로 동생들만 일시보호 됨을 안내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통합사례회의 후 제공된 서비스 및 그 동안의 아동 가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 ·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설명 - 아동을 통하여 파악된 아동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

합의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대 발생에 따른 아동 부모의 강력한 조치 · 아동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 아동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개입 · 아동 부모의 행동개선을 위한 기관별 서비스 제공 후 공유
기관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동생들의 일시보호 조치 - 아동동생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들의 행동개선 사항 및 안내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가정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자활근로 신청 - 재학대예방을 위한 부모상담 - 아동학대 모니터링 ③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약물치료에 따른 투약지도 - 아동학대 모니터링

통합사례회의 후 합의된 목표에 따라 기관별로 사례개입을 진행함.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동생 일시보호 실시함(2011. 06. 13. ~ 09. 09)

아동이 집으로 복귀한 후 아동 모가 아동들만 두고 집을 비우는 상황이 재발생하였고, 아동과 동생 모두를 격리하려 하였으나 이미 아동은 그룹홈에서 부적응한 상태로 가정에 복귀하였으므로 어린 아동 동생들만 일시보호하면서 안전을 확보함.

▶ 부모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실행서 작성 및 부모동의 받음

<아동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실행계획>

- 아동모가 건강회복 후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환경변화(청소, 세탁, 음식 등)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확인한다
방 2칸 집으로 이사하여 아동 독립방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야간에 집을 비우지 않아야 한다
- 아동들 식사는 꼭 챙겨주어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아동부의 안정된 직업을 찾는다
- 아동모 법적배우자와의 이혼 등 서류정리를 통하여 안정된 양육환경을 만든다

- ▶ 집단 부모교육 실시 : 2011. 07. 07. ~ 2011. 08. 11. (총 6회기)
아동부모의 양육태도 변화 및 양육지식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모 6회, 아동부 5회 교육에 참석함.

- ▶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공유와 각 기관별 역할 및 정보공유내용 정리 및 안내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 ▶ 아동부 일자리 지원 : 고용지원센터 등록 및 면접 관련 지원
- ▶ 아동모 자활근로 신청
- ▶ 아동모 이혼서류 정리관련 법률자문 지원
- ▶ 아동 부모 상담
- ▶ 아동 학교생활적응력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실시
- ▶ 부모상담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에 내용 공유함

③ 중학교

- ▶ 아동 약물치료에 따른 투약지도
- ▶ 아동 학교생활관련 지원
- ▶ 아동 상담
- ▶ 아동과 가정에 대한 상담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함

VI. 사례종결

1. 사례개입 평가

①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관련된 문제행동 감소

- 심리검사 및 약물치료를 시작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함
- 핸드폰 사용과 관련하여 규칙을 정하고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이를 안내하여 아동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함.
- 성인남자들과 성에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 및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동이 사라짐.

②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제공 (주거, 영양관련)

- 사례개입 중기이후 (아동의 동생들이 일시보호조치 된 후)부터 아동의 부모는 아동들만 집에 두고 나가는 행동이 현재까지 없음.
- 아동의 친모가 다리수술을 받을 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아동부모의 인식이 개선된 모습이 관찰됨.
-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주거환경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부모가 이에 협조적임.
- 아동들의 먹거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쌀과 부식이 지원되었고 아동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해결됨.
- 새로운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음.

③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단결석이 없음. 이는 아동이 학교를 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락을 하고 2개의 기관에서 논의하여 아동을 찾아 늦더라도 아동을 등교시킴. 이런

- 과정을 몇 번하자 아동이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하는 행동이 사라짐.
- 고등학교 원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음.
- ④ 아동부의 경제활동을 통한 고정적인 수입 확보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부가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함.
 - 아동의 부가 서울에서 건설현장에 일한 경험이 있고 아동부 역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 월 평균수입이 200~250만원 정도 됨.
- 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 아동의 모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등 신청을 할 수 없었음. 이에 아동 모 이혼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동 모가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아동 모가 혼인관계에서 아동계부와 동거를 해 합의이혼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음. 한편 법적 배우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음.
 - 이에 대안으로 아동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이 독립된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음.
 - 추후 아동모 이혼 등 가족관계가 정리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입을 하기로 함
- ⑥ 학대상황재발 방지를 위한 자녀 양육태도와 방법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에도 아동의 부모가 밤늦은 시간 아동들만 두고 집을 비우는 등의 학대상황이 발생하여 아동의 동생들을 격리보호조치하였고 아동들의 원가정복귀를 위한 「부모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실행서」 를 작성하여

부모동의를 받음.

- 실행서의 내용은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논의를 통하여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동학대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아동부모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반드시 개선되어야하는 내용을 담았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실행계획서를 제시하고 부모와 협상을 하는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부모가 동의하고 지켜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줌으로써 아동부모의 동의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행위자 집단프로그램(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에 아동의 부모가 참여하였고 출석률(친모 6회중 6회 참석, 계부 6회중 5회 참석)이 높았음.
- 현재 「부모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실행서」의 내용을 대부분 아동의 부모가 이행하였으며 마지막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 변경만이 남아 있는 상황임

VII. 사후관리

본 사례는 현재 종결을 앞두고 있음. 본 기관에서는 아동부모의 경제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상담 진행중임. 이를 위해 아동의 부모가 약속한 아동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실행계획서의 내용 중 2011년 11월 중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사한다는 과제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아동이 중학교 교과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가 잘 관리되어 수행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사한 이후 가정생활 모니터링과 아동과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중 사례를 종결할 예정이다. 본 기관에서 사례를 종결하고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며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사례관리 개입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2011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VIII. 평가 및 제언

효율적인 사례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지역사회 자원을 사정하는 것인데, 본 사례의 경우 처음 신고받고 본 기관이 아동의 가정에 연계된 지역사회 자원을 사정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였음.

다음으로 이렇게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사례를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특히 이 사례가 기존 사례관리 방식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담당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은 감소, 책임감은 증가

사례를 진행하면서 담당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학교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사례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 그것은 비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 학교의 담임교사 모두 아동과 아동가정에 대하여 심리적인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를 하였음.

이 사례는 기존 사례에 있어 기관들의 연계와는 달리 사례회의에 참여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학교 담임교사 3기관의 담당자들이 사례회의 후 결정되는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은 감소하면서 기관의 차원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지지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자 책임감 있는 역할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둘째 객관적인 시각 유지를 통한 명확한 목표 설정

여러 기관이 함께 아동과 아동의 가정에 대한 개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 할 수 있었음.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사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목표설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음.

○ 셋째,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한 학대대 방지

지역사회 기관들이 연계될수록 아동과 아동의 가정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음. 아동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방법 및 프로그램이 다

양하게 이루어졌음. 대부분 사례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중심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사례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행위자 집단 치료프로그램,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례개입이 가능하였음.

어두운 삶으로부터의 자유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08

본 사례는 아동과 치료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추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치료사례임. 아동은 영유아기에 부모의 이혼과 부의 양육 기피로 초기 애착과 대인관계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함. 이후에도 아동은 가족 내에서 소외되었고, 부에게 신체, 정서학대를 받음.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하기 시작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인 신고당시에는 두 달째 가출한 상황이었음. 또한 아동은 도벽, 사주거지 침입, 자·타해를 이용한 위협, 왕따, 학업부진 등의 복합적인 문제행동을 보임. 따라서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전담 일시보호시설에서 격리보호하고 위기개입 차원의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음. 치료기간 동안 아동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상호작용을 치료사와의 관계에서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아동의 행동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치료를 통해 아동은 안정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수용하여 추후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성공적인 치료사례임.

<키워드>

가출, 문제행동, 위기개입, 관계중심치료, 단기지지치료, 생활지원

I. 사례개요

아동성명	이경호(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남, 만 11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이명식(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42세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치료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동본인 <input type="checkbox"/> 학대행위자 <input type="checkbox"/> 아동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리치료기간(회기)	2011년 5월 ~ 2011년 6월 (총 14회기)		
주요치료개입방법	단기심리치료(주 매체는 놀이, 미술을 사용함)		

II. 치료개입 경위

아동은 영유아기에 부모의 이혼과 부의 양육기피를 경험하였음. 그로 인해 아동은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보이게 되었고, 대인관계의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함.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을 하였고 이후 가출의 횟수와 기간이 점차 증가함. 신고당시 아동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며, 가출한지 2개월째였음. 아동은 5학년 이후로는 거의 가정에 머물지 않았고, 가출기간동안 노숙을 하며 스스로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있었음. 아동은 가출기간동안 도벽 및 사주거지 침입 등의 문제행동을 보임. 그리고 아동은 가위를 들고 급우나 교사를 위협하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등의 자·타해 위협을 하여 타인에게 하여금 공포감과 거부감을 불러 일으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그리고 아동을 사정 및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공무원에게 욕설과 비난 등의 거부적인 행동을 하여 지지기반 형성이 어려워짐. 이와 같이 아동은 지지기반이 전혀 없고, 잦은 가출과 노숙으로 인해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가출-위기 패턴을 단절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기관이 개입하게 되었음.

Ⅲ. 사정

1. 개인력

1) 아동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처음 가출을 하였고 이후 가출의 빈도와 기간이 증가함.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집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가출한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하며, 2010년 겨울방학동안에는 계속 가출상태였다고 함. 이에 대해 아동부는 가출한 아동이 스스로 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아동을 찾지 않는다고 함.

아동은 가출기간 동안 사주거지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돈과 물건을 훔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임. 아동은 훔친 돈으로 가출기간동안 생계를 위해 사용하거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음. 아동은 평상시 외양이 청결하지 못하여 또래아동들이 아동을 기피하는 일이 많다고 함. 그리고 아동이 친구를 사귄지라도 친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괴롭혀 오랫동안 교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인 2010년 지역 보건소에서 8개월 간 미술치료를 받았지만 가출 및 도벽 등의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인관계의 변화도 전혀 없었다고 함. 아동의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며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함.

2) 아동부

아동의 부는 과거 군인이었으나 현재는 전역하고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음. 아동부는 아동의 생후 100일경 아동모와 이혼을 하였고 아동을 맡게 됨. 부는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며, 동거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아동부는 이혼이후부터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아동양육을 거부함. 아동의 부는 아동이 유아일 때부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아동을 집어 던지는 등의 매우 과격한 신체학대를 함. 그리고 아동에게 욕설 및 상해위협 등의 정서학대를 하며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동을 훈육하였음. 아동부는 아동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함.

반면 아동부는 아동의 누나와는 친밀한 관계이며, 누나가 아동을 괴롭혀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함.

3) 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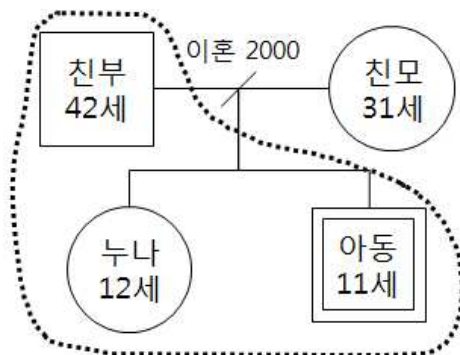
아동의 누나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을 거부하고 아동에게 비호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고 함. 그리고 아동의 원만하지 못한 학교생활에 대해 아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함.

2. 가족력

1)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이명식	남	42세	친부	운수업	행위자
이민아	여	12세	누나	중등 1학년	동거
이경호	남	11세	아동	초등 6학년	학대피해아동
강화인	여	31세	친모	-	이혼, 별거

2) 가계도



아동부는 아동의 생후 100일경 아동모와 이혼을 하였고 아동을 맡게 됨. 부모의 이혼 후 아동은 24시간 어린이집에서 2세 때까지 맡겨졌음. 아동모와는 이혼이후로 전혀 왕래가 없음.

아동의 원가족 내에서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아동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음.

3. 심리검사결과

1) 검사종류 :

K-WISC-III(한국 아동 웨슬러 지능검사 3판)

BGT(벤더 게슈탈트 검사)

HTP(집-나무-사람 그림검사)

SCT(문장완성검사 - 청소년용)

2) 검사 결과

지능검사 결과, 아동의 지능은 FIQ(전체지능지수)=97로 평균(Average)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임. 아동의 행동규제 및 대처능력은 양호함. 그러나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은 환경 및 정서에 쉽게 영향을 받는데, 아동의 경우 환경 및 정서적인 요인이 아동의 문제해결능력 및 대처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동의 정서검사 결과, 아동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내적인 불안정감과 좌절감은 초기 모와 부에 대한 애착형성 실패와 이후의 부의 권위적 양육으로 인한 좌절감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음. 이러한 요인이 아동의 내적인 갈등 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상호작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음. 또한, 초기 애착형성실패와 부의 양육방법은 자기조절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만약 아동의 정서적 문제가 해결되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서적 발달 뿐 만 아니라 인지적 잠재력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됨.

IV. 치료목표와 계획

1. 치료목표

- 1) 아동이 치료사와의 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하위목표1.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10분 이상 유지한다.

하위목표2.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20분 이상 유지한다.

하위목표3.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 2) 아동의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하위목표1. 아동의 문제해결력, 기본적응력, 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능검사를 실시한다.

하위목표2. 아동의 심리역동과 정서상태, 성격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정서검사와 면담을 실시한다.

- 3) 아동의 정서표현을 촉진한다.

하위목표1. 아동의 표현에서 강점을 발견한다.

하위목표2. 아동이 아동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

2. 치료계획

- 1) 초기: 아동을 본 기관의 학대피해아동 전담 일시보호시설에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아동이 타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에 대해 기관에서는 아동에게 안정된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지원 및 서비스 계획이 불가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아동에게 일차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그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목표를 두었음. 매체는 아동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정형매체를 선택하되, 물, 물감, 찰흙 등의 매

체는 지양함.

- 2) 중기: 아동이 잦은 가출로 인해 학대피해아동 전담 일시보호시설의 구조화된 생활에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보였음. 대인관계에서도 스스로 갈등이 커지게 할 소지가 보였으며 구조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체를 사용한 구조화된 활동을 유도함. 매체는 의사표현을 촉진하는 가상놀이 도구 및 반정형화된 미술도구를 사용함.
- 3) 후기: 아동이 내적으로 가졌던 감정 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함. 아동에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하여 적절한 감정표현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감을 형성하도록 함. 이후 아동 양육시설 이관 시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의 토대를 마련함. 매체는 연필, 펜 등의 정형화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함.

V. 치료개입과정

1. 1~3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10분 이상 유지한다.

○ 회기내용:

- 아동이 가출 중, 학교 숙직실에서 무단으로 지내고 있어 상담자원봉사자와 기관을 방문하였음. 아동은 불안한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아동은 차에서 내려서도 치료사를 계속 피해서 도망다님. 치료사가 아동 곁을 조용히 따라 다니며 지켜주니 아동이 치료실을 탐색하기 시작함. 아동이 모래놀이에 관심을 보여, 치료사 및 기관에 대한 아동의 불안을 최소화시키고 심리적인 이완을 위해 함께 모래놀이를 하였음. 아동은 모래에 동물을 묻거나 뭉쳐 음식을 만드는 놀이를 조용히 했음.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으며 놀이 중간 중간 치료사의 눈치를 많이 보았으나 행동상으로는 놀이가 촉진되는 모습을 보였음. 치료사가 아동의 놀이를 지지해주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음.
- 2회기 방문에서도 상담자원봉사자와 동행하였음 아동은 차에서 바로 내려 치료실로 뛰어 들어갔음. 2회기에서도 아동은 모래놀이에 관심을 보여 치료사와 함께 모래놀이를 함. 기관과 치료사에 대한 아동의 긴장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음. 치료사는 지난 시간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놀이에 관심을 표현하고 지지를 제공함. 아동은 치료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매우 혼란감을 느끼는 듯, 치료실을 뛰쳐나가 다른 치료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음. 아동의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였음. 비눗방울을 통해 아동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즐거움과 관련된 정서표현도 많이 함. 아동은 치료 이후 본 기관의 일시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관심과 현재 가출상황에서의 두려움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함.

- 3회기에서는 아동이 상담자원봉사자와의 동행 없이 본 기관 차량을 타고 방문함. 지난 회기와는 달리 아동의 놀잇감 탐색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했음. 치료사가 아동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형성과 본격적인 치료구조화를 준비하기 위해 공놀이를 제안하였고, 아동의 동의를 얻어 함께 공놀이를 하였음. 아동은 처음 공을 차 보낼 때 힘과 방향 조절이 되지 않았으나, 공놀이를 진행할수록 점차 공을 조절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 아동은 놀이 후 학교로 돌아가기 전 치료사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기관 밖 골목길로 뛰쳐 들어가는 모습을 보임. 이에 치료사가 뒤쫓아가 아동을 찾았으나 사라져 찾지 못하였음.

2. 4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20분이상 유지한다.
- 정서표현 촉진 ; 아동의 표현에서 강점을 발견한다.

○ 회기내용:

- 학교의 거부로 아동이 일시 체류하던 숙직실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어, 아동이 본 기관 쉼터에 입소하게 됨. 아동은 본 기관에 입소하면 놀이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쉼터 입소에 쉽게 동의하였음. 지난 시간 골목으로 사라지고 난 뒤, 2시간 뒤 인근 파출소에 스스로 찾아갔다고 함. 아동은 치료실 입실 후, 치료사가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감을 표현함. 아동은 다른 치료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치료실 유리에 지워지는 마카로 ‘선생님. 바보.’와 ‘해골모양’을 그리며 분노감을 표현하였고 언어적으로도 자신의 실망감을 표현함. 치료사가 아동의 감정과 낙서에 대해 공감해주니 아동의 실망감 표현이 감소하였음. 이후 아동의 정서이완과 자기표현을 증가시키기 위한 찰흙놀이를 함께 함. 아동은 불펜 길이만한 사람 전신상을 하나 만들었음. 아동은 전신상의 배에 상처를 내고는 자신의 웃웃을 걸어 올려 배에 난 똑같은 상처를 보여주었음. 치료사가 상처에 대해 물었으나 아동은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음. 치료사가 상처에 대해 공감해주니, 아동은 자신이 두 명 인거 같다면서(착한 자기와 나쁜 자기) 혼란스러운 자기감을 표현함. 치료사가 아동이 만든 찰흙인형과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 '착한 나와 나쁜 나'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 지지해 주었음.



< 4회기 아동-치료사 작품 >
아동과 치료사가 동일한 사람 전신상을 만들었고 치료사는 아동에게 착한 나와 나쁜 나 가 동일한 존재라고 설명함

3. 5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20분이상 유지한다.
- 정서표현 촉진 ; 아동의 표현에서 강점을 발견한다.

○ 회기내용:

- 이전에 아동의 감정표현이 가장 촉진되었던 비눗방울을 이용하여 상호작용 놀이를 함. 아동은 놀이 중 비눗물을 흘리거나, 벽에 방울을 부는 행동 등의 과잉행동이 약간 있었으나, 치료사와 비눗방울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임. 비눗방울놀이 후, 아동은 지난 시간과 같이 배의 상처를 보여주며, 애착욕구와 자기감을 표현함. 지난 시간 직접적인 언어로 아동의 내면표현이 어려워 의사놀이세트를 가지고 놀이로 구조화해 표현하게 하니, 아동이 '상처가 너무 아파요. 봐주세요.', '선생님이 제 아빠가 되어 주세요.'라며 자신 내면의 욕구를 표현함. 아동의 이러한 욕구에 대해 의사놀이를 통해 지지해 줌.

4. 6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30분이상 유지한다.
- 정서표현 촉진 ; 아동의 표현에서 강점을 발견한다.

○ 회기내용:

-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서 문제행동 및 부정적 감정표현이 증가하여 시설 내 적응도가 급속히 감소함. 6회기에서도 쉼터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절망감을 표현함. 이러한 감정표현과 함께 회기 구조화 정도도 빈약해져, 내면감정표현을 위한 신문지 찢기를 진행함. 아동은 신문지를 찢어 놓고는 ‘자신의 마음 같다. 휴지통에 다 버려버려요.’라고 표현하였음. 아동이 내면의 통합감을 성취하기 위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신문지로 공을 만들자고 하니 동감하였음. 아동과 함께 찢어진 신문지를 뭉쳐 공을 만들고 매직으로 꾸밈. 아동은 공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가져도 되냐고 물어봄.



< 6회기 아동 작품 >
아동은 찢어진 신문지를 뭉쳐 공을 만들고 매직으로 꾸밈.

5. 7회기

○ 개입목표 :

- 심리검사 실시 ; 아동 지능검사검사를 실시한다.
; 아동 정서검사와 면담을 실시한다.

○ 회기내용

- 아동의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함. 심리평가에서 매우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며 부적절하게 치료사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보임.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게 ‘아빠가 되어 주세요.’등의 애착욕구를 투사함. 아동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니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급속히 증가하게 됨.

6. 8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30분이상 유지한다.
- 정서표현 촉진 ; 아동의 표현에서 강점을 발견한다.

○ 회기내용

- 아동은 회기 내 행동이 통제되지 않았음. 아동은 모래놀이치료실에 입실 해, 주위로 모래를 고의적으로 뿌리고 치료사의 눈에 모래를 뿌려 상해를 입힘. 치료사가 화를 내며 개입을 하니 처음에는 분노를 표현했다가 이후 부적절하게 치료사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표현함. 치료사가 눈의 상해로 회기를 진행할 수 없어 아동에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회기를 중간에 중단시킴.

7. 9-10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30분이상 유지한다.
- 정서표현 촉진 ; 아동이 아동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

○ 회기내용

- 9회기에서도 아동은 입실 후 바로 물건을 던지려는 과잉행동을 보이려고 함. 이에 대해 치료사가 언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네가 그러지 않을 거라 믿

어.’라는 비언어적 메시지로 미소지으며 아동을 지켜보기만 함. 그러자 아동은 더 이상의 과잉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치료사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표현함. 아동과 지난 시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솔한 감정을 나눔. 치료사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와 분노를 표현한 것에 대한 치료사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아동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함. 아동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 치료사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함. 치료사는 이제부터 화가 나면 즉시 아동에게 표현하고, 아동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계약하게 됨. 감정 및 생각 교류 후, 분노와 죄책감, 절망감을 표현하고 순화시키기 위한 핑거페인팅을 실시함. 아동은 혼탁한 어두운 색 바탕을 잔뜩 칠하고는 그 위에 밝은 계열의 선을 그림. 작품에 대해 물으니 ‘어두운 것은 이제 싫어요.’라고 자신의 내면을 투사해 표현함

- 10회기에서 아동은 매우 안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함. 자신 스스로 비주공예 세트를 골라, 팔찌를 집중해 만들며 성취감을 즐기며 기뻐함. 그 속에서 치료사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자랑하는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모습이 나타남. 아동은 팔찌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자기가 차고, 하나는 치료사에게 선물함. 그리고 치료사에게 재료를 일부 얻어가 쉼터 동생의 팔찌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함.



< 9회기 아동 작품 >
아동은 핑거페인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투사함.



< 10회기 아동 작품 >
아동은 팔찌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치료사에게 선물하고 하나는 자신의 손목에 채움

8. 11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30분이상 유지한다.
- 정서표현 촉진 ; 아동이 아동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

○ 회기내용

- 아동이 컴퓨터에서 풍선을 가지고 와, 풍선을 가지고 함께 상호작용놀이를 실시함. 아동이 분 풍선에 치료사가 먼저 얼굴을 그리니 아동이 이어 풍선에 사람얼굴을 그려 넣음. 아동이 풍선에 '풍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 풍돌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 아동은 풍돌이가 '이전에는 다섯 살이었는데 지금은 여덟 살이 되었어요.'라고 표현함. 풍돌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사랑받고 있다고 표현함. 이전의 풍돌이는 '항상 미움만 받고 못한 짓만 했어요.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표현함. 치료사가 아동의 풍돌이 사랑을 칭찬해주니 꼭 풍돌이가 12살이면 꿈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의 내적 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후, 풍돌이의 꿈에 대해 물어보니 멋있는 풍돌이 미움받지 않는 풍돌이라고 말함



< 11회기 작품 >
아동은 풍선에 얼굴을 그리고
'풍돌이'라는 이름을 붙임

9. 12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30분이상 유지한다.

- 정서표현 촉진 ; 아동이 아동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

○ 회기내용

- 아동이 회기 시작 시,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이 준비가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 많은 걸 성취할거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함. 이어 K시의 B시설에 입소가 결정되었는데, 시설에 가서 많은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함. 지난 시간에 풍돌이가 컴퓨터에서 터졌는데 절망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 더 커진 풍돌이가 1살 더 들어 9살이 되었다고 기뻐함. 치료사가 아동의 표현에 대해 지지해주고 공감한 후 아동이 자율적으로 붙어펜을 불기 놀이를 시작함. 중간에 벽에 뿌리려는 행동을 보였으나, 개입하니 벽에 붙인 비닐이 뿌림. 불기 놀이 후, 아동은 자신의 내면 평화와 가정에 대한 욕구가 투사된 것 같은 조용한 강가에 있는 집과 주위의 꽃밭을 그림.

10. 13-14회기

○ 개입목표 :

- 긍정적 상호작용증가 ; 아동이 치료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30분이상 유지한다.
- 정서표현 촉진 ; 아동이 아동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

○ 회기내용

- 13회기에 아동과 함께 종결에 대해 논의함. 아동은 약간 실망감을 표현함.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치료사와 헤어지는 것보다, 놀이와 미술을 못하는 게 더 아쉽다고 농담하는 모습을 보임. 마지막으로 아동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게 하니, 아동은 A4용지를 꺼내 연필로 그림을 그림. 처음에 탱크를 그렸으며 치료사가 상호작용으로 A4 용지에 헬기를 그리니, 아동이 이어 2c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그림. 전쟁 중, 치료사

가 UFO를 그려주니 UFO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터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을 표현함. 마지막에 자신으로 상징되는 강아지만이 유일하게 UFO에게 구원받는 모습을 유머스럽게 그림. 아동은 강아지가 구원받으며 ‘안녕. 전쟁아.’라고 표현함. 14회기에도 A4용지에 전쟁장면을 그림. 이번엔 혼자서 그리길 위해 치료사는 지켜만 봄. 아동은 수중전을 그렸는데, 작은 사람들이 물속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괴물의 등장으로 합심해 싸우는 모습을 그림. 괴물을 이기지 못하니 극단적으로 전기를 사용해 다 전멸하는 장면을 그린 후, 이어 우주전을 그렸는데, 괴물이 나타나 지구를 파괴시키려는 장면을 그리려다 연필을 내려놓고 한참 생각하는 모습을 보임. 아동은 생각 후, ‘이제 이런 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평화가 올거예요.’라고 함. 아동의 생각을 지지해주니 ‘이제 지나긴 전쟁이 끝났네요.’라며 이제까지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대인양상에서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함

VI. 평가

1. 분석 및 평가

1) 목표 성취 평가(평가일지 참조, 쉼터 적응점수 쉼터 담당자 평가)

평가항목	회기	초반			중반				후반				종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활동구조화 점수*		3	3/4	2/3	4	4/5	4	심리평가	2	4/7	5	5	6	8	8
목표행동 시간(분)**		0	0	25	15	>30	>30		0	20	30	35	>40	>40	>40
치료식구조화 시간(분)***		<25	35	30	45	>60	40		20	50	60	60	>60	>60	>60
쉼터 적응점수****		-	-	-	70	55	30		15	15	40	55	60	70	75

* 매우 비정형화되고 유동적인 활동 (1) <-> 매우 정형화되고 통제된 활동(9)
 ** 회기 내 총 긍정적 행동 시간 - 부정적 행동 시간 = 목표 행동 시간(5분 단위 환산)
 *** 한 치료실에서 고정적으로 최대로 머문 시간 기준(5분 단위 환산)
 **** 규칙준수+학습활동+생활지도원과의 협력-생활지도원과의 불화-규칙비준수 = 적응점수

- 아동의 목표 성취는 장기시설에서의 생활 및 교육에서 요구되는 긍정적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을 중점으로 평가함.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반)구조화된 활동에 대한 수용은 ‘활동구조화 점수, 치료실구조화 시간’을 지표로,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목표행동 시간’을 지표로,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은 ‘쉼터 적응점수’를 지표로 관찰 평가함. ‘활동구조화 점수’, ‘목표행동 시간’, ‘치료실 구조화시간’은 3회기를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6회기부터 감소하였다. 그리고 9회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안정적인 증가유지를 보임. 쉼터 적응점수도 같은 양상으로 변화함. 8회기는 아동이 저항을 보이며 이전의 위기를 반복하여 모든 항목의 수치가 최저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9회기부터 아동이 치료사의 지지를 수용함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이루어 심리치료에 있어서 본격적인 구조화를 이룸.

2) 회기 활동 및 내면표현 평가(평가 일지 참조)

회기	활동내용	내면표현 내용 및 표현 양식
1	모래놀이	치료사에 대한 거부감(비, 언)
2	모래놀이, 비눗방울놀이	치료사에 대한 양가감정(비), 쉼터 입소에 대한 두려움 및 양가감정(비, 언)
3	축구놀이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비,매), 치료사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마음(비)
4	찰흙놀이	치료사에 대한 실망, 화(비,언),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매), 초기애착 실패에 대한 보상(언,비,매)
5	비눗방울놀이, 의사놀이세트	초기애착 실패에 대한 보상(언,비,매), 학대경험에 대한 외상(비,매)
6	신문지 찢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매,언), 구조화된 생활에 대한 두려움(언)
7	종합심리평가	초기애착 실패에 대한 보상(비,언)
8	-	분노감 투사(비), 구조화된 생활에 대한 두려움(비)
9	평거페인팅	내면에 잠재된 공포와 불안 표현(매,언), 내면회복에 대한 욕구(매,언)
10	팔찌만들기	심리적 독립 및 성취에 대한 욕구(매),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언)
11	풍선꾸미기	심리적 성장에 대한 욕구(언,매)
12	붙어펜	열등감을 극복하고 근면성을 성취하려는 욕구(언,매)
13	자유화	근면성의 정립 욕구(언,매), 내면회복에 대한 욕구(매,언)
14	자유화	내면회복에 대한 욕구(매,언), 적대감과 공격성의 근절 욕구(매,언)

* 비 : 행동 및 비언어적인 양상으로 표현 / 언 : 언어로 표현 / 매 : 매체 및 공동활동으로 표현

- 아동의 내면표현을 평가하기 위해 치료과정 중 나타나는 행동, 언어와 매체를 활용한 상호작용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정도를 관찰 평가함. 심리치료 초기 아동은 조절되지 않은 행동 및 언어표현으로 부정적인 자기표현이 우세하였음. 그러나 치료를 진행하면서 8회기를 기점으로 아동의 내면표현이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함.

3) 사후검사

항목	사전평가	사후평가
H (집그림)	매우 빈약하고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집 그림을 그림 빈약한 그림에 질문에서는 매우 과장되게 좋다고 표현하여 대인관계 욕구를 표현함	아동은 시설 입소의 영향인지 6층 아파트를 그림. 아파트 그림에서 자신은 5층에서 산다고 해,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표현함. 집이 마음에 든다고만 표현함
T (나무그림)	가지가 칼모양으로 과장되게 그렸으며, 열매가 빗금에 침해 당하게 그림. 공격성과 적대감이 시사됨	가지가 덜 과장되어졌으며, 빗금이 사라짐. 수관이 밖으로 벗어난 범위가 줄어들었음.
P (사람그림)	남자 그림은 드라큐라를 여자그림은 옆모습의 기도하고 있는 여자를 그림	남자 그림은 평범한 아저씨를 여자 그림은 전면을 향하고 있는 그냥 누나를 그림
KFD (동적 가족화)	졸라맨 형상의 사람이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림	큰 집을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서있는 모습을 그림. 아동의 현실 인식 및 가족 재결합에 대한 소망이 투사된 것으로 사료됨
BGT	지우고 보조선을 사용한 그림을 통해 불안감을 표현함	보조선과 지우고 그리는 것이 사라짐

4) 종합평가

- 가. 정서적인 측면: 처음의 대인관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적대감과 공격성을 표현함. 표현양상도 언어적인 측면보다 연령에 비해 성숙되지 못한 비언어적인 표현양상이 많았음. 치료 회기가 진행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함. 그러한 표현이 점차 비언어적인 표현 우세에서 언어적인 표현과 매체를 통한 구조화되고 조절된 양상으로 변함
- 나. 행동적인 측면: 처음 아동은 치료실조차 구조화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였음. 쉼터 입소 후에는 의존적인 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을 극단적으로 표현함. 회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지나치게 극단적이지 않고 아동의 자율성이 반영된 행동으로 구조화되기 시작함. 동시에 쉼터에서의 규칙준수 및 협력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됨.

2. 치료종결사유 및 사후관리 계획

9회기 이후 아동이 본 기관 시설 이후에 안정된 환경을 제공받기 위한 양육시설 규칙적인 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소들의 예측지표인 활동구조화(5-8점 이상 성취), 치료실 구조시간(60분 이상 성취), 목표 행동 시간(40분 이상 성취), 습터 적응점수(60점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2회기까지 유지됨.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언어적인 내면표현의 질적·양적 측면도 동시에 증가하여 13-14회기 종결회기를 가지고 종결하게 됨

담당상담원과 임상심리사가 아동 입소 1개월 간 2회 양육시설을 방문하여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 시설적응도를 모니터링함. 이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전화로 아동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 될 시, 외부기관 치료센터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아동에게 적절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VII. 평가 및 제언

위기는 끊임없이 위기를 유지시키고 확장시키는 패턴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낳게 만듦. 이러한 위기의 지속적인 패턴에 치료사가 개입해 중재를 한다는 것은, 위기 상황 전반에 치료사가 융화되어 내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치료상황에서 위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임. 때문에 아동의 위기 패턴을 끊고 아동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기 개입은 치료사의 인내와 기민한 집중, 공감 능력, 아동의 주위 환경과 충분히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치료적 상황이나 여건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학대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던 중, 만난 아동(이경호)은 이러한 위기개입 차원에서의 심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일깨워주었음. 치료사 스스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동 및 아동의 주위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음. 그리고 아동에 융화되어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경험은 치료사의 성장에 충분한 자양분이 되어 위기개입 차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치료사 역할에 대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됨. 아동보호전문

문기관에서 만나는 아동들 대부분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한계점이 있음. 이 제한된 환경 안에서 위기개입 차원에서 단기로 심리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초보 심리치료사에게 매우 큰 좌절과 혼란감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이러한 환경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에 충실해 위기개입 차원에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한다면, 내담자의 양육적인 치료 필요성을 경감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집단상담 “나-너, 함께하는 우리”

사례

09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본 기관에서는 초등학교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추천받아 심리검사와 아동 및 교사면담을 진행하고, 그 중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또래관계 형성이 어려워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4명의 위기아동을 최종적으로 선별함. 선별된 4명의 아동은 초기 면접시 가정내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인 바 가정방문 등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사례판정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선별된 아동의 주요 문제가 학교생활 부적응인 바,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자존감 및 사회기술향상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함. 집단상담 실시 후 아동들은 서로 협동을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되었고,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음.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전과는 달리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문제행동이 감소하여 교내활동에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됨.

<키워드>

아동학대후유증, 학교부적응, 집단상담, 사회기술향상, 또래관계증진

I. 집단구성

집단심리치료구성대상	■ 아동본인 □ 학대행위자 □ 아동가족 □ 기타()
집단구성사유 (구성원의 공통점)	정서불안, 과잉 행동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집단구성인원	4명
심리치료기간(회기)	2010년 8월 ~ 2010년 12월 (총 12회기)

1. 대상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지역

2. 대 상 자 : 지역 내 초등학교 고학년

3.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1) 지역 내 초등학교 교사의 추천

2) 심리검사 지표

① 1차 검사 : 자아존중감 척도, 학교 따돌림 척도에 따른 위기아동 선별

* 교사가 추천한 18명을 대상으로 1차 검사 실시 후 위기아동 선별

③ 2차 검사 : 위기아동 사회기술평가 검사

* 1차 검사를 통해 선별된 위기아동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차 검사 및 아동 면담실시함. 2차 검사시 4명 아동 모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 신고 접수함.

Ⅱ. 치료개입 경위

1. 집단심리치료 개입 경위

학령기 아동의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사례 발굴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집단심리치료 사업을 시작함.

대상 아동의 1차 선별로 교사로부터 학교부적응 문제를 지닌 아동을 추천받음. 이때, 학교부적응 문제란 따돌림 가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학습태도 및 학습준비 불량, 청결하지 못한 위생상태, 문제행동을 말함. 교사의 추천으로 선별된 18명의 아동에게 자아존중감 및 학교따돌림 척도 등을 사용하여 4명의 고위험군 아동들을 2차 선별함. 2차로 선별된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사회기술평가 및 아동 개별 면담을 실시함.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별된 4명의 아동은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하였고 집단 상담을 제공함. 그리고 현장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면 집단 상담 이외에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함.

2. 집단구성

구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직업/학교	비고
아동 1	김훈동	남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잠재위험사례 판정
아동 2	김태정	남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잠재위험사례 판정
아동 3	나준수	남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신체, 정서학대 판정
아동 4	최건아	남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일반사례 판정

Ⅲ. 사정

구분(성명)	심리/사회적 사정결과	
아동 1 (김훈동)	학교 담임 교사 보고	<p>방과 후에도 홀로 교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조용함. 학습 면에서 성취도, 의욕, 자신감이 낮음.</p> <p>추운날씨에도 얇은 옷을 입고 오는 등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음. 아동의 보호자는 조모뿐이며, 조모는 문맹으로 아동의 학습이나 학교생활을 보살펴 주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 더불어 연로한 조모에게 방임되어지는 것이 아닐지 걱정됨. 아동이 가정에서 잘 양육 받고 있는지 궁금하며, 아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이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 등을 표현하기를 원함.</p>
	가정 보고	<p>아동모의 가출로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며, 아동부는 타 지역에서 근로 활동 중임. 아동의 조모가 아동과 형을 양육함. 그러나 연로한 노모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 근처 고모 집을 왕래하며 고모가 아동의 양육을 도움. 조모는 70대로, 아동이 집에 오면 심심하다며 컴퓨터만 하고 있어 잔소리를 하는 편이지만 아동에게 벌을 주거나 때리는 일은 없다고 함. 조모는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의 부가 매달 30만원씩 아동의 양육비를 주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렵다함. 조모는 아동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과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경제적 지원 등을 원함.</p>
	기관 사정	<p>아동은 1차 자존감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전검사에서도 영역별 편차가 나타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됨.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조모에 의한 방임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다른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하진 못함. 그러나 조손가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동의 컴퓨터 과다사용 등으로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보이므로 잠재위험으로 사례판정 함.</p>

구분(성명)	심리/사회적 사정결과	
아동 2 (김태정)	학교 담임 교사 보고	<p>아동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친구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임. 그리고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소리를 치거나 욕하는 등의 부정적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함,</p> <p>아동의 말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과 동생을 차별하는 것 같으며, 아동의 모가 정서기복이 심하여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는 것 같아 걱정됨. 아동이 사랑을 받지 못해 관심을 부정적인 행동으로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며, 아동이 수업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동에게 관심을 주었으면 함.</p>
	가정 보고	<p>아동은 조모, 모와 함께 살고 있음. 아동의 부모는 주말부부이며, 아동은 주말에나 아동부를 만날 수 있음. 조사 당시 아동의 모는 임신중이었는데, 모의 보고에 따르면 아동은 동생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집에서도 반항을 한다거나 떼를 쓰고 말썽을 부려 난감하다고 함. 또한 아동이 산만하고 덩벙거리다 보니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함. 친모는 가정에 빛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임신중이어서 아동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일은 없다고 말함.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가 있지만, 함께 사는 조모가 아동의 양육을 돕고 있어 지지가 된다고 말함. 아동모는 아동은 동생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여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챙겼으면 좋겠다고 함.</p>
	기관 사정	<p>아동은 1차 자존감 검사와 사전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아동의 부모는 주말 부부로 부는 주말에만 가정에 복귀하며, 아동의 조모와 아동 모가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하고 있음, 현장조사 당시 아동 모는 임신 중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있어 보이나 아동의 조모가 함께 아동을 돌보아 주고 있었음. 다만 아동의 산만함과 동생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교 내에서 문제행동이 보여 지는 것으로 사료됨. 이에 아동에게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모의 임신으로 아동에게 정서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p>

구분(성명)	심리/사회적 사정결과	
	학교 담임 교사 보고	<p>학교에서 평소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해 보임.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낙서를 하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수업준비나 과제 수행도 미흡한 부분을 보임, 수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큰소리를 말하기도 함. 아동은 평소 방과 후에도 교실에 남아 있는 시간이 많음.</p> <p>아동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동의 조부가 아동이 잘못하면 욕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일이 자주 발생함.</p> <p>아동이 매우 산만한 편이어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며, 아동이 조부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됨.</p>
아동 3 (나준수)	가정 보고	<p>아동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동의 조부, 조모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 모의 가출로 부모는 이혼하였다고 함. 아동의 부는 빚이 있어 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집과 왕래는 없다고 함. 조모에 의하면 아동이 3~4살 정도에는 아동의 모와 함께 살았는데 아동의 모가 문을 잠가 놓고 어린 아동을 때리고 소리 지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함. 아동은 조모에게 과거 모에게 맞았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엄마를 그리워한다고 함. 아동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조모나 조부에게 욕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함. 그러면 조부도 화가 나서 아동에게 욕을 하고 아동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의 체벌을 가한다고 함. 아동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함. 조모는 과거 모에게 받은 학대와 조부의 학대로 인해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며 아동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함.</p>
	기관 사정	<p>아동은 1차 자존감 검사와 사전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은 과거 친모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으며 현재 주 양육자인 조부모의 양육기술도 부족하고 조부의 신체적인 학대와 언어적인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친조부에 의한 신체, 정서학대로 판정함.</p>

구분(성명)	심리/사회적 사정결과	
아동 4 (최건아)	학교 담임 교사 보고	<p>아동은 친구들에게 폭력적이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평소 말이 많고 욕을 쉽게 하기도 함. 반면 수업시간에는 발표도 거의 없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p> <p>아동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며, 아동이 하루 종일 또는 늦은 시간까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보임.</p> <p>아동이 혹시 방임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며,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꾸준한 심리치료가 진행되어 문제행동이 감소되었으면 함.</p>
	가정 보고	<p>아동의 가정은 부모, 6살 차이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음. 최근까지 부모가 맞벌이를 하였으나 현장조사 당시에는 모가 일을 그만 두고 가정에 있음. 아동의 모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 아동모는 아동의 성격이 고집이 매우 세고 지기 싫어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싸움이 난다 말함. 아동이 3살 때 가슴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로인해 가정에서 과잉보호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었다고 함. 그러나 동생이 태어나면서 관심을 빼앗기고 아동부가 오빠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며 혼을 내다보니 더욱 고집이 세진 것 같다고 말함.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동의 수술한 가슴을 치게 되면 아동이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함. 모가 볼 때에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생활도 적극적이었으나 친구들과 싸우고 담임선생님이 아동의 특성을 몰라 아동에게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아동이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해 소극적으로 된 것 같다고 보고함, 아동의 모는 지금도 아동이 친구나 동생과 싸워서 집에서도 혼이 나는 편이며, 상담을 통해 아동이 친구들이나 동생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함.</p>
	기관 사정	<p>아동은 1차 자존감 검사와 사전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잦은 싸움 등 문제행동이 있지만 가정 내 환경도 깨끗하고 아동이 늦은 시간까지 방치되는 일은 없었음. 그리고 일반가정 수준의 훈육으로 이루어지고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방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일반사례로 판정함. 그러나 아동의 불안정한 애착문제, 부모의 양육기술의 부족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사례로 판정 후에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모에 대한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함.</p>

IV. 치료목표와 계획

1. 치료목표

집단상담에 참가한 아동들은 정서적 자원이 부족한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던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양육자의 태도는 아동이 좌절을 견디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고 자아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방해했을 것으로 보여짐. 아동들은 자신의 욕구나 좌절을 표현했을 때 돌봄과 심리적 지지를 받기보다 비난이나 처벌,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좌절감과 분노가 누적된 것으로 보여짐. 또한 아동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 감정, 좌절감 등을 표현하지 않고 내면화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그로 인해 아동들은 대인관계에서 폭력적이거나 소통을 하지 않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아동들은 치료사와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아역량을 발달시키고자 함. 그리고 또래들과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양육기술이 부족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양육 기술을 습득하여 가정 내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도록 함.

2. 치료계획

- 1) 치료사와 집단원간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감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구축하도록 함.
- 2) 자기인식을 통하여 자아역량을 발달시키고 타인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
- 3) 자기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관을 형성하도록 함.
- 4)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
- 5) 부정적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다루도록 함.
- 6) 긍정적인 자아 관을 기본으로 자기주장을 해보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함.
- 7) 올바른 소통의 긍정성 깨닫고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

- 8) 부모 교육 및 양육 상담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함.

V. 치료개입과정

1. 대상자 선정

- 1) 교사 추천에 의한 18명의 대상자 선정
- 2) 1, 2차 심리검사 지표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자 4명 선정

2. 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	목표	주제	활동 내용	기대 효과
1	정서적 안정감 구축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 소개하기	자기소개 및 별칭정하기, 인간빙고게임, 사전검사.	집단원에 대해 탐색하고 각자의 특성을 파악, 협력기회를 제공하여 친밀감 형성. 사전검사를 통해 심리적 특성파악.
2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나의 뇌구조, 탐정게임, 집단명 정하기, 규칙정하기.	집단구성원 개개인의 관심사와 특성을 표출하고 알아가며 우리라는 집단의 결속을 다짐
3	긍정적 자아관 형성	자기상 개선하기 I	신체외곽 그리기, 거울보고 그리기, 토론하기.	집단원들은 자신의 가치감을 갖게 되고, 자신에게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발견함.
4		자기상 개선하기 II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인터뷰하기.	집단원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과 자신만의 독특한 개인으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

회기	목표	주제	활동 내용	기대 효과
5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	감정 다루기 I	감정에 대해 알기, -감정 카드 만들기 -감정 맞추기	집단원들은 상황에 맞는 올바른 감정표정을 선택하고 감정을 구별하는 것을 배움.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을 습득함.
6		감정 다루기 II	얼굴 표정 그려넣기, 감정게임 (엘리스 게임).	감정에 대해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외롭거나, 상처 입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함.
7	분노의 감정 표현하고 다루기	분노의 감정 다루기 I	동화 읽고 역할극, -소피가화나면 분노의 신체증상 표현하고 이야기하기.	분노감정의 신체적 증상을 알아보고,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분노 표출 방법을 발견함.
8		분노의 감정 다루기 II	화장지 길게 만들기 폭탄 투하하기.	분노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여 보고, 신체적 활동을 통한 감정 표출방법을 익힘.
9	자기주장의사소통	다른 사람 존중하며 의사소통하기	공손한말 익히고 사용하기, 의사소통기술 알아보기.	집단원은 타인을 존중하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며, 친구가 되는 과정을 습득함.
10		내 주장하기 타인 의견 반영하기	칭기백기 게임, 로봇 리모콘 게임.	내가 원하는 데로 활동해보고 남이 원하는 데로 활동해보면서 집단 원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시킨다.
11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	선의를 경쟁 협력하여 문제직면 해결	짜꿍 도미노, 물물 교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정정당당하고, 친절함으로써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했을 때 유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함.
12	프로그램 종결	우리가 변했어요	파티, 사후검사.	자신과 친구들을 칭찬해 봄으로써 자신감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함.

3.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

1) 초기 단계 (1~ 2회기)

① 초기 1 (1회기)

○ 활동 목표 : 집단원간의 친밀감과 라포형성

○ 활동 내용 :

치료사와 처음 인사를 나눈 아동들은 치료사와는 어색해 하였음. 그러나 아동들끼리는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만한 모습을 보임. 아동들에게 별칭을 정하는 시간을 주자, 서로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기 시작함. 이때 아동3이 아동2의 별명을 계속 부르자, 아동2가 아동3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이 시작됨. 치료사는 아동2와 아동3에게 싸우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아동들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하였으나 감정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지 못함. 치료사는 아동들에게 자신이 잘못된 점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고 중재 후 활동을 이어나감. 아동1은 별칭을 다크 나이트로 정하였고 메이플 스토리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 이야기함. 아동2는 별칭을 자신의 이름으로 정하였으며, 편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함. 아동3은 별칭을 산이라고 지었으며, 큰 산이 좋다고 이야기함. 아동4는 별칭을 천하장사로 지었으며, 힘이 세고 커졌으면 좋다고 이야기함. 이후 아동들은 활동 시 별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음. 인간방고 게임에서 아동들은 자신과 집단원들간의 공통적일 것 같은 사항들을 적고 집단원들에게 직접 다가가 공통점을 찾아가 묻고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활동 평가

아동들은 치료사와의 첫 만남과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 활동에 긴장하고 어색해하였음. 아동들은 치료사와 타 아동들과 친밀감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행동 특성들을 보임. 아동들은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황에 더욱 산만하게 행동함. 또 집단원들간의 갈등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 그리고 자신의 소감이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자, 얼굴이 경직되는 듯 머뭇거리며 당황해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함.

그러나 집단활동 시 집단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 집단의 강점으로 보임.

② 초기 2 (2회기)

○ 활동 목표 :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

○ 활동 내용 :

2회기에는 집단명과 규칙을 정하기로 함. 집단원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며, 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거나 행동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임. 치료사는 아동들에게 인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주기 위해 모든 활동 전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잘 할 수 있나?” 의 인지 3단계 질문법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정리하도록 함, 치료사와 집단원들이 합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고 정한 규칙을 전지에 적고, 아동들에게 직접 꾸미도록 함. 아동들은은 규칙을 정하고 전지에 글만 적은 상태에서 더 꾸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다고 말함. 이에 치료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전지를 꾸며봄.

아동들은 집단명을 까도집(까마귀가 도는 집단- 까마귀 소리처럼 시끄러워서)이라 정함. 나의 뇌구조 활동에서는 집단원들 대부분이 컴퓨터, 게임, TV, 먹고 싶은 음식, 핸드폰 등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으로 말함.



< 2회기 집단원들이 만든 까도집의 규칙 >

집단원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소리 지르지 않기, 끼어들지 않기, 돌아다니지 않기 등의 의견을 내놓았음. 이는 집단원들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인 지적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지적들을 규칙정하기를 통하여 정리하게해 보고, 지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봄.

○ 활동 평가 :

집단원들은 단체 활동에서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모습들을 보였으나, 개별 상황에서는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임. 이들은 외부에서 받은 지적들로 자신들이 시끄럽고, 싸우고, 산만한 사람 등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이 더욱 위축되어져 보임.

규칙서에 꾸민 그림들과 뇌구조 작성을 보면 아동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교류의 경험이 적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조절해야하는지에 대해 어려워하였고 애정적 욕구가 충족되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짐. 이번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집단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라는 공동체 집단의 결속을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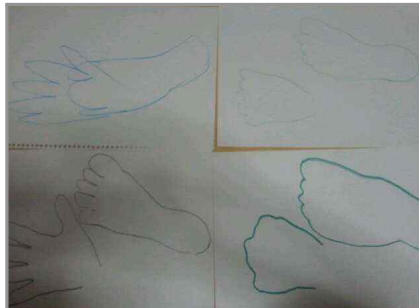
2) 중기 단계 (3 ~ 10회기)

① 중기 1 (3 ~ 4회기)

○ 활동 목표 : 긍정적 자아관 형성

○ 활동 내용 :

아동들에게 도화지를 나누어 주고 자신의 손과 발의 외곽선을 그려 보도록 함. 아동들은 자신의 손과 발을 그리는 것에 대해 꺼려하며, 손과 발을 내놓는 것을 부끄럽다고 함. 아동들은 자신의 손과 발의 외곽선을 대충 그림. 아동들이 대충 그린 그림을 보고 각자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웃겨요’, ‘못생겼어요’, ‘개발 같아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옴. 이후 치료사와 아동이 함께 손을 잡고 손과 발의 모양을 천천히 다시 그림. 이때, 치료사는 아동들의 손과 발의 장점들을 이야기해주며 그려나감. 마지막으로 아동이 혼자 다시 한 번 천천히 자신의 손과 발의 외곽선을 그려보게 함. 그리고 아동들에게 그림의 느낌과 손가락, 발가락의 숫자만큼 본인의 장점을 생각해보도록 함. 아동들은 자신의 장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신 다른 집단원들이 장점을 찾아주도록 함. 이후 4회기에서는 집단원들끼리 자신의 장점을 직접 표현하는 시간을 가짐. 아동들은해적 롤렛 게임으로 스타와 기사 역할을 정하였고, 게임에 적합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장점을 직접 표현해보도록 함.



< 3회기 활동 신체 외곽선 그리기 >

아동3의 경우 자신의 손과 발을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그림. 그리고 아동 1은 자신의 손을 펴지 않고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을 따라 그리는 모습을 보임. 아동들은 처음 자신이 그린 손과 발의 그림에 대해 부정적 반응들을 보였으나, 이후 3번째 그림에서는 외곽선도 안정되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함

○ 활동 평가 :

활동 초기에 아동들은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모습들을 보였지만, 치료사가 활동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킨 후 시작했을 때에는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여줌.

이번회기에서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을 경험함. 아동들은 자신의 장점을 찾으려 하였을 때 불편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등 당황하였으나, 집단원들과 함께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됨. 이후 자신의 장점에 대해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점차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냄.

② 중기 2 (5회기~ 8회기)

○ 활동 목표 : 감정다루기


○ 활동 내용 :

감정의 인식과 표현이 서투른 집단원들에게 감정 카드를 이용하여 감정의 종류에 대해 분류해 보도록 함. 그리고 엘리스 감정게임을 이용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분류하고 실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대치시켜 보도록 함.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던 아동들은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느꼈었던 감정을 생각해보고 대치시키는 모습을 보임. 나아가서는 아동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행동 후 나쁜 결과를 이끌어냈던 분노의 감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 치료사는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이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이고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 폭탄을 제시함. 아동들이 처음 감정 폭탄을 실시하였을 때는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큰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으나, 잠시 중단 후 제한된 규칙 안에서 아동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경험하게 하였을 때 아동들은 감정 폭탄들을 조절하며 투하하는 모습들도 보여줌.

○ 활동 평가 :

감정의 인식과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들은 좋아요, 싫어요, 몰라요, 또는 침묵, 과장된 행동 등 단편화된 방법으로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 그러나 엘리스 감정게임, 감정카드 등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됨. 그리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단어들도 실제 활동 중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아동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모습도 보임.

아동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올바른 해소에 따른 결과와 느낌들을 조금씩 인지함. 이후 담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들이 활동 시 배운 것들을 학교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함.



< 6회기 얼굴표정그려넣기 >

아동들은 감정의 인식과 표현을 어려워하며, 감정에 따른 표정을 그려 넣지 못함. 이에 표정이 그려진 얼굴에 감정에 맞는 색을 칠해 보도록 하고 감정을 적어보도록 하자 그림에 맞는 감정 단어들을 알맞게 대치시킴.

③ 중기 3 (9회기~ 10회기)

○ 활동 목표 : 자기주장과 의사소통

○ 활동 내용 :

아동들의 사회기술향상을 위해 올바른 자기주장과 의사소통에 대해 교육하고 활동을 통해 경험해보게 함.

활동 초기 아동들은 욕을 하거나 명령적인 어조, 서로를 비판하거나 놀리는 말들을 많이 사용함. 사전에 아동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들려주자 아동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흥미를 가지고 들음. 이후 자신이 한 거친 표현을 듣게 한 후 어떤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었다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 ‘화가 났을 것 같다’, ‘당황스럽다’라고 표현함. 이후 아동들에게 몇 개의 예시를 알려주어, 공손하게 대화하도록 제안함. 아동들은 활동지에 공손하게 바꾸는 글들은 잘 써 내려갔으나, 직접 표현할 때에는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보임. 이에 아동들에게 청기 백기 게임을 통해 직접 공손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함. 아동들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활동함.

로봇 리모콘 게임에서는 팀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리모콘 주인과 로봇을 역할을 맡아 부탁 하였을 때와 명령하였을 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함. 아동들은 공손한 부탁의 표현을 거부감없이 손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임. 이후 명령 하였을 때의 느낌과 공손하게 이야기

하였을 때의 느낌에 대해 서로 소감을 나눔. 아동들은 명령을 받았을 때 보다는 공손하게 부탁하였을 때가 기분도 좋고 부탁도 들어주고 싶다는 반응을 보임.



< 10회기 청기 백기 게임 >

청기, 백기 게임을 통하여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는 모습을 보임. 그리고 명령하는 사람의 역할과 말을 듣고 행동해야하는 사람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며 게임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 활동 평가 :

집단 내에서도 명령과 거친 말투 등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들은 거친 말투와 명령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듯 보여짐. 이는 학교 및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많았을 것이라 사료됨. 아동들은 활동 초기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공손하게 부탁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함. 그러나 게임을 통해 공손한 표현을 시도해보게 되고 역할을 바꾸어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공손하게 표현 했을 때의 긍정적 반응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즐거워함.

3) 후기 단계 (11 ~ 12회기)

○ 활동 목표 : 자기주장과 의사소통

○ 활동 내용 :

짜꿍 도미노 게임을 이용하여 짜꿍과 함께 협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섬세한 작업으로 여러 실패를 거치며 아동들은 서로 짜증내기도 하고, 짜꿍과의 마찰도 보임. 그러나 큰 소리나 집단상담의 초반에서처럼 싸움을 벌이지는 않음. 아동들은 짜꿍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협의해 나감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임무를 수행함. 그리고 임수수행 후에는 아동들끼리 즐거운 감정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 아동들의 행동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보임. 아동들은 활동을 하며 강화물로 받은 스티커를 이용하여 치료사에게 물품들을 배정 받음. 그리고 배정받은 물건 중 자신이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

을 분류하여 다른 집단원 들과의 물물 교환을 함. 이를 통해 아동들은 집단 내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자신의 필요한 것을 성취하도록 함.



< 11회기 물물교환 >

치료사가 준비된 물건들을 아동들이 잘했을 때 받은 스티커에 따라 임의로 나누어 줌.

아동들은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협의를 통하여 큰 소리나 싸움과 같은 갈등없이 물물교환 하고 있음.

○ 활동 평가 :

이번 활동에서는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임. 아동들은 협동하는 활동을 하면서 작은 마찰이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마찰을 해결함. 그리고 협동하여 임무를 성공 하였을 때는 성취감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임. 특히 물물교환 활동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획득함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며 마찰없이 교환하는 모습을 보임.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아동들은 활동 내에서 경험하고 습득한 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수용함. 그리고 치료사가 아동들에게 실제로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자 아동들은 기뻐하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임.

4. 교사 및 양육자 면담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와 양육자 면담을 실시함. 이를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고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아동에게 효과적인 양육방법을 교육함.

VI. 평가

1. 분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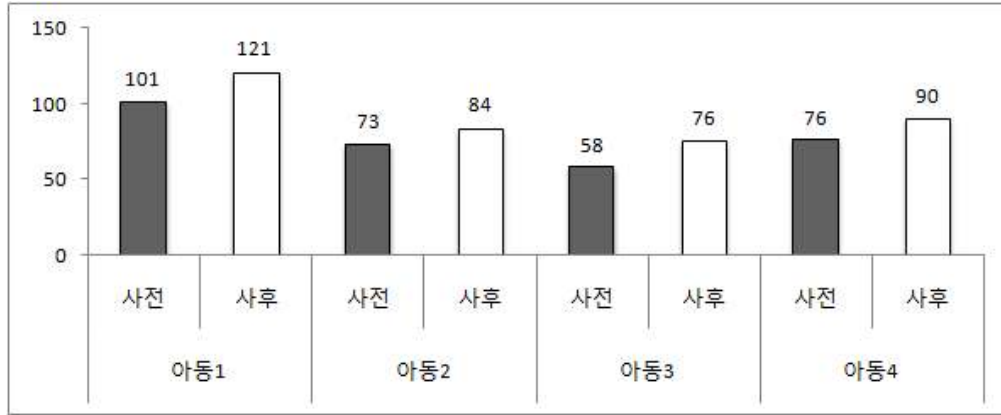
1)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기술향상 변화

아동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기술평가를 실시함. 평가결과, 아동 모두 10점 이상의 점수가 향상되었음. 하위 영역별로는 협동점수에서는 세 명의 아동이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한명의 아동은 사전과 사후에서 같은 점수를 보임. 자기 조절 영역의 경우 4명의 아동 모두 5점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었으며, 이외에 자기주장, 공감 영역에서도 고르게 상승되었음.

<표 1> 의사소통 능력 향상 측정을 위한 사회기술 평가 사전 사후 점수 변화

집단원		협동	자기조절	자기주장	공감	총점
아동 1	사전	33	34	12	22	101
	사후	35	41	17	28	121
	차이	+2	+7	+5	+6	+20
아동 2	사전	17	28	14	14	73
	사후	17	33	18	16	84
	차이	0	+5	+4	+2	+11
아동 3	사전	13	15	18	12	58
	사후	16	21	23	16	76
	차이	+3	+6	+5	+4	+18
아동 4	사전	19	18	16	23	76
	사후	21	24	21	24	90
	차이	+2	+6	+5	+1	+14

<그림 1> 의사소통 능력 향상 측정을 위한 사회기술 평가 사전 사후 점수 변화



이와 같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회 기술능력을 습득하고, 집단 속에서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의 행동 변화

구분(성명)	행동변화
아동1 (김훈동)	<p>아동은 조용하고 눈 마주침이 하지 않음. 집단상담 초기 치료사나 타 아동들의 눈치를 보고 활동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며, 참여해도 되는지 확인 후 활동을 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임. 치료사가 아동에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지해주고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 주자 아동은 점차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p> <p>집단활동시 아동은 좌절상황에서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하지 않았고 감정직면에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그리고 상대 아동에게 수동공격적인 모습을 보임. 그러나 치료사가 아동의 감정을 읽어주고, 타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감정을 공감해주자 좌절감을 점차 표현하기 시작함. 아동은 의사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나 타 아동들과 치료사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함.</p> <p>아동은 공동 작업이나 타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러한 자세는 아동의 강점으로 보여 짐.</p>

구분(성명)	행동변화
아동2 (김태정)	<p>집단상담 첫 회기, 아동은 치료사에게 왜 본인이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고 집단 내의 타아동들과 싸움을 하며 집단참여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임. 이에 대해 치료사가 아동에게 집단상담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미리 설명해주어 아동이 프로그램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었음.</p> <p>활동 초기 아동은 본인이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활동에서는 집단 내 타 아동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이기려는 모습을 보임. 그리고 자신의 활동에 타 아동들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흥분하여 바로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임. 이에 대해 치료사는 아동이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치료사는 아동에게 분노조절을 위한 심호흡과 감정 가라앉히기 등을 교육함. 그리고 아동 스스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 아동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을 하거나 타 아동들을 공격하는 행동이 점차 감소하였음.</p>
아동3 (김준수)	<p>아동은 집단상담 초기 집단 내 다른 아동들의 행동을 방해하고, 먼저 놀리거나 공격하여 싸움을 벌이는 등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그리고 프로그램 중 게임을 하여 다른 집단원이 이기는 상황이거나, 자신의 차례가 되어 긴장이 되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임. 또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려함. 아동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자리를 돌아다니는 등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임. 그리고 집단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이기기 위해 역지를 부리기도 함. 그러나 치료사가 단호한 태도로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자, 집단의 규칙을 지키기 시작함.</p> <p>아동은 좌절상황이 되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그러나 치료사와 집단원들의 지지와 공감을 통해 점차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집단상담 중기부터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참여함.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아동은 집단원들의 행동에 공격적으로 반응하였던 행동도 감소하기 시작함. 집단상담 후기에는 다른 집단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집단상담에 집중하는 시간도 점차로 증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함.</p>
아동4 (최건아)	<p>아동은 다른 집단원에 비하여 집단상담 초기부터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아동은 치료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위축된 태도로 말하였으나, 신체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함. 아동은 다른 집단원이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아동이 다시 설명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임. 활동 도중 친구들이 자신을 약하게 보는 게 싫다고 이야기하며 승부욕을 보임. 그러나 다른 집단원이 자신의 활동을 낮게 평가하면 쉽게 흥분을 하였고, 치료사 앞에서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음.</p> <p>치료사가 집단활동 중 게임의 승패보다는 아동의 참여과정 및 태도에 대해 평가해주고 격려하자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집단상담의 후기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등 행동상의 변화를 보임.</p>

2. 치료종결사유 및 사후관리 계획

집단상담 초기 아동들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모습들을 보였음. 아동들은 집단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협동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감, 타인의 주장에 대한 수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아동들은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며 서로 다투거나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침묵함. 그러나 집단상담을 통해 집단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상대방을 인식하게 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원들간에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됨. 중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감정을 들여다보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후 다른 집단원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받아드리게 되면서 후기에는 자신의 주장도 펼치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들어주며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협동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본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라는 제한된 시간동안 진행되지만, 집단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행동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음. 사후검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아동들의 협동, 자기주장, 자기조절, 공감의 항목에서 향상된 점수를 보임. 그리고 집단상담에 참여한 아동들이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에 따른 결과에 만족함. 집단상담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개별 상담과 양육 교육,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캠프참여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3. 프로그램 이후 아동의 변화

구분(성명)	아동의 변화	
아동 1 (김훈동)	학교 생활 서비스 개입 및 변화	<p>치료사와 교사 면담을 실시함. 아동은 낯설거나,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위축되고 대처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면 문제를 회피하고 좌절감을 느낌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함. 이에 교사에게 아동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학교 규칙 안에서 해결방법을 탐색하고 교사의 제안과 지지를 통하여 아동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함. 아동에게 시간을 주고 제한적이지만 안정된 상황에서의 아동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고, 또한 아동에게 임무를 주고 임무수행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교사가 격려와 칭찬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교사의 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을 도움.</p> <p>컴퓨터 과다 사용 문제를 위해 교사는 아동이 컴퓨터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도서를 추천해주고 독서 지도를 해주기로 함.</p> <p>이후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은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준비물을 잘 준비해 오고 있다고 함, 또한, 교사는 아동의 표정이 밝아졌고, 담임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증가하였다고 말함</p>
	가정 생활 서비스 개입 및 변화	<p>아동의 노모, 고모에게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 아동의 고모는 아동의 준비물 등을 확인해 주기로 하였고 귀가 후 아동이 컴퓨터를 하지 않도록 보드게임과 같은 놀잇감을 준비해주기로 함.</p> <p>이후 고모, 노모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의 컴퓨터 시간은 감소하였고 대신 독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그리고 아동의 고모가 자주 전화해서 아동들을 챙겨주고 있다고 함. 아동의 고모는 아동과 함께 생활계획표를 작성하여 아동에게 지키도록 지도하였고, 그에 대한 상벌을 제시하여 아동이 생활계획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함.</p>
아동 2 (김태정)	학교 생활 서비스 개입 및 변화	<p>교사면담을 진행하여 아동의 특성에 대해 설명함. 더불어 교사에게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관심과 격려, 지지가 중요함을 이야기함.</p> <p>이후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은 여전히 친구들과의 언쟁을 벌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몸싸움은 하지 않는다고 함. 그리고 가정에서 관심을 두어서인지 아동이 준비물을 잘 챙겨옴. 교사가 아동에게 관심을 두고 격려와 지지를 하여서인지, 아동의 표정이 밝아 졌으며, 예전과는 달리 아동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함.</p>
	가정 생활 서비스 개입 및 변화	<p>아동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양육교육을 실시함. 아동모는 양육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깨닫고, 반성하였다고 말함.</p> <p>이후 아동의 모는 긍정적이고 올바른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아동의 행동변화를 위해 주말마다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아동이 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설명하여 동생에 대한 거부감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아동은 엄마의 배를 쓰다듬어 보고 귀도 대보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함.</p>

구분(성명)	아동의 변화	
아동 3 (나준수)	학교 생활 서비스 개입 및 변화	<p>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의 특성에 대해 설명함.</p> <p>아동은 어른에 대한 신뢰감이 적고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나 어른은 powerfull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적대감들을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표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교사가 아동을 대할 때 일관적이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아동에게 아동보다 약한 아동들을 돕게 함으로써 긍정적 방법으로 자신의 power를 경험하도록 돕도록함.</p> <p>아동은 집단상담 이후에도 개별놀이치료와 병원치료가 병행하여 제공됨. 아동은 조부모보다 교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므로 교사가 매일 아침 약물복용을 돕고 있음.</p> <p>현재 아동은 수업시간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등의 산만함과 불안한 태도가 감소하였다고 함. 그리고 방과 후 에는 학원에 다니게 되어 학교에 남는 일은 없다고 함.</p> <p>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들과 싸우는 횟수도 많이 감소하였다고 함. 본 기관에서는 아동의 급식비 보조를 위해 서비스 제공함.</p>
	가정 생활 서비스 개입 및 변화	<p>아동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위하여 가정방문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치료 후 15분씩 아동의 조부모와 부모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p> <p>과거 아동은 조부모를 거부하였으나, 현재는 조부모에게 먼저 다가가기거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등 행동적 변화를 보임. 아동의 조부 역시 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정서학대를 하지 않게 됨.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는 것보다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함.</p> <p>또한, 아동의 부에게 아동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매일 아동과 부가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 이후 아동은 잦은 부와의 전화통화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보임</p>
아동4 (최진아)	학교 생활 서비스 개입 및 변화	<p>교사 면담을 통하여 아동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함.</p> <p>교사는 아동의 수술에 대해 학급 아동들에게 설명하여 친구들이 아동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함.</p> <p>이후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감소하였고 갈등이 감소하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아동이 또래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여 큰 다툼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함.</p> <p>교사는 아동에게 쉬운 질문에 답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신감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교사의 격려와 칭찬에 아동이 수업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함.</p>
	가정 생활 서비스 개입 및 변화	<p>아동의 부모에게 양육교육을 실시함. 교육이후 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함. 그리고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아동을 인정하고, 동생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대화로써 훈육을 한다고 함. 이에 따라 아동의 행동도 변화하였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고 동생을 보살피는 역할도 한다고 함. 그리고 아동의 모가 직장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으로 보여짐.</p>

VII. 평가 및 제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위해 학교 내 부적응 행동과 아동학대 및 학대 후유증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음.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교사 추천과 심리검사, 아동 면담을 통한 학대피해아동 또는 학대잠재 유형의 아동들을 발굴함. 이러한 시도는 아동학대사례개입이 아동학대 홍보나 신고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관이 직접 학대 받는 아동들을 찾아내어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동 관련 업무의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또한 총 12회기라는 짧은 치료기간동안 집단상담을 통해 아동들의 사회기술이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음.

그러나 아동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프로그램의 회기가 짧다는 제한점이 있음.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의 인식이 부족하여 학대피해아동들이 집단상담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집단상담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회기 및 시간이 연장되어야 하며,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주변인들의 인식변화로 더욱 많은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학대라는 틀에 쫄쫄 얼러진 얼음과도 같음.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진 얼음을 풀기 위하여 뾰족한 송곳 같은 별을 주거나 흔내어 깨트리기 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천천히 아이를 녹여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여 함.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자라 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람.

친부에 의한 성학대 피해아동 미술치료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10

본 사례의 아동은 학대행위자인 친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 정서, 성학대를 받아 분노와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학대피해아동 전담 보호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보일 뿐 아니라 학교부적응, 금품 갈취,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보여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요함. 이에 총 17회기의 미술치료를 실시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아동은 부모에 대한 분노감의 표출 및 해소 과정을 경험함. 아울러 전담 보호시설에서 적응하는 행동적 변화를 보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등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임.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전담 보호시설에서의 적응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행위자인 아동 부가 구속수감되어 아동의 안전이 확보된 바 아동은 안전하고 장기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보호시설로 전원조치되었고, 아동이 장기보호시설 입소 후 변화된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타 치료기관에 심리치료 연계하면서 심리치료를 종결함.

<키워드>

근친 아동성학대, 미술치료, 비행청소년, 부적응, 문제행동, 시설입소

I. 사례개요

아동성명	김가은(가명)	아동 성별 및 연령	여, 15세
학대행위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김학문(친부, 가명)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남, 46세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치료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동본인 <input type="checkbox"/> 학대행위자 <input type="checkbox"/> 아동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리치료기간(회기)	2009년 1월 ~ 2009년 5월 (총 17회기)		
주요치료개입방법	미술치료		

II. 치료개입 경위

본 사례는 2008년 12월 13일, 친부에 의한 성학대로 신고된 사례로, 아동은 신고 당일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녹화하면서 친부에 의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피해도 진술함. 이에 기관에서는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담 보호시설에 격리보호함.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초기, 아동은 학교부적응, 금품 갈취, 폭력 등의 문제 행동으로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학교에서는 정학처분을 받은 상태로 아동은 학대행위자인 친부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임. 또한, 아동은 전담 보호시설 생활 지도교사와의 관계를 어려워하였고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이에 아동의 심리 행동적 특성 확인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해 2008년 12월 30일에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술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음.

Ⅲ. 사정

1. 개인력

아동의 부모는 연애결혼을 했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아동을 출산하였다고 함. 친모는 아동을 제왕절개로 출산하였고, 대소변을 늦게 가린 편이었다고 말함. 친모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은 예민한 편이었고 어릴 적부터 친부를 싫어했다고 함. 맞벌이로 인해 아동의 양육자는 자주 바뀌었고 친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친모의 가출이 잦았다고 함.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년부터 문제행동을 보였으며, 신고당시 아동은 폭력과 무단결석 등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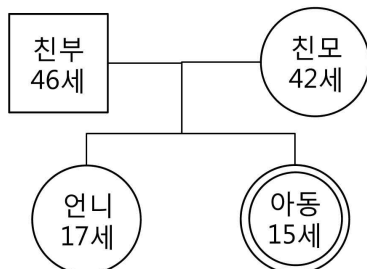
아동은 학대피해아동 전담 보호시설에 입소 후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는 등 여러 활동을 하였지만 흡연, 늦은 귀가, 반항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며 시설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음.

2. 가족력

1) 가족관계

성명(가명)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직업/학교	비고
김학문	남	46	친부	무직/고졸	
이지민	여	42	친모	베이비시터/고졸	
김가영	여	17	언니	학생/고1	
김가은	여	15	아동	학생/중2	

2) 가계도



- 친부 : 친부는 가끔 건설관련 일용직을 하기는 했으나 거의 일을 하지 않았고, 집에 있는 동안 인터넷 게임을 많이 했다고 함. 그리고 친부는 친모에게 가정폭력을 자주 행사하였다고 함. 현재 친부는 김가은 아동에 대한 성학대 건으로 실형 4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임. 아동은 친부가 자신을 묶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 당시 친부는 아동을 묶은 것은 인정하나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함. 또한 아동이 친부가 자신의 성기를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친부는 아동훈육 차원에서 아동의 성기를 보았다고 진술함. 친부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아동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했다고 함.
- 친모 : 친모는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말함. 치료사와 면접 시 친모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 하였음. 친모는 아동이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였고 친부의 가정폭력을 피해 여러 차례 가출을 하여 아동을 돌보는 고정된 양육자가 없었다고 말함.
- 언니 : 본 기관에 신고접수 이후 아동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전담 보호시설에 입소함. 아동에 의하면 아동의 언니는 친부와 고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함. 아동의 언니는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가 원만하다고 말함. 전담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중 생활지도교사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음.

3. 심리평가사정

1) K-WISC-III 지능검사

K-WISC-III로 평가한 아동의 전체 지능지수는 71(언어성 지능= 73, 동작성 지능= 75)로 '경계선'수준에 해당함. 아동의 체반 인지기능은 '중등도의 정신지체' 내지 '보통' 수준에 속하여 소검사간의 편차가 매우 심한 편으로 인지기능 상의 심한 불균형이 시사됨.

상 식	공통성	산 수	어 휘	이 해	숫 자	언어성지능
3	6	7	7	7	(11)	73
빠진곳	기 호	차 례	토 막	모 양	미 로	동작성지능
4	6	8	7	8	-	75

아동은 언어능력과 관련하여 어휘력은 부족한 편이나, 개략적인 개념이해는 가능해 보여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은 드러나 보이지 않음. 그러나 단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고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상식이나 기본지식은 상당히 빈약한 상태로, 아동의 학년수준에 부합하는 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반면 시공간적인 단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이나, 단서들 간의 관계를 유추하거나 분석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능력은 양호하게 습득된 듯 보임. 따라서 아동은 평소 새로운 자극이나 개념을 익히는 과정에서 교재를 읽고 그 안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익히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만지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개념을 터득할 것으로 추정됨. 또한 평소에 말보다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다 편안해하고 선호할 수 있으며 이런 인지적인 특성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보다 강화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음.

기본적인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이해는 양호해 보임. 그러나 사회적 상황을 보편적이고 관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며 간혹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을 다룰 소지가 있어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예상됨. 특히 아동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변별해내는 능력이 ‘중등도의 정신 지체’ 수준으로 지체되어 있어 매사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변상황이나 타인의 반응을 촉각을 곤두세운 채, 경계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음.

2) 정서 및 성격

의식적으로 아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져 있어 보임. 특히 아동은 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불만 등을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가 아동에게 삼입성교를 하는 등의 성학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이러한 화나 불만을 스스로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빈약해 보여 종종 불만을 거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표출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며, 담당 상담원이 보고한 가출이나 폭력 등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이런 성격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아동은 의식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불신을 반복적으로 보고할 뿐,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나 힘겨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어 보임. 그러나 심리 내적으로는 상당히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듯 하지만, 이런 감정에 젖어있

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 타인으로 하여금 아동이 감정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다소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어 보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아동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갖고 있어 보임. 그러나 이성과의 관계 상황이나 깊은 친밀감을 야기 시키는 상황에서는 이를 성적인 느낌과 혼동하여 경험할 우려가 있어 추후에도 성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성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성교육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는 갖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부족하고 내면에 분노와 화가 이글거리고 있어 보여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어 보임. 따라서 아동이 관계에 대한 조망을 안정되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치료자와의 안정된 관계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치료목표와 계획

1. 치료목표

- 치료사와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
- 친부에 대한 분노감을 해소함.
- 아동이 전담 보호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함.

2. 치료계획

구조화 / 비구조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미술치료를 실시함.

1) 초기 (1~2회기)

- 아동이 본 심리치료 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구조화함.
- 아동과 치료사간의 라포관계가 형성되어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함.

- 미술작업에 대한 저항을 갖지 않도록 이완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함.

2) 중기 (3~15회기)

- 아동이 미술 매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함.
- 아동의 외상 사건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해소함.
- 자아개념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 및 자기 인식 능력 향상함.

3) 종결 (16~17회기)

-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함.
- 아동이 안정적인 이별을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V. 치료개입과정

1. 초기단계(1~2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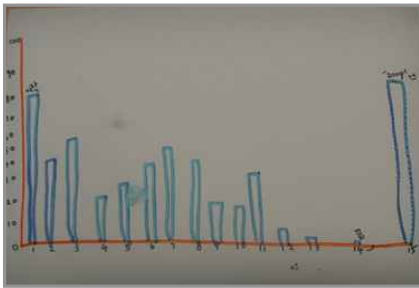
- 치료목표 : 치료사와 아동의 라포형성 및 치료의 구조화

- 치료내용 :

1회기에 아동이 처음 선택한 재료는 아이 클레이로 치료사에게 자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아동은 엄마와 언니를 만들었음. 이를 통해 아동은 함께 살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함.

2회기에 아동은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그려 발달사를 점수로 매기고 당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아동은 12세에 낮은 점수를 표기하고 당시 엄마가 가출하였다고 말함. 그리고 인생그래프 중 14세에 가장 낮은 점수를 표기하고 이 시기에 친부에게 성학대를 받았다고 말함. 아동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를 싫어했다고 말하며, 태어났을 때부터 싫었다고 말함. 그리고 고모들도 아동을 싫어했고 언니만 이뻐했다고 말함. 치료사가 아동에게 이유에 대해 묻자 자신이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워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함. 아동의 말에

따르면 친부는 아동을 싫어해서 언니는 잘 안 때리고 본인만 때리고, 욕하고, 묶기까지 했다고 함. 그리고 친모도 친부에게 맞아 흉터가 있다고 말함. 아동이 본인이 친모와 같은 상황이라도 이혼하고 집을 나갔을 거라고 말함. 치료사가 아동에게 친부를 생각하면 어떠냐고 묻자 역겹다고 대답함. 아동은 인생그래프에서 현재인 15세의 점수를 높게 적으며, 15세가 된 지금은 기분이 좋고 언니, 친모와 다시 살게 되면 희망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함. 치료사가 아동에게 ‘15년간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많았던 상처들을 잘 치료해 줘야 겠다’라고 말하니 아동은 치료는 누가하는 거냐고 치료사에게 되물음. 이에 치료사는 자신의 치료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선생님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답함.



< 2회기 인생그래프 >
아동이 2회기에 그린 자신의 인생그래프임. 아동이 성학대 사건이 있었던 시점을 가장 낮은 점수로 주었고 현재 점수는 높게 주었는데 아동이 힘든 상황을 회복해 보려는 자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 과거 외상 사건을 기억하며 언어화를 하였고 그 사건이 자신에게 준 영향에 대해 통찰할 수 있었음.

○ 회기평가 :

첫 회기에 아동은 무표정이었고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모른다는 대답을 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임. 그리고 아동은 엄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와 친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아동의 history를 탐색해 본 결과 아동은 친부에 대한 분노가 크고 성장과정 중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아동의 발달사와 관련해서 남성상이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낮음.

2. 중기단계(3~15회기)

1) 중기 1 (3~6회기)

○ 치료목표 :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 표출

○ 치료내용 :

3회기에 아동은 언니가 친부의 면회를 다녀왔다고 말함. 면회 이후 언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함. 그리고 친부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친부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말함. 아동은 치료사에게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질문함. 이에 대해 치료사는 ‘아빠니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하겠지만 아빠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었음. 아동은 아이클레이를 선택하고 치료사와 함께 작업하기를 원함. 아동은 눈이 크고 볼터치를 한 얼굴을 만들며 자신의 눈이 작은 것이 불만이라고 말함. 아동은 친부가 본인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주변에 자기편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함.

4회기에 아동은 학교를 그리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함. 그리고 담당상담원과 전담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함.



< 3회기 작품 >
자신의 얼굴을 아이클레이로 표현하였음. 눈을 크게 만든 것이 인상적임. 아동은 눈이 작아 눈이 커지기를 원하는데 이는 작은 눈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성장하려는 아동의 내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회기평가

아동은 친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동시에 친부가 교도소에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양가감정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친부에 대한 처벌의사는 확실하였음. 아동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음. 아동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담당상담원과 전담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사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비난했다가 다시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

2) 중기 2 (7~11회기)

○ 치료목표 : 친부에 대한 감정 해소, 외상 사건 표현, 친모에 대한 감정 표현

○ 치료내용 :

7회기에 아동은 천사와 악마를 그림. 아동은 자신이 악마같은 모습을 보일 때는 친구를 구타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엄마한테 화낼 때라고 말함.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을 달라고 한 이유는 친부가 용돈을 주지 않아서라고 설명함. 치료사가 아동에게 천사같은 때는 언제 인지 질문하자 엄마 일을 도와줄 때, 다리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라고 답함.

8회기에 전분을 이용해서 감각놀이를 진행함. 아동은 친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전분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욕을 하기도 함. 아동의 말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동이 법정에서 서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함. 그리고 법원에 갔다 온 후 고모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이에 대해 치료사는 아동에게 담당상담원, 전담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사, 시설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 치료사는 가은이의 말을 느다고 말해 주었음. 아동은 법정에서 친부의 얼굴을 봤다고 말했고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음.

11회기에는 석고봉대로 손 뜨기를 하였음. 아동은 손등 위의 석고를 문지르면 손에 느껴지는 촉감을 좋아하였음. 아동은 석고 작업을 하며 친부, 친모와의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였음. 아동의 말에 의하면 아동이 중학교1학년 때 친부가 아동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쇠몽둥이로 온몸을 때렸다고 함. 당시 아동의 몸에 멍이 심해 병원에 가려 했으나 창피해서 가지 못했다고 함. 아동은 친부가 회사를 가지 않고, 담배만 피운다고 말함. 그리고 친부는 친모한테 담뱃값을 요구하며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동에게도 돈을 요구했다고 말함. 당시 아동은 친구의 돈을 빌려서 친부에게 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고 싶었겠냐고 말함. 아동은 아빠와의 사건에 대해 말한 이후, 엄마와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함. 아동이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가출하였고, 아빠는 가출한 엄마를 찾아오라며 아동을 외갓집에 보냈다고 함. 이후 아동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문이 잠겨있었고 집 열쇠는 없었다고 함. 당시 엄마는 아동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그래서 어린 아동이 엄마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엄마가 미웠다고 말함. 치료사가 아동에게 ‘당시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겠다’고 말을 하니 아동이 그렇다고 대답함. 치료사는 아동에게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동의 장점이라고 하였고, 아동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좋다고 답함.



< 11회기 작품 >

석고붕대를 이용하여 아동의 손본뜨기를 한 작품임. 아동은 석고붕대를 자신의 손에 붙이면서 손에 느껴지는 촉감을 좋아함. 이를 통해 아동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알 수 있었음.

○ 회기 평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동이 느끼는 친부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미술작업을 통해 해소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 함. 아동은 어렸을 때 친부와 있었던 외상사건과 친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말함. 그리고 치료사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함.

3) 중기 3 (12~15회기)

○ 치료목표 : 전담 보호시설 생활지도교사와 관계 개선,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 인식

○ 치료내용 :

12회기에서 아동은 친부가 재판에서 실형 4년형을 선고 받을 것 같고 이제 친모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함. 이어서 친모의 면회가 있었는데 친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동에게 사과하였다고 말함. 이후, 아동이 치료사에게 치료사의 고민을 말해 보라고 하며 도리어 치료사를 걱정해 주었음. 이에 대해 치료사는 아동에게 걱정해주어 고맙고 아동은 마음이 따뜻한 것 같다며 지지해주었음.

13회기에 아동은 전담 보호시설의 생활교사와 싸웠다는 말을 함. 아동은 생활지도교사가 교사답게 않게 행동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함. 그리고 아동이 교사에게 욕을 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은 자신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함. 치료사는 아동에게 어떠한 관계든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아동은 자신이 벌인 일

을 전담 보호시설의 아동회의 시간에 해결하겠다고 말함.

14회기에 자신의 나무 그리기를 하였고 아동은 자신이 그린 나무를 물감으로 채색함. 아동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그린 나무는 100세라고 말함. 그리고 이 나무는 앞으로 1000세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나무라고 함. 또한, 나무의 속은 밝은 데 겉은 어둡다고 설명하며, 이는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함.

15회기에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의 규칙 때문에 생활함에 있어서 힘들다고 말함.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해 생활지도교사와 다투었다고 말함. 아동은 사람의 얼굴을 2개 그려 부채처럼 만듦. 그리고 부채얼굴을 아동과 생활지도교사의 역으로 나누어 역할극을 진행함. 아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활지도교사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말함.



< 14회기 작품 >

아동은 나무를 물감으로 채색함. 아동은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설명함. 아동은 나무 그림을 통해 겉은 어둡지만 속은 밝다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의 애정욕구와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회기평가 :

아동은 전담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을 투사하는 것으로 보임. 치료사는 아동에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함. 아동은 역할극을 통해 생활지도교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3. 종결단계(16~17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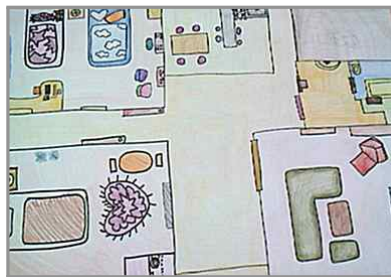
○ 치료목표 : 새로운 환경 적응에 대한 준비

○ 치료내용 :

아동이 장기보호시설로 전원조치됨에 따라 종결단계를 준비하게 됨. 아동은 추후 입소할 장기보호시설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표현함. 그리고 추후 입소할 시설로 친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함.

16회기에 아동은 앞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의 평면도를 만들었음. 아동이 그린 집의 평면도는 모든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이었음.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짐. 아동은 평면도 그림 작업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음.

그리고 17회기에는 아동이 그린 나무그림(14회기)을 액자에 넣어 선물함. 그리고 치료사는 아동에게 그림속의 나무와 같이 아동의 마음속에도 푸르름과 밝은 빛이 있음을 말해줌.



< 16회기 작품 >

아동의 장기보호시설 입소가 확정된 이후, 아동은 미래에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평면도로 표현하였음. 아동은 평면도 작업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함.

○ 회기평가 :

아동은 현재 지내고 있는 전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새로운 환경인 장기보호시설에 입소조치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적응에 대해 불안해함. 그리고 새로이 입소하는 시설에 친부가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어 심리적인 불안정을 보임. 그러나 친부의 방문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안심하는 태도를 보임. 아동은 종결을 맞이하며 섭섭한 듯 했지만 새로운 곳에 대해 기대함. 그리고 친부를 만나보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친부에 대해 아동의 양가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임

VI.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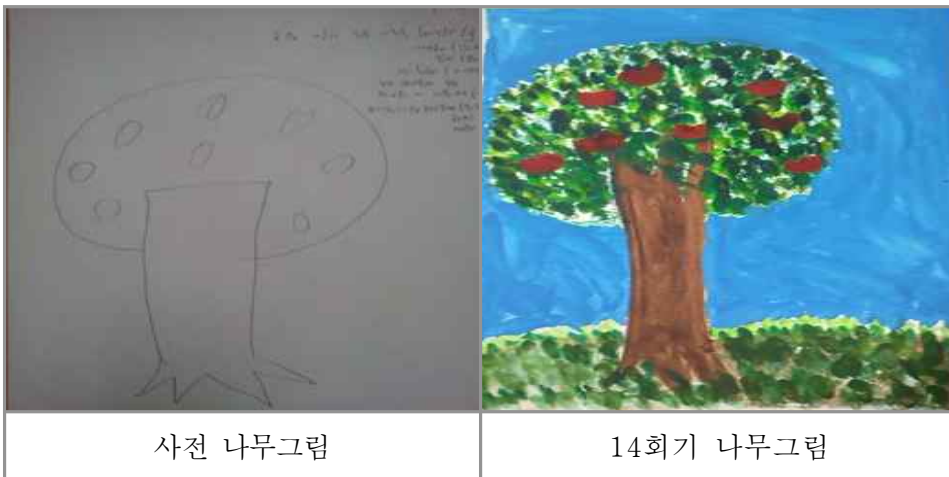
1. 분석 및 평가

아동은 겉으로 보이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욕구가 강함. 그리고 아동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상이 없어 불안감이 높았음. 이러

한 아동에게는 치료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치료사는 아동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현함. 이에 아동은 치료사에게 친부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과 같은 양가감정을 표현하며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

아동은 미술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상징화하면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짐.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장점을 알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됨. 또한,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갈등 양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전담 보호시설 내 생활지도교사와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임. 이러한 아동의 내적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아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감을 획득하였고 자신을 믿어 주고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인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함. 이는 아동의 사전 나무 그림과 14회기의 나무 그림의 비교 분석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음. 사전나무그림에 비해 14회기의 나무는 더욱 안정되어 있으며 내용이 풍성해 졌음.

아직 아동이 심리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 있음. 그러나 아동이 풍부한 내적자원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한 양육이 제공된다면 심리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2. 치료종결사유 및 사후관리 계획

1) 종결 사유

친부에 의한 성학대피해아동의 주호소 문제는 친부에 대한 분노감 해소와 전담 보호시설에서의 적응이었음. 아동은 미술치료를 통해 내면의 분노감을 해소함. 그리고 자기인식과 타인과의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전담 보호시설의 적응이 원활히 이루어짐. 이에 아동이 장기보호시설로 입소조치되더라도 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며 치료를 종결함.

2) 사후관리 계획

아동이 장기보호시설의 입소 후에는 본 기관의 심리치료는 중단되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제공하기로 함. 따라서 아동에게 더욱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제공되고 현재까지의 심리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미술치료 과정에 대한 소견서를 제공함.

아동이 장기보호시설로 전원 조치된 이후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제공되고 있음. 현재 아동은 새로운 환경인 시설과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성적 또한 향상되는 등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Ⅷ. 평가 및 제언

근친 성학대 피해아동은 타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지지자가 없다는 외로움과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함. 이로 인해 아동은 가출, 비행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음. 본 사례의 아동 또한 친부에 의한 성학대 피해아동으로 가출, 흡연, 반항 등의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음. 아동은 치료사와 시설의 생활지도교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관계를 시험하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아동은 치료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음. 그리고 아동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과 불안함 등을 비교적 언어로 잘 표현하여 스스로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

본 사례를 통해 성학대 피해아동이 심리적으로 지닌 학대행위자에 대한 양가감정, 방관자 역할을 하는 친모에 대한 감정,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음. 심리치료로 인해 아동의 성학대 후유증을 완벽히 해결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 파악과 그에 따른 심리치료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본 사례를 토대로 성학대 피해아동과의 라포형성 방법과 감정 표현,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에 대동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행복가족사진 공모전”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11

본 기관은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한 가정 및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복가족사진 공모전을 올해(2011년)로 6회째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해마다 지역단체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L그룹경북협의회와 진행하고 있다.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모전 홍보와 함께 본 기관에 대한 사업 홍보도 같이 겸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317점의 작품 중 17점의 입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입상자들에게는 본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기관의 홍보물을 발송하여 기관을 알리는 등,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은 본 기관의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키워드>

지속사업, 아동학대예방홍보, 협력체계구축, 시민참여

I. 사업개요

사업명	행복가족사진 공모전
사업기간	매년 7~9월 경 (2011년 현재 6회째 실시)
주협력기관(단체)	· 2006년~2008년 : S전자 온누리 봉사팀 · 2009년~2011년 : L그룹경북협의회
사업대상	구미시민 대상(42만명)

II. 사업추진배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내용과 신고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일반시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때문에 기존의 홍보방법을 통하여 일반 시민의 관심 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긍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을 진행할 아이템은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였다. 이렇게 고민해본 결과, 본 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올해(2011년)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은 “행복한 가정은 곧, 아동학대예방”이라는 목적 아래 기업 내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1회 행사 이후 지금까지 1,295명이 참여하였다. 공동 주관하는 지역단체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며, 지역민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친화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1회부터 3회까지는 S전자 온누리 봉사팀과 4회부터 6회는 L그룹경북협의회와 함께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5회부터는 L그룹경북협의회 이외에도 여러 후원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2011년 6회도 역시 L그룹경북협의회 이외 구미역사 G쇼핑몰, L마트 구미점, V패밀리레스토랑 등의 후원을 받아서 사진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점의 작품이 접수 중에 있다.

이에 지역단체와의 협력은 지역사회 내 공모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은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적으로는 본 사업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Ⅲ. 사업내용 (2010년을 기준으로)

1. 사업추진일정

기 간	주진 내용	비 고
2010. 5	- 아동학대예방사업(행복가족사진공모전) 제안서 초안 작성	
2010. 5	- L그룹경북협의회 방문 협의 · 전년도 사업평가 · 2010년 사업계획 논의 · 후원 및 행사진행 협조 요청	
2010. 6.	- 행복사진공모전에 대한 실행여부 논의 - 최종실시여부 확인 및 추진방안 협의	
2010. 6	- 400만원상당의 후원물품 및 후원금 확보	· L그룹경북협의회 후원
2010. 7	- 공모전 진행 협조 관련 후원기관 섭외 및 완료(A패밀리레스토랑, 구미시, S케이블 방송) - 4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 추가 확보(A패밀리레스토랑)	
2010. 7~8	- 행복가족사진공모전 공고 및 홍보	· 총 317점 작품 접수
2010. 8	- 심사 실시(본 기관 및 L그룹경북협의회)	· 입상작 17점 및 입선 20점 선정
2010. 9	- 시상식 실시	· 장소 : 도리사
2010. 10	- 행복사진공모전 사업 평가	

2. 세부사업추진 내용

1) 사업진행인력

구분	이름(단체)	담당역할
주관 기관	경북구미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총 기획 및 진행 홍보 응모작 접수 및 심사 입상작 시상 평가 및 후속업무 등
	L그룹경북협의회	자매회사 홍보 응모작 심사 입상작 시상 입상/입선작 상품 후원
후원 기관	구미시	구미시홈페이지/웹진 사업홍보 입상작 시상
	S케이블 방송	사진공모전 행사내용 방송홍보
	G쇼핑플라자	사업홍보 입상작(G쇼핑몰상) 시상 입상작(G쇼핑몰상) 상품 후원
	A페밀리레스토랑	사업홍보 입상작(A페밀리레스토랑상) 시상 입상작(A페밀리레스토랑상) 상품 후원 참가작 상품 후원

2) 홍보

①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 홍보물을 통한 홍보: 현수막게시 및 포스터부착, 전단지 배포
- 인터넷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글 게재
- 언론 홍보 요청: 지역신문 일간지 게재

<하이라이트> 제5회 행복가족사진 공모전 접수

[중부인터넷뉴스 2010.07.20 03:09:04]

글자크기 | + | -

아동권리, 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다음달 29일까지



지난해 실시된 제4회 공모전 시상식 모습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5회 행복가족사진 공모전'이 다음달 2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공곡 스님)과 LG경북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구미시, HCN새로넷방송, G?zone PLAZA, 아보카도 구미점이 후원한다.
응모기간은 7월 19일(월)~8월 29일(일)이며,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아동권리, 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다음 달 29일 까지
(중부신문 / 2010. 7. 20일자)

② L그룹경북협의회

- L그룹경북협의회 자매회사 사원 포스터 및 전단 홍보
- L그룹경북협의회 홈페이지 홍보/사내 인트라넷 홍보

③ 구미시

- 시청 홈페이지 알림게시판 홍보
- Yes구미 웹진 홍보

④ S케이블 방송

- 방송자막 및 정보게시판 홍보
- 행사 뉴스보도

- ⑤ G쇼핑몰, A패밀리레스토랑
 - 포스터 부착, 전단비치

3) 심사 및 시상

①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일: 2010년 8월 31일(화)
- 심사장소: 금오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심사방법:
 - 1차 : 총 317점 중 기관에서 100점 선정
 - 2차 :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입상작 선정(본 기관 및 L그룹경북협의회)
 - 3차 : 최종 작품은 기관에서 선정
- 심사기준: 표현성, 참여성, 작품성을 고려



<행복사진 공모전 심사>

② 시상방법 및 내용

- 시상일 및 장소 : 2010년 9월 25일(토), 도리사 산사음악회 무대
- 시상내역
 - <본상> ·행복가족상(대상 1명): 상장 및 상품(50만원 상당)
 - 함박웃음상(금상 2명): 상장 및 상품(각30만원 상당)
 - 다정상(은상 3명): 상장 및 상품(각20만원 상당)
 - 미소상(동상 5명): 상장 및 상품(각10만원 상당)
 - <특별상> ·G쇼핑몰상: 상장 및 상품(드럼세탁기)
 - A패밀리레스토랑상: 상장 및 상품(4인 가족식사권)

- <입선작>: 상품권 5만원 등기로 일괄발송
- <참가작>: 참가상품 우편으로 일괄발송(A패밀리레스토랑 1인 무료식사권)
- 시상자: 입상자 및 대리인 참석하여 시상식 진행함



<행복사진 공모전 시상식>

③ 시상내용 홍보

- 행사완료 후 행복사진공모전 시상에 대한 언론 홍보 실시

행복가족사진 공모전 서윤정씨 가족 대상

구미 마동보호전원기관과 LG경제협력회가 공동 주관한 제5회 행복가족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인 행복가족상은 '더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서윤정(구미시 사진) 씨 가족이 수상했다.'

마음만큼 있는 **건강한 사회**는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취지 아래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가족상을 심어주기 위해 최근 열린 사진공모전은 300여 점의 **전품**이 응모됐다. 서윤정 씨는 '행복한 모습의 **가족사진**을 촬영해서 가족 간의 또다른 행복을 느낀 것 같다며 '사진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같은 행복을 느낍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미대살림가가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복가족사진공모전 서윤정씨 가족 대상
(매일신문 / 2010. 10. 1일자)

IV. 사업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발전방안)

1. 사업평가

행복가족사진공모전에 응모한 인원은 총 317명이었다.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행복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9년에 이어 2010년에 함께 주관하는 L그룹경북협의회를 통한 기업체 홍보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L그룹경북협의회는 지역의 5개 자매사(L전자, L디스플레이, L이노텍, L실트론, 루○)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내부의 인트라넷을 통한 직원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기업체 직원 수(2만 명 정도)만큼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L그룹경북협의회는 행복사진공모전 이외에도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치료실 물품지원, 후원물품 및 후원금 전달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모전 홍보 이외에 본 기관에 대한 기관명과 대표 전화번호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도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구미역에 위치한 후원기관(G쇼핑몰)을 통해서 구미역사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공모전을 노출할 수 있었으며, 구미역사 홍보를 통해 본 기관에 대한 홍보가 직접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입상된 사진들은 지역의 언론 및 캠페인 활동 시 게시함으로써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미시, S케이بل방송, 지역신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본 기관의 공모전을 홍보를 해주었으며, 관할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며 포스터와 전단지 배포한 것에 있어서 홍보효과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행복가족사진공모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관의 홍보물을 포함한 기념품을 전달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해 본 기관에 대한 홍보가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2. 향후 추진계획

본 기관이 위치한 구미지역 뿐 아니라 본 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지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행복가족사진 공모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진

전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사회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인식 조사를 수행한다면 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가족사진 공모전의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사업 실시에 대한 당위성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V. 평가 및 제언

본 기관의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을 통해 지역 내 일반시민들에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바람직하게 정립하여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알리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일반시민들에게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기관의 행복가족사진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홍보방안들을 개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취학아동대상 성학대예방인형극전용극장 프로그램
‘좋은꿈단지인형소극장으로 놀러가자!’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12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인형극장을 개관하여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하여 성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성학대발생을 예방함.

I. 개요

프로그램명	미취학아동대상 성학대예방인형극 전용극장 프로그램 '좋은꿈만지인형소극장으로 놀러가자!'
주요사업내용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인형극장을 개관하여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하여 성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성학대발생을 예방함.
사업대상 (클라이언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내 미취학아동

II. 프로그램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성학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성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해자 처벌 강화, CCTV 추가설치,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성학대 발생 후에 적용되는 정책들로 근본적으로 성학대가 발생하기 전 수행되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부재하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형식적인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본 기관에서는 사전에 아동성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아동성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함.

아동성학대예방교육의 대상자는 미취학아동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지난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사례 가운데 만 1~3세 아동이 1.5%(6건), 4~6세 아동이 7.8%(31건), 7~9세 아동이 18%(72건), 10~12세 아동이 28.7%(115건)으로 나타나 학령기 전후로 성학대가 급증하기 때문임.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주의집중을 유도하고 호기심을 끌기 위해 '인형극'이라는 전달매체를 사용함.

또한 그 동안 보육시설로 방문하여 인형극을 진행하던 기존의 교육방법과 달리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인력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해 인형극장을 설치하고 아동들이 현장학습 형식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기관방문과 동시에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기관홍보와 동시에 방문교육 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함.

본 기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 전용극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아동이 잠재적인 성학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미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대해서는 성학대를 중단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을 성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사업의 기대효과

1)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의 기대효과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의 경우 인형이라는 매체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서에 친숙하고 아동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상황, 언어 등을 사용하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아동들은 이러한 인형극을 통해 성학대상황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간접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상황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음. 2011년 한 해 성학대예방인형극 관람인원은 연 6,894명(2011년 09월기준)으로 전북지역 내 보육시설 아동의 수가 55,619명(보육통계, 2009.12.31.기준, 보건복지부)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아동 12%가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임.

2)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장 설치의 기대효과

본 기관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강사를 조직하고 녹음된 더빙 CD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형태였음. 이 경우 더빙 CD를 사용하다보니 아동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보육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상이한 환경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진행이 힘들었으며 회마다 5~6명의 직원 및 동아리원이 보육시설에 이동하며 발생하는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컸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기관에서는 동화구연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수행하는 지역 사회 내 조직을 발굴하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동화구연 강사들을 직접 인형극의 교육강사

로 투입하여 육성을 통한 인형극을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를 공연할 수 있는 전용극장을 개관하여 2011년 한 해 동안 공연을 진행하였음.

한 해 동안의 진행 결과 인형소극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있다 보니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홍보의 기회가 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으며 보육시설에 방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음. 보육시설에서는 아동들의 현장체험 학습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아동들의 경우 인형극을 위한 조명 및 음향시설이 갖춰진 소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전문 인형극단을 통한 육성공연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등 교육의 전달효과가 높아지게 되었음.

Ⅲ. 프로그램 추진방법

1. 사업대상 선정

1) 사업대상

본 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내의 미취학아동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4~7세 아동을 기본으로 함. 앞서 필요성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학령전기부터 그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시기 아동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은 연령층이기 때문임.

2) 사업대상 선정방법

교육대상 선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일정 홍보로 개별 신청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관람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통한 신청이 효과적이므로 관할지역 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단체관람 신청을 접수받음.

2. 세부사업내용

1) '좋은꿈단지인형소극장'설치 및 전문 강사 양성과정

전용극장 설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형극을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조명, 음향시설, 암막 커튼 등 부대시설을 준비하고 공연에 사용할 인형 배경막, 그림판, 진행자 의상 등을 준비함. 또한 인형극장이다보니 아동들이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는 매트 및 의자와 아동들의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 등을 설치함.

<그림 1. 좋은꿈단지인형소극장>



극장설치와 아울러 인형극 공연 역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전문강사를 조직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강사조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무관하나 보다 질 높은 공연을 위해 동화구연자격을 가졌거나 동화구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육성공연이 가능하도록 함. 본 기관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동화구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 협약하여 단체의 구성원들을 인형극 강사로 조직함. 인형극 강사는 1개 동아리당 5명, 총 3개의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아리는 진행자 1명, 음향 및 조명 조작자 1명, 인형 조작자 3명으로 구성함. 각 동아리의 대표를 두어 교육모임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이 잡히면 대본리딩, 인형조작법 교육, 시연 등을 담당직원이 주관하여 진행함.

인형소극장 설치 및 공연준비가 완료된 이후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보육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관식을 진행하여 언론을 통해 인형극장 설치를 적극 홍보함. 이후 관할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홈페이지 게시 및 보육시설 대상 브로셔

발송을 통해 추가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신청을 받고 있음.

<표 1. 프로그램 실행 일정>

구 분	일 정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프로그램 기획	■											
인형극장 내부 설계	■	■										
인형극장 내부시설 설치		■	■									
전문 강사 조직 및 교육	■	■	■									
홍보		■	■	■	■	■	■	■	■	■	■	■
보육시설 접촉		■	■	■	■	■	■	■	■	■	■	■
교육 진행				■	■	■	■	■	■	■	■	■
프로그램평가/결과보고								■				■

2)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 공연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은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시간은 40분임. 인형극 공연만으로는 교육내용을 숙지시키기 어려우므로 막 변환 중간에 진행자가 등장해 전 막에서 진행된 교육 내용을 반복해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구성되어 있음.

인형극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1. 도입단계

진행자가 등장하여 인형극의 명칭과 교육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인형극 진행 전 미술이나 손유희를 통해 주의를 집중시킴. 그 후 위험상황 대처방법과 아동학대신고전화를 내용으로 한 가사를 아이들에게 친숙한 ‘울챙이 송’에 맞춰 노래하고 이 때 아동들이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을 함께 진행하여 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임.

2. 인형극 전개

인형극은 모두 육성으로 공연되며 1막은 어린이집 내 아동 간 성놀이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교사가 우리 몸의 소중함과 신체명칭을 교육함. 1막 공연 후 진행자가 재등장하여 그림판을 통해 신체명칭을 배우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다시 인지시킴.

2막은 처음 보는 이준마가 이웃으로 위장하여 게임기를 유인하지만,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도망가 엄마에게 알리는 상황으로 낯선 사람의 유인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보여줌. 2막 공연 후에도 진행자가 등장하여 유인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 교육함.

3막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동을 동네오빠가 성놀이를 가정해 성학대를 하려하지만 아동이 성교육 내용을 떠올리며 대처하는 상황을 보여줌.

3. 마무리 단계

기타 유괴 및 성학대 발생상황과 그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도입 부분에서 배웠던 노래를 율동과 함께 반복하여 아동학대신고전화를 알림

<그림 2. 인형극 공연 사진 >



3) 프로그램 평가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 교육 진행, 교육 교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는 이를 세분화하여 크게 교육효과성 평가와 운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IV. 프로그램의 독창성/기존 프로그램와의 차별성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아동성학대예방교육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령전기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 모두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받는 등 세분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본 기관이 진행하고자 하는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은 학령전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대상 연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매체를 이용하여 그 효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기존에 타 기관에서 진행되었던 성학대예방인형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강사를 조직하고 녹음된 더빙 CD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했는데 이 경우 더빙 CD를 사용하다보니 아동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보육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상이한 환경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진행이 힘들었으며 회마다 5~6명의 직원 및 동아리원이 보육시설에 이동하며 발생하는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컸음. 이와는 달리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장에서 진행되는 인형극의 경우 동화구연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수행하는 지역사회 내 조직을 발굴하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동화구연 강사들을 직접 인형극의 교육강사로 투입하여 육성을 통한 인형극을 진행하다보니 교육의 전달효과가 높고 인형극 공연에 최적화된 시설로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보육시설이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이동하면서 투입되는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낮출 수 있음. 덧붙여 아동들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직접적인 기관홍보가 가능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2012년부터는 화·금요일에는 기존의 아동성학대예방인형극을 진행하며, 수·목요일에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인 언어소통, 생활습관 및 양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형극을 진행 계획 중에 있음.

2011 아동학대예방사업 우수사례집

- 인 쇄 일 : 2011년 11월
- 발 행 일 : 2011년 11월
-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이순기, 김준미, 김우진, 전수영, 강주희
- 발 행 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프로그램 개입사례